

영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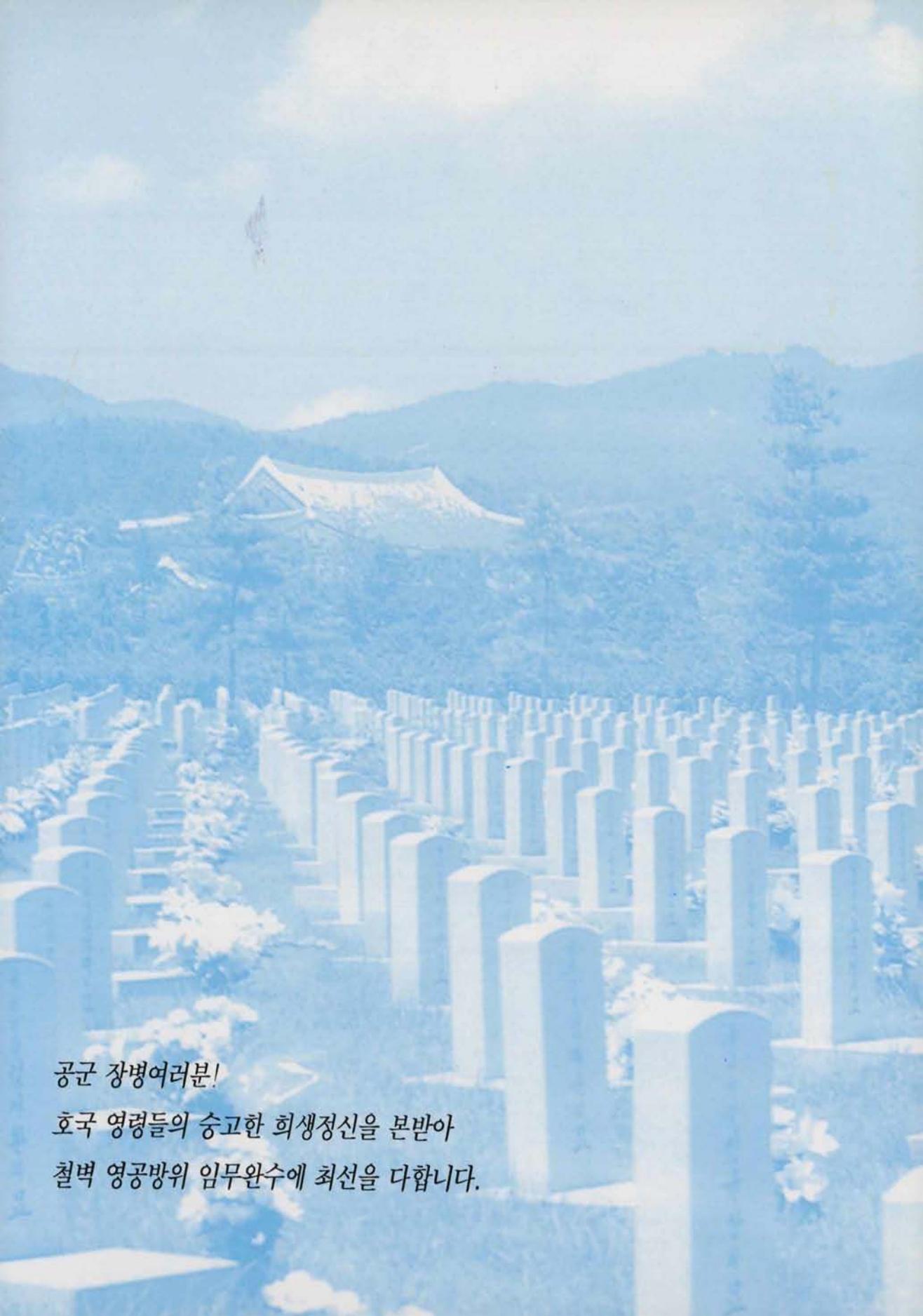
AIR FORCE QUARTERLY
1997년 여름호 (통권 제239호)

항공정기항공
25080-33246-44-97007



영재
권은부





공군 장병여러분!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철벽 영공방위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합니다.

글 차례

- 권 두 화 보 ————— 4
- 권 두 언 6월이 주는 교훈/정훈공보실장 대령 서홍교 ————— 10
- 보 라 매 칼 럼 조깅과 정신력(精神力)/중장 배양일 ————— 12

● 특 집 I ● 걸프전 참전과 그 교훈

- GULF전을 회고하며/중령 한중희 ————— 16
- Korean Air Force Tri-angle Pattern/소령 박수철 — 22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준위 박병진 — 25

● 특 집 II ● 북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 남북한 관계와 4자회담/교수 한용원 ————— 28
- 좌경세력 연방제 통일논리의 부당성/공군기무부대 — 34

- 공 군 논 단 효율적인 물류관리 방안/대령 안중엽 ————— 38
- 정보전 관련동향과 한국군 적용 가능성/중령 이정표 — 44
- 환경위기와 환경주의/중위 한동호 ————— 55

- 생 활 제 언 10원의 철학/공군가족 김경숙 ————— 63
- 절약, 실천의 모범을 보일때다/준위 김석태 ————— 66
- 건강한 치어는 건강한 삶의 출발점/상사 신준택 — 70

- 중 간 화 보 ————— 73
-

글 차례

● 기 획 I ● '97 전사적지 및 산업시설 견학	
발전과 정지 속으로의 여행/소위 최인호	81
전사적지를 다녀와서/9급 이웅숙	84
반성과 다짐의 시간/상사 김상만	86
● 기 획 II ●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제1회 제주예선	
제주예선대회를 회고하며/중령 정상중	90
하루를 위한 4개월간의 준비/소위 김현준	95
하늘에 꿈을 싣고/교사 양보현	102
공군참모총장님께!/초등학생 오진우	105
● 만 화	수통맨/고석현 107
● 취 미 생 활	패러글라이딩에 대하여/원사 서재석 115
	한 여름밤을 브람스와 함께/일병 장재용 122
● 공 군 문 단	126
- 시 -	십만원/상병 조정현 128
	아버지의 뒷모습/상병 송창욱 129
- 독 후 감 -	스티븐 킹의 「영원한 희망」을 읽고/병장 김형년 130
	어린왕자를 좋아하세요?/일병 이상헌 132
	영화속의 전쟁/상병 김광식 135
- 수 필 -	나의 어머니/일병 김준호 137
	사랑하는 사람들/일병 허우석 140
	메뚜기와 엘빈토플러의 세상읽기/일병 남진우 143
- 문화유적탐방 -	칠점산과 두꺼비 바위/중사 양하운 147
● 글을기다립니다.	152

♣ 공본 인터넷 시연



▲ 사무자동화·작전·정보·인사·군수 등의 군사업무 전반에 걸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지휘관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시연회에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 참모들이 참석하였다. (3.23.)

♣ 공본 환경상설전시장 개장



▲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재활용 상품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된 「환경 상설 전시장」 개장식에 참석하여 최신 환경시설 모형과 재활용 상품을 둘러보았다. (3.24.)

공 · 군 · 동 · 정

✦ 제20전투비행단 순시



▲ 지난 12월 창단한 제20전투비행단을 순시하였다. 이날 참모총장은 현황보고에 이어 기지를 순시한 뒤, 부대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4.17.)

✦ 미 태평양 사령관 공분 방문



▲ 본부를 방문한 미 태평양사령관 로버(John G. Lorber) 공군대장 일행을 접견하고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한반도 안보정세와 양국 공군의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6.2.)

제19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제주도 포함, 전국 최대의 항공 이벤트〉



참모총장의 개막 축하 시범 비행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항공사상을 양양시키고 항공애호 인구의 저변 확대와 국민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하게될 제19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가 5월 18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약 2천여명의 선수를 포함하여 초청내빈, 선수 가족, 일반관람객 등 2만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특히, 제주 지역이 예선을 거쳐 참가하여 전국 14개 전 지역을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의 항공 이벤트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날 개막행사는 사관생도 퍼레이드, 전문 곡예 비행팀인 '블랙이글'의 축하비행, 동력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딩 축하비행 등 다채롭게 이어졌으며, 공군 모자 전시회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제 19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 개막을 축하하는 패러글라이딩 시범

▶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사인을 하고 있는 참모총장



◀ 무선조종 부문 경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전국 동호인 및 학생들

가·정·의·달·군·악·및·의·장·시·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공군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주기 위한 군악 및 의장시범 행사가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되었다.

대전, 대구, 청주 등 8개지역 38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이번 시범행사는 약 5만 5천여명의 어린이들이 관람하여 공군홍보 및 항공사상 양양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대구 아양초등학교 시범 장면



▲ 제주 대정초등학교 시범장면

항공

AIR FORCE QUARTERLY

1997년 여름호(통권 제239호)



參謀總長 指揮方針

最高의 戰備態勢
科學的 敎育訓練
總和的 安全管理
斬新한 空軍文化

공군본부

6월이 주는 교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는 뜻깊은 달로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초개같이 버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6월은 나라의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겪어야했던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반추해보고 나라를 위해 자신이 진정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21세기를 불과 3년 남짓 남겨두고 있다. 선진화와 통일, 그리고 세계사의 주역이라는 21C의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다.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그 때마다 혼연일체가 되어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호국영령들의 도전과 응전의 정신을 꼼꼼히 되새겨보아야 한다.

최근의 한반도 안보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다.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위기에 봉착한 북한이 위기탈출을 군사적 도발로 표출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4자회담을 위한 3자 실무회담이 현재 진행중이며,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한 민간차원의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호전될 것이라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다.



徐 弘 教
대령/정훈공보실장

그러나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4자회담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선 식량지원, 후 4자회담 참석”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이 회담을 미끼로 삼아 식량을 지원받는 한편, 지속적인 대미협상채널을 통한 주한미군의 철수나 전쟁도발을 의식한 최소한의 유화 제스처어인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북한은 올해를 ‘고난의 행군’ 마지막 해라며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자포자기식 전쟁설을 유포시키고 있으며, 세계식량기구 등에서 원조한 식량을 북한군에 전용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 동정론이 지나쳐서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이 자칫 무모한 전쟁도발을 위한 군량미로 사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에게 6월은 많은 것을 되새기게 한다. 특히, 우리민족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각인된 6.25 전쟁의 참상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선현들의 유비무환 정신을 떠올리게 한다. 이 땅에 신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태세로 철벽 영공방위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호국보훈의 정신을 함양하는 지름길이다.

조깅과 정신력(精神力)

배 양 일
중장/前 공군참모차장



나는 나이에 맞지 않게 조깅을 좋아했다. 솔직히 말해서 땀흘리며 12km를 달리는 고통 그 자체를 좋아할 수는 없겠으나 나의 의지를 담고 뛰는 그 자체가 좋았고, 땀흘리며 완주하고 난 후에 느끼는 상쾌함과 해냈다는 성취감에 언제나 매료되곤 했기에 조깅을 무척 좋아한다. 특히 나는 주일날의 아침 조깅을 즐긴다. 남들이 잠든 아침, 동쪽의 떠오르는 햇살을 받으면서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뛰는 기분은 비길 데 없이 싱싱하다. 때로는 푸른 하늘에 어느 이름모를 후배 조종사의 새벽 초계기(哨戒機)가 그어 놓은 비행운(飛行雲)을 보게 될 때는 마치 내가 하늘의 그 후배 조종사와 하나 되어 거친 숨을 쉬는 요기가 되어 하늘에 떠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한다.

얼마전 신문에서 김대통령께서 4월 13일부로 매일 즐기시던 아침 운동을 조깅에서 수영으로 바꾸었다는 소식에 나는 서운한 감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고회를 바라보시는 대통령께서

도 조깅을 하신다기에 이제 겨우 56세의 청춘(?)인 나로서는 아직도 20년이란 오랜 기간을 더 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찬 의욕이 있었는데 이젠 그 기준과 경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께서 조깅을 그만둔다는 소식에 서운함을 감출 수 없던 나 또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듯하다.

사건(私見)이지만 군인에게는 조깅이라는 것이 어울리는 용어가 아닌 것 같다. 군인에게는 단체생활에서 뛰는 것 자체가 혼자서 건강 삼아 뛰는 것 외에 군기와 기백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래서 구보란 용어가 더 어울린다.

어쨌거나 나의 조깅의 역사는 60년대 초 사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연 2회의 관악산 구보는 생도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연중 주요 행사 중의 하나였다. 뛰는 당일도 힘들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1~2개월 간의 준비훈련기간의 긴장은 그 꿀맛 같은 밥맛도 잃게 하였다. 그 관악산 구보 경로

는 지금도 흰한데 사관학교의 후문(현 보라매공원 정문)에서 자하동(지금의 서울대학교 위치)까지의 첫 구간인 4km는 내게 아직도 생생한 고통의 거리로 남아있다. 후문을 나서면서 험뎁이는 숨소리는 목구멍에 닿기도 전에 하나! 둘! 구령소리에 파묻혀 버리고 심약한 생도 한 둘은 유도도복 끈에 묶여 끌려오곤 했으며,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산길 3km구보는 표고 632M인 관악산의 명성을 말해주듯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다. 험한 정상까지 사력을 다해 뛰면서 기다시피 올라간 관악산 정상에서 다시 그 아래 인주암까지 1km는 주로 거의 구르다시피 뛰면서 완주했다. 우리들 모두는 그 1시간 30분을 오로지 체력이 아닌 투지력(鬪志力)과 군인정신(軍人精神)으로 뛰었던 것이다. 내가 비록 건장한 체구는 아니었지만 때로는 동기 전우를 부축하면서 기록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대대에 질 수 없다는 필승의 신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후 후배기수에 와서 그 추억 많던 관악산 강행군이 없어진 이유가 2~3명의 희생자가 생겼기 때문임을 들었을 때 아쉬워한 이유는 역시 위험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극한의 어려움에 도전하는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힘들던 극기의 순간에서 젊은 생도들이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근래 사관학교 교장시 확인해 보니 관악산 대신 그나마 494M 고지의 성무봉(星武峰)을 힘차게 뛰어오르는 젊은 생도들의 힘찬 모습에서 다소 위안을 느꼈고 어떤 형태로든 분명 필요한 훈련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생 역정은 마라톤과 같다”고도 한다. 장거리 구보란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을 인내

하며 완주하는 과정에는 생활의 희노애락과 삶의 철학이 내포되어 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은 군인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와 상통되는 것이라 하겠다. 삶에는 기쁨이 있으면 시련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마라톤의 종착점을 향해 역경과 고통을 극복하며 도달했을 때 우리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나는 구보를 통해서 많은 인생의 교훈과 철학을 얻었고 이것을 나는 지휘관리에 활용하였기에 몇 가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나는 직책에서 느끼는 긴장감, 즉 스트레스를 구보로 발산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할 수 있었다.

지휘관은 많은 예하 부대관리 및 고가장비의 운영에 따른 총체적 안전관리에도 힘써야 하지만 이에 앞서 공중전투지휘관으로서 존음을 다투는 대적 영공방위 대비 태세에 따른 긴박감이 24시간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특히 내가 사령관으로 재직시에 있었던 94. 7월의 김일성 사망 및 북괴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영공방위를 책임진 사령관으로서 나의 사명의식은 하루도 안일(安逸)을 허락치 않았다.

준(準) 비상체제의 연속에서 긴장은 극에 달하고 이에 육체와 정신적 건강 관리법을 찾아 시작한 것이 처음 3km구보였다. 욕심 많은 나는 땀 때마다 1km씩 연장하여 어느새 기지 외각 12km를 완주하게 되었고 이것을 본 동년배인 미 7공군사령관은 놀란 눈으로 나이를 생각해 3마일 이상 무리하지 말라는 우정의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의 욕심과 자존심을 몰라서 하는 말이었다. 장거리 조깅으로 팔죽처럼 흘리는 땀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과 기력을 오히려 주었으며

뛰고 난 후 상쾌감은 충분한 엔돌핀을 나에게 공급하여 그 긴장감은 어느새 박력으로 변해 있었다. 또한 그 짜릿한 12km의 구보는 무한한 잠재 의식과 가능성을 나에게 열어주었다.

둘째, 구보는 지휘관에게 필요한 강인한 의지력과 인내심의 함양으로 자기 단련과 수양의 길이 되었다.

군지휘관의 긴박한 상황판단은 침착하고 냉철한 상황분석 능력, 수많은 경험 요소, 논리적 기초에 바탕한 합리적 결정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 추진능력은 시련과 고통을 인내하여 극기하는 감투 정신을 기반으로 한다면 침착성과 끈기 양성의 기본 운동이며, 또한 프로 근성의 소산인 구보와 유사한 것이 많다. 보통 구보 거리의 1/2 지점에서 정신적인 갈등이 온다. 완주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의 기로인데 통산 1/2를 넘기면 대부분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큰 것은 자신감과 성취 의욕이 극기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심리적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셋째,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체계의 확립과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었다.

현대 리더십 분야의 최고 석학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비롯하여 훌륭한 통솔론에 대한 책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옛날의 원칙이 강조, 수정되고 때로는 반대 논리가 가슴에 와 닿는다. 그러나 조직 특성에 맞게 상황에 따른 통솔 기법 선택은 지휘관에 의해 선택되므로 지휘관의 선발과 의식 성향은 조직 발전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휘관에게는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의 정신이 더욱 강조된다. 즉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책임을 다하는 이 시대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사령부의 계층별 지휘관 회의를 통해 상부지침과 지휘관의 의도를 주입시킨 후 참신한 의식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부대장들과 함께 12km 구보를 강행했었다. 40~50대의 중령, 대령, 장군 지휘관을 구분하여 그들과 함께한 선도구보(先導驅步)는 신선한 충격요법이었다. 완주한 자에게는 환희와 자신감을 줄 수 있었고 낙오했던 지휘관에게는 각성과 재기의 의욕을 부여했었다. 나는 낙오자를 파악하거나 질책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자율적 판단만을 유도했다.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첫 구보에서 중령급 비행대대장중에서 낙오자가 많았으며 준장, 소장의 비행단장이 전원 12km를 완주했다는 사실은 경이적이었다. 그들의 정신력과 책임의식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수차례의 계층별 지휘관들의 단체구보가 있었으나 단 한명도 낙오하지 않는 기록을 세웠으며 전 조종사들에게 구보선봉이 불게 되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비행단장들은 회의소집 1~2개월 전부터 술, 담배를 삼가고 열심히 구보연습을 하며 체력관리를 해 왔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미안한 마음에 앞서 구보를 통해 무언의 기강확립으로 지휘체계를 확립하였고 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책임의식이 권한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을 간접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었다.

넷째, 각급 지휘관에게 성취감을 부여하여 자부심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지휘관에게 자만심은 어떤 행위에 대한 만족과 과시로서 그 결과 나태와 안일을 초래하면서 부대의 발전에 퇴보를 자초할 수 있겠으나 자부심은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이며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심리라고 볼 수 있다. 지휘관의 명예와 자부

심은 성공적 임무완수와 목표성취에 의해 고양된다고 하겠다.

수천 명의 부대원을 거느린 부대장의 구보나오는 이 구보의 근본취지에 어긋남을 미리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들에게 속도조절로 최대의 여건을 부여하여 완주의 기쁨을 느끼게 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예상대로 자신은 물론 부대원에게 자랑스러운 지휘관임을 인식시킬 수 있었다. 구보가 끝난 후 목욕탕에 들면 완주한 성취감에 모두 50대의 노병은 20대의 신병처럼 기쁨에 차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의 가슴은 뜨겁게 벅차곤 했다. 생도시절 항시 구보에 취약했던 C부대장은 30년만에 뛰는 12km 구보를 50여세된 장군이 되어 성공적으로 완주함으로써 생도시절의 구보 낙오명을 씻고 그 명예를 회복하였다. 그것은 수천명의 자기 부대원의 성원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과 사명의식으로 이룬 인간승리의 쾌거였으며 지휘관의 표상이었다.

다섯째, 뛰면서 느끼는 고통의 인내속에서 참신한 IDEA 개발이 가능했었다. 새로운 착상과 변화는 안일한 평범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극한 상황과 절박한 환경 속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긴장감을 해소하고 의욕을 되찾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한 1시간 10분의 조깅이 인내의 고통속에서 무아도취경에 접어들게 하고 감정과 억지가 사라지고 가장 순수한 심경에서 문제의 핵심이 파악되고 새로운 해결방법을 도출한 것이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기지 활주로등이 가물거리는 불빛을 보

면서 새벽을 가르는 항공기 폭음속에서 뛰던 그 집념으로, 복귀 기습도발에 대비한 신방공 작전 개념, 비행안전을 위한 RTDS의 비행단 설치, 원거리 임무항공기 교신장비 구비, SR운동의 방향 등을 구상해 보았고, 때로는 나의 인생과 철학을 음미하고 헌신하는 아내와 아들, 딸에 대한 아버지의 미흡했던 정성을 가슴 뜨겁게 반성하면서 맘에 뒤범벅이 되어 뛰던 구보가 나에게서 기쁨과 보람 그 자체였다.

고통의 인내 속에서 인간의 사고는 적절하게 자극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는 요즘은 이곳 계룡대에서도 10km의 경사 도로를 따라 조깅을 즐긴다. 오산의 평지보다 오르막길의 연속인 이 경로가 옛보다 힘든 것은 벌써 불혹을 지난 50대 지천명(知天命)의 인생 경륜이 이제 60세 이순(耳順)의 나이에 접어드는 때문이라기보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저 멀리 있기 때문이라라.

이곳 계룡대 천황봉 858M 산정에서 내려다 보는 3군(軍) 본부 위용은 마치 깊은 계곡에서 꿈틀거리며 비상하려는 용들의 무대처럼 느껴진다.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로 정하려던 뜻을 알만하다. 그래서인지 주변 지명은 온통 용들의 명칭을 구사하고 있다. 계룡, 비룡, 구룡, 청룡, 백룡, 숫용추, 암용추 등. 그렇다면 어디에는 이무기도 도사리고 있겠지만 구보 사령관으로 별명이 붙은 나는, 또다른 별칭으로 “구룡(鷗龍)”이란 말은 없으니 이제 “교룡(蛟龍)”으로 불릴 것인가? **중문**

GULF전을 회고하며

ENG는오자등 회고하며

한 중 희

중령/제5전술공수비행단 정보처



GULF만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도 어느 새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6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당시의 심정으로 되돌아가보고 싶은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 보다.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라면 누구나 많은 이야기와 추억이 있듯이 나 역시 예외일 수는 없는가 보다. GULF전 당시 제56공수비행단(비마부대)비행대대 선임 동승조종사(항법사)로서 참전했던 경험자이기에 세월이 흐른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그때의 상황을 회고해보고 싶은 것이다.

나는 2남1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부친께서는 1948년 11월에 군대에 입대하여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가하셨다가. 지난 1977년 2월말 부로 전역을 하셨으며, 6.25전쟁 당시엔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으시기도 했다. 반평생을 군에 충성을 다하셨던 부친께서 1988년 12월 12일 줄지에 작고하셨다. 큰애가 태어나서 한 달이 되던 일이다.

부친께서 작고하신 지 1년 4개월여 지나 갑자기 형님마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셨다. 한순간 집안에 남자는 나 혼자밖에 남지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걸프만에서 전쟁이 발발하였고, 연일 TV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공습하여 중요 목표를 폭파하는 장면과, 이라크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사우디 아라비아로 발사하는 순간, 다란 등 여러가지에서 페트리엇 미사일로 요격을 했고 미처 요격을 하지 못한 미사일이 다국적군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방영되었다.

그 상황이 아주 실감나게 돌아가고 있을 때 국방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공군 수송기가 GULF전에 다목적 군의 일원으로 참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당시 C-130 동승조종사로 일선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갈등을 하게 되었다. 집안의 가장으로 홀어머니와 홀로된 형수와 조카를 뒤로 하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할 때 “모친께서 뭐라

고 하실까?”부터 시작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으나, 결론은 “참전한다”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뜻을 이어 받는 길이라 생각했다. 반 평생을 군대에서 보내시고 6.25, 월남전을 참가하신 부친께서도 GULF전 참전을 결심하게 된 것을 이승은 아니지만 저승에서도 찬성하실 것 같았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미 그 당시 비행대대장님께서서는 누구,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 이미 내정을 해놓은 터였다. 엄선에 의해 선발된 제56공수비행단 요원은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현지 생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1991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철저한 사전 교육에 임하게 되었다.

지금은 쉽게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고민한 것을 생각하면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GULF만으로 떠나기 전 날이 바로 어머니의 61회 생신이었기에 나의 갈등은 더욱 심각한 국면에 이르렀던 것이다.

다음날 새벽 장도의 길에 오르게 되어 있어서 모두들 일찍 취침을 해야 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대대장님이 알고 누님네식구, 우리식구, 형수, 조카와 같이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며 이 일은 내게 큰 용기가 되었다.

1991년 2월 19일 새벽 3시30분에 기상하여 모든 준비를 마친 2/C-130 항공기는 비행대대장과 내가 탑승한 항공기를 선발대로 하여 고요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이른 새벽에 저 멀리 중앙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U.A.E)를 향해 힘차게 날개짓을 하는 한 마리의 새가 되어 서울기지를 이륙하였다. 06시에 서울 기지를 이륙한 우리는 6시간여 비행후 필리핀 클라크 미공군기지

에 연료를 재 보급 받고, 7시간여를 더 비행하여 태국 방콕의 돈 무앙기지에 기착하였다. 1박을 한 후 다음날 07시에 스리랑카의 콜롬보공항으로 향하였다. 태국의 돈무앙 기지를 이륙한 우리 선발대는 기수를 서쪽으로하여 계속 비행을 해나가고 있었다. 항공기는 어느덧 말레이반도를 뒤로 하고 인도양의 벵골만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항공기가 벵골만으로 접어들자 지난 1987년 11월 29일 인도양 벵골만에서 북괴 김정일의 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대한항공 757기 공중폭파사건이 문득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순간 아찔함과 함께 내게도 알 수 없는 마음의 흔들림이 일시나마 일기 시작했으나 고요하고 잔잔한 인도양의 벵골만을 뒤로 하고 우리는 스리랑카의 콜롬보 공항으로 향하였다. 콜롬보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에 해변가에 밀집된 야자나무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인도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시 한 번 느낄수가 있었으며, 긴 항로의 피로를 다소나마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연료 재 보급이 끝나자 우리는 콜롬보 공항을 이륙하여 기착지인 아랍 에미레이트 알 아인 기지로 향했다.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의 포크해협을 지나 인도의 서쪽 해안을 항공기 우측에 두고 비행하던 중 기내에서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방콕에서 대한항공에 의뢰한 점심용 기내식이 초밥 4개에 음료수 1개뿐이었다는 사실이다. 얼마 안되는 기내식을 먹고난 탓인지 곧 다시 배에서 난리가 났다. 선발대 항공기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실지 않았으며 기내에 먹을 것이라고는 필리핀 기착시 필리핀 무관이 비행 중 먹으라고 준 필리핀산 야생 바나나뿐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허기진 상태

걸프전 참전과 그 교훈

로 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바나나를 먹으며 비행하길 6시간, 어느덧 중동에서의 태양이 지고 있었고 태양이 서쪽 대륙으로 숨어버린지 30분 뒤에야 우리는 어둑어둑한 가운데 아라비아 반도의 검붉게 보이는 사막을 바라보며 긴 여정의 날개를 접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20일 18시40분(한국시간 2월 20일 23시40분)이었다. 13,000km의 장거리를 이틀에 걸쳐 하루 12~14시간의 강행군 속에 비행을 하면서 승무원 모두는 허기와 피로가 겹쳐서 무척들 피곤해 보였지만, 대한민국공군으로써의 자부심을 잃지 않으려고 무척들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잠시 우리 한국군이 주둔했던 아랍 에미레이트 알아인 기지에 대해 소개하겠다. 기후는 아열대 사막 기후로 최고기온이 섭씨 50℃까지 상승한 적이 있으며, 연평균 강우량은 30mm에 불과하다. 겨울은 12월~2월 사이이며 겨울 평균기온은 3℃~25℃이고 하계 평균기온은 18℃~47℃였다. 또한 알아인 기지는 쿠웨이트전선에서 900km, 아부다비에서는 동쪽으로 150km가 떨어져 있고 알아인시 서쪽으로 12km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의 비행장이다. 동비행장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왕실 전용 항공기가 주기하고 있는 관계로 기지경계가 엄중하며, 기지 주위 2km내로 민간인의 접근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아랍에미레이트 알아인 기지에 등지를 튼 대한민국공군 제56공수비행단은 6개국 27개 기지를 대상으로 비행임무를 실시하였고 귀국전까지 37일동안 총 323소트, 461시간 57분의 비행시간에 247,000여km의 비행거리를 기록하며 화물 71.3톤과 병력 1,405명을 공수하는 실적을 수립하였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쿠웨이트 시티 공항 임무였다.

1991년 3월 5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다.(쿠웨이트가 다국적 군에 의해 수복되고 5일 후)그날은 바로 한국 공군 최초로 쿠웨이트시티 공항을 비행기로 착륙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1991년 3월 5일 11시35분 태극마크를 단 C-130 항공기가 아랍에미레이트 알아인 기지를 이륙하여 사우디 다란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13시 30분이었으며, 그곳에서 인원 2명과 화물 5ton을 적재한 후 14시02분에 쿠웨이트시티 공항으로 향했다. 이륙 후 40여분이 지나 쿠웨이트와 사우디의 국경선을 통과하여 계속 북북서 방향으로 비행을 계속 하던 중, 쿠웨이트시티 공항의 기상이 좋지 않아 착륙 못하고 다란 공항으로 귀환 중이라는 미공군 C-130 항공기의 무전 연락을 받았다. 항공기 탑재 장비가 열세인 우리로서는 지형 지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단지 쿠웨이트시티 공항 주변의 최고 높은 장애물은 FINAL 5MILE 부근에 있는 541' 철탑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으며 지도에 비행경로를 다 표시 해 놓은 정도였다. 쿠웨이트시티가 가까워오자 불타는 유정들이 군데군데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신의 저주에 가까운 환경 파괴로, 사담 후세인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전범자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타는 유정에서 내뿜는 연기로 인해 하늘은 거대한 OIL CLOUD(구름층)을 이루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행하는데 시정장애를 일으키고 있었다.

우리보다 더 우수한 장비를 가진 미공군 C-130 항공기도 이 OIL CLOUD를 뚫지 못해서 쿠웨이트시티 공항에 착륙을 하지 못하고 귀환



사막의 모래바람과 폭염 등 수많은 악조건에서도 수송지원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였다.

을 하였던 것이다. 수평 시정은 1~2마일 정도지만 간혹 지형 지물이 확인이 되었고 INS 장비를 이용해 FINAL COURSE를 잡아서 항공기 고도를 4,000'에서 2,000'로 강하를 하였으나 지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INS장비가 공항 상공을 지시하는 순간 높은 타워 건물이 확인되었으나, 항공기 고도는 2,000'이고 아무리 주변 장애물이 514'라 해도 지형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었기에 바다 쪽은 OIL CLOUD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대대장님 항공기 기수를 090°로 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나가 고도를 강하한 후 재진입하시죠"라고 조언을 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항공기 기수를 090°하고 조금 비행하자 쿠웨이트 항구가 보이기 시작하고 좀더 나가자 OIL CLOUD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항공기 고도를 강하하자 CLOUD BASE가 1100'~1300' 정도였고 시정은 3~4마일 정도였다. 우리는 OIL CLOUD 밑으로 비행하여 다 파괴되어 전기 시설도 없는 쿠웨이트시티 공항에서 이륙한지 1시간20분만인 15시22분에야 성공리에 착륙을 할 수 있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갖춘 미공군 C-130 항공기도 착륙을 못했는데 우리가 착륙을 한 것이다. 정말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공군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쾌거였으며, 부족한 장비지만 평소 철저한 비행준비와 임무형 실천적 교육 훈련이 이루어낸 작품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쿠웨이트시티 공항에서의 첫 인상은 마치 영화나 동화에서나 나오는 유령의 공항에 온 느낌이 들었다. 오후 3~4시밖에 안되었지만 OIL CLOUD로 인해 초저녁처럼 어둑어둑했고 음산하고 칙칙한 바람이 불며, 공항내에 있는 모든 차량의 타이어는 하나도 없이 빠져 버렸고, 공항내 호텔 건물은 대포에 맞아 구멍이 뚫렸고, 실내는 화재로 인해 온통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으며, 공항 격납고는 건물 자체가 아예 주저앉아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점보 747 여객기도 불에 타서 그 흔적만 남아 있었고, 모든 건물은 거의 다 파괴되어 아수라장을 연상케 하였다. 잔인한 사담 후세인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공항 주변을 돌아 보고 있는데 마침 쿠웨이트 시민이 차를 타고 지

걸프전 참전과 그 교훈

나가며 감사의 손짓을 했다. 손 흔드는 그들을 쳐다보자, 안타까운 생각에 앞서 우리의 분단된 현실이 뇌리를 스치며 더욱 더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 방위에 충실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었다.

항공기가 쿠웨이트시티 공항을 이륙하여 사우디 다란 공항으로 향하고 있을 때, 만약 우리도 미공군 C-130 항공기처럼 쿠웨이트시티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되돌아 갔다면 지금 항공기에 타고 있는 25명의 승객들은 폐허가 되다시피한 쿠웨이트 시티에서 “몇일을 더 기다려야만 했을 것이다”란 생각을 하니 정말 가슴이 뿌듯해져움을 느낄수가 있었다.

잠시 현지에서 외출시 일어난 에피소드를 얘기해 보겠다. 평균 이틀에 한 번 비행을 하였기에 다른 요원들보다는 중동의 여러곳을 공중에서나마 구경할 수가 있었으며 시퍼런 페르시아만의 바다 위를 조용히 날으는 한 마리 학처럼 우리는 페르시아만 주변국들을 왔다갔다 하며 이국의 경치를 만끽할 수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지에서의 첫 외출시 우리는 회교국가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절대로 남의 여자에 대해 눈길을 주지 말고 사진촬영때도 주의해서 사진에 남의 여자가 나오지 않도록 촬영을 해야 하며, 라마단 기간 중에는 태양이 떠서 질때까지 금식을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다. 길을 가면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서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이동시 물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때도 밖에서 쳐다보지 못하도록 허리를 숙여서 취식을 하거나 담배를 피울 수 밖에 없었다. 만일 이상의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 비밀경찰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경찰서에 연행되

어 간다고 교육을 받았다. 차량은 사막을 가로질러 알아인이란 도시로 향했다. 알아인으로 가는 동안 낙타 경주장이 시야에 들어왔고 어린 소년들이 낙타 등에 올라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밤에는 그렇게 아름답던 도시가 벌건 대낮에는 전혀 볼품이 없고 온통 검붉은 사막만이 눈에 들어왔다. 알아인시에 있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도착하여 우리는 수영이나, 테니스, 스쿼시 등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열심히 테니스를 치면서 한가지의 문점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아무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행여 다른 사람이 먼저 코트를 차지할까봐 서둘러서 코트를 잡고 운동에 임했으며, 테니스를 마치고 수영까지 하고 나니 어느덧 태양은 중동의 사막서쪽으로 지고 있었다. 태양이 지고 어둠이 밀려오자 모든 사람들이 거리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거리에 모든 전등은 하나, 둘씩 켜지고 거리는 대낮처럼 흰해지기 시작하였다. 한낮에는 얼씬거리지도 않던 사람들이 해가 지고 선선히지자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그때서야 그들이 한낮에 운동을 하지 않는 까닭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운동한 시간에 그들은 더워서 집안에서 오수를 즐기며 해가 질때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머물고 있는 기지로 돌아오며 우리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다시 한번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다. 대낮에 초라하던 거리가 오색등으로 장식되며 분수대에서 분수가 치솟고 있었다. 그야말로 장관이며 별천지가 아닐수가 없었다.

어느날인가 국기 강하식 때의 일이었다. 사

막의 모래바람이 몹시 불어서 눈을 뜰수가 없었다. 겨우겨우 국기 강하식을 끝내고 숙소에 들어와 보니 정말로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 전투화 구석구석과 귀속까지 고운모래가 짝 차 있었다. 다시말해 고운모래가 바람을 타고 우리들의 몸 구석구석에 침투를 했던 것이다. 숙소에서 아침에 일어나보면 지난밤 모래바람으로 인해 모래분진들이 창문틈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뽀얗게 쌓여 있곤 하였다.

또 한 번은 아부다비에 위치한 한국대사관에서 영관 장교들을 초청하여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알아인에서 아부다비까지는 대략 1시간 40여분, 우리나라 서울에서 대전정도의 거리였다. 아부다비를 오고가며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알아인과 아부다비간의 고속도로 좌우로 대략 40~50m 정도를 스프링쿨러를 이용하여 나무의 성장을 돕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OIL달러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먼 훗날 중동의 전 사막을 저렇게 스프링쿨러 시설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라게하고 푸른 초원을 가꾼다면 실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수 없으며, 그들은 OIL달러를 이용하여 능히 그렇게 가꿀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푸른 초원을 가꾸려는 노력이 깃든 이 도시를

무참하게 파괴하려는 사담 후세인의 잔인한 만행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를 하면서 지구상에 전쟁이 이러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평소 철지한 비행 준비와 임무형 실전적 교육 훈련이 그 당시 임무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 군인이 좋아 군대에 입대하여 부친보다 못한 인현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부친 뒤를 이어 앞으로도 열심히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것을 아버님 영전에 다시 한번 맹세한다. 먼 훗날 나는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서 공군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노라는 말을 떻떻하게 내 아들, 딸에게 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맡은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인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며 전쟁을 억제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자주 국방이 튼튼해야만 북한의 침략을 사전 봉쇄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60만 국군 장병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고 걸프전에 참전했던 선후배 동료들의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중군**

Korean Air Force Tri-angle Pattern

박 수 철

소령/항공안전관리단 교육처



1991년 3월 초순의 화창한 날, 오후 3시 정도 되었을까? 걸프전은 지상전이 개시되자마자 쿠웨이트 시티는 다국적군에 의해 탈환되었고 한국공군수송단은 쿠웨이트 시티로의 보급물자 공수임무에 투입되었다. 그날 우리가 맡은 임무는 비행기 가득 펩시콜라 캔을 싣고(약 12톤 정도) 쿠웨이트 시티 공항에 내려주는 것이었다. 날씨는 우리의 가을 날씨처럼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었는데, 쿠웨이트 상공으로 접근하자 약 5000피트 정도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가 착륙접근을 위해 구름에 진입하는 순간, 전 승무원은 서로를 쳐다보는 것으로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오후 3시경, 그렇게 맑고 환하던 주위가 갑자기 캄캄한 밤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Oil-Cloud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관제사의 지시에 정확히 따르기 위해 좀더 계기에 집중하였다. 착륙 후 적하역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는 공항 주기장과 주변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치 한밤중

에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두워서 차량의 전조등을 켜고 다녀야만 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은 여기저기 포탄 구멍이 나고 폐허가 되어버린 공항호텔의 처참한 모습이었다. 어둠 속에 어슴푸레 보이는 형상이었지만 마치 괴기영화에 나오는 흉가의 모습과 마찬가지로였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본 주기장에는 쿠웨이트 국왕의 전용기였던 보잉 747 여객기와 전용헬기의 폭파된 모습이였다. 여객기의 불탄 잔해에는 왕가의 문장이 그을린 채로 그려져 있었고 덩그러니 놓인 엔진 부분은 그곳을 찾은 다국적군 병사의 좋은 사진 배경이 되고 있었다. 또 한가지 인상깊었던 것은 우리가 이동하는 중에 본 모든 차량의 바퀴에 타이어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다국적군의 공습에 궁지에 몰린 이라크 군이 타이어란 타이어는 모두 불을 질러 시켜면 연기를 나게 해서 공습효과를 줄여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내가 임무를 위해 쿠웨이트 시티 공항에 머물렀던 시간은 약 1시간30분 정

도었는데 그 동안 우리 승무원들의 얼굴, 특히 코와 입 주위는 시커먼 재가 묻어 마치 광산에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었고, 매캐한 냄새와 연기로 인해 기침을 심하게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다시 이륙해서 쿠웨이트 상공을 벗어나는 순간, 캄캄했던 밤이 다시 밝은 대낮으로 바뀌었다. 주변환경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변화되었지만, 그 당시 내가 경험했던 감정은 전쟁의 폐허, 답답한 세상에서 자유세계로 탈출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지금도 가끔 나의 가슴 속에 생각나곤 한다.

1991년은 나에게 매우 의미 깊은 한 해였다. 걸프전이 발발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고려되었을 때, 우리 공군은 의료지원단 공수임무인 비둘기 작전과 공군수송단 파견임무인 비마 작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 두 작전에 모두 참여했던 나는 지금까지도 그 당시의 벽찬 감정을 잊을 수 없다. 비록 6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느꼈던 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시 훈련의 중요성이다.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 전쟁상황 하에서는 모든 것이 조종사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거기서는 기상 제한치도 없고 임무 제한이라는 것도 없었다. 아무리 시계 제로인 모래바람이 쳐도 조종사가 상황을 판단해서 임무를 하겠다면 하는 것이다.

쿠웨이트 시티가 탈환되고 지상으로 이동한 CCT(Combat Control Team)의 TACAN 장비만이 가동될 당시 최초로 임무가 부여된 항공기 편대에 우리 한국 공군의 항공기도 한 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시계가

야간과 같은 구름 속에서 조종사의 능력에 의해 진행된 임무였는데 1번기와 2번기였던 미군 항공기는 Mapping Radar를 가지고도 착륙접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는 회항하였다. 3번기였던 우리 공군 항공기는 동승 조종사의 아이디어에 따라 해안쪽으로 돌아서 삼각 패턴에 의한 참조물을 설정, 임무 편대중 최초로 쿠웨이트 시티에 착륙할 수 있었고 무선으로 그 방법을 전해들은 미군 항공기들이 뒤를 이어 같은 방법으로 착륙하였다. 그날 임무후 미군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Korean Air Force Tri-angle Pattern'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겨날 정도였으니 우리 공군의 능력이 입증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우리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평시 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둘째, 작전절차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실제 전쟁에 있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만이 알고 있는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는가 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절차에 대한 숙지가 안되어 있거나 알면서도 귀찮다고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적으로 간주되어 아군에게 개죽음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도 임무 중에 이라크 국경이나 바다 위를 비행할 경우 가드 방송으로 우리의 위치와 호출부호를 부르면서 적아 식별절차를 수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주로 걸프지역 상공의 조기 경보기나 해상의 정보함에서 실시하는데 여기서 정확한 대답을 못하거나 틀리게 답하는 경우를 상상한다면 평소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걸프전 참전과 그 교훈

보아야 하지 않을까?

셋째, 정신전력과 단결력이다.

한번 임무를 나가면 보통 4~5개국을 돌며 8시간 정도의 비행을 실시하였다. 임무시간도 주로 야간으로 이륙시간은 대략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였고, 최종 착륙시간은 새벽 2시에서 4시였다. 따라서 지휘관의 정확한 통제 하에 모든 임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여기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상사가 부하를 신뢰하고 부하는 지휘관의 지시를 충심으로 따르는 단결된 분위기였다.

내가 느낀 바로는 우리 공군수송단의 이재기 단장(당시 대령)은 부하들에게 뚜렷한 목표의식을 심어 주었고 비전을 공유토록 하여, 실제 전쟁에 참가한다는 약간의 두려움과 우려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여 실제 작전에 참가하는 인원뿐 아니라 지원요원들도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부대 운영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김영곤 비행대대장(당시 중령)은 조종사 개개인을 임무수행의 수단이 아닌 주체로 부하의 임무수행 능력을 인정해주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작전운영을 실시하여 매일 2대씩 복수편조로 부여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미군 작전관계자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군력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자부심이다.

걸프전의 가장 큰 특성은 공군력의 우세가 전쟁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지상전이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들은 정보 브리핑 내용은 이라크 군이 마치 지상전 개시를 기다리기도 한 것처럼 앞다투어 항복을 하고는 먹을 물과 음식, 그리고 담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

다. 공군력에 의한 장기간의 공습으로 그들은 일찌감치 보급선이 끊겼고 계속되는 공습에 잠도 잘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다국적군은 100m 거리마다 생수 병을 수십 상자씩 쌓아놓고는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면 집어서 마실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식당도 24시간 운영을 하며 언제나 들어가서 싸인만 하면 얼마든지 무료로 먹을 수 있었다. 비행준비를 하다가도 간식이 생각나면 'Oasis'라고 적힌 텐트에 들어가면 과일, 음료수, 빵 등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공군력의 우세 속에 일구어진 것으로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공군력의 중요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걸프전을 예로 들면서 공군력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라면 우리 공군에 대한 자부심도 더욱 커질 것이다. 요즘 공군에서 추진중인 '전략형 공군 건설'이 21세기 동북아 정세를 대비한 공군력의 목표라고 확신하며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 공군 전체가 노력한다면 앞으로는 '전후세대'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총각으로 지금의 아내가 매주 보내주던 편지를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보던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년이란 기간이 지난 오늘, 새삼 그때의 일을 기억해보며 두서없이 적어본 나의 소감이지만 당시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비마부대의 일원으로 가슴 설레며 지내던 순간이었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폭염 속에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걸프지역 6개국을 누볐던 비마부대 전우들의 높은 기상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우리의 소중한 평화를 지켜나갈 주역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에 공군의 한 사람임이 자랑스롭다. **등문**

“나는 지렁이”

테극기 앞에...”



박 병 진
준위/제5전술공수비행단 야전정비대대

1991년 2월 23일 새벽 04시30분.

C-130 HERCULES는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른다. 고요한 새벽하늘 항공기 안에서 바라보는 조국은 그렇게 아름다울수가 없다. 은하수를 거꾸로 흘뿌려 놓은듯이 곳곳에 수많은 등불이 점멸한다. 아름다운 내나라 내땅을 뒤로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 떠나면 아랍, 전쟁터로 우리는 떠난다. 항공기 정비 통제하사관 겸 난·냉 정비하사관. 걸프전에 참전하는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작년 10월 걸프전이 발생한 후 세계 열강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중동. 사상 처음으로 건국 이후 우리나라가 남을 돕기 위하여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곳 시간은 밤 9시경, 먼저 도착한 1진 요원들이 반갑게 맞이해준다. 잠시동안의 만남이지만 반가운 악수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눕힌다.

다음날 아침 기상하여 사방을 둘러보아도 풀한포기 찾을수 없는 황량한 사막이 펼쳐져 있다.

멀리 보이는 것이라곤 미군들의 C-130 항공기만이 눈에 보인다. 수십 아니 수백대는 되어보인다. 단지 몇대의 항공기로 참여한 우리의 눈에 역시 미군들의 전력은 대단하였지만, 우리 요원들 모두의 각오는 저들보다 더한 의욕과 정신무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기필코 완수하려는 굳은 의지를 강렬히 느낀다.

지휘관님의 독려로 전혀 생소한 낯선 땅에서의 일과가 시작된다. 참호를 파고 화생방 보호의 및 전투장구를 지급받는 등, 모든 준비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내가 근무할 곳은 “정비탑”, 미군들의 콘센트 건물을 함께 쓰는데 냉·난방시설은 완벽하다. 모든 건물이 그렇지만 샌드백(모래주머니)으로 위장을 하였고 위장막으로 씌워져 적기라든가 공중에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느껴진다.

자 이제 시작이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임무를 완수하리

걸프전 참전과 그 교훈

라. 부끄럽없는 비마 부대원이 되리라. 1인 2역의 업무, 밤과 낮이 따로 없다. 모든 요원이 비행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야간 항공기 임무지원 후에 정비요원들은 밤을 낮삼아 완벽한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정비가 끝나면 항공기가 모래 바람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COVER를 씌우고 연료보급 및 점검을 마친후 내무실로 돌아오면 벌써 새벽이다. 또다른 임무지원을 위해 다른 조가 근무지로 향하고 후방지원 요원들은 보다 원활한 후방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루는 국기게양식이 있었다. 단장님 임석 전부터 세찬 모래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다. 보호안경과 목도리를 하였건만 입안으로 미세한 사막모래가 지적지적 씹힌다. 말로만 듣던 모래 광풍이 시작 되는가보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다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바라보는 태극기 그리고 애국가, 입술을 지긋이 깨문다.

기필코 책임을 완수하리라.

사랑하는 나의 조국 반만년 유구한 역사,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내 나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리라. 세삼스러운 각오를 다지며 속소로 향한다.

휴일, 그러나 우리에게겐 휴일이란 있을 수 없다. 짜여진 계획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 이라크가 항복했다. 승리의 환호가 곳곳에서 들린다. 미군들의 주관으로 승평 파티가 열렸고 미군들이 건축한 임시 격납고에 걸프전 다목적군 모두가 모였다. 우리



임무지원에 앞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필자(왼쪽에서 첫번째)

단장님도 자랑스럽게 단상에 오르신다. 간단한 행사가 끝나고 기쁨을 누리며 전후 물자수송에 참여한다는 단장님의 말씀이 있었다. 또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국가가 여러분의 희생을 요구했을때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하여 참여해주신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한다.”는 단장님의 말씀에 우리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충분한 물자를 소유한 미군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엇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았다.

항공기 부품 중에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부품이 있어 그들에게 지원요청을 하였더니 컴퓨터로 재고번호를 입력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 이곳 기지에는 확보된것이 없지만 독일 ○○기지에 20개, 이태리 ○○기지에 15개가 있으니 꼭 필요하면 내일 정비항공 노선 편으로 운송하여 준다면 꼭 필요한 부품인가를 재확인하고 나서 완벽하게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그들이기에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으리라.

즐거운 외출이 실시되었다. 행선지는 오아시스란다. 사막의 오아시스, 말로만 듣던 곳을 가 보게 되었다.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보니 오만 국경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오만이라는 나라의 오아시스인 것이다. 주의사항은 이곳의 주민들은 절대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진을 찍으면 자신의 “혼”을 그 카메라에 빼앗긴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

우리 일행 중 한사람이 어느 노인의 사진을 찍으려하자 노인이 화를 내며 대든 적도 있었다. 사막의 벌거숭이 민둥 바위산, 시커먼 돌덩어리만이 무수히 굴러다니며 다만 어느 일부분만 푸르름이 있고 약 10미터 골짜기 아래 지하수가 흐르는 곳……. 이곳이 오아시스란다.

얼마간의 휴식 후 우리는 다시 귀대길에 올랐다. 버스 안에서 두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축복받은 나의 조국, 배달민족, 유구한 역사, 늘 푸르름이 있는 곳. 정다운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사는 곳. 학창시절에 무수히 배웠지만 빠져리게 가슴에 와닿는다. 내나라 내민족을 위하여 한알의 밀알이 되리라 다짐하며 다시 한번 뜨거운 조국애를 느낀다.

우리 용사들 모두가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였고 이제 귀국이다.

4월 8일 밤 20시경 우리는 지금 제주도 남쪽 약 20마일 상공을 날고 있다.

“비마부대원 여러분 장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국은 영광된 승리를 이룩하고 귀환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통신망을 통해 들려오는 관제사의 인사말에 우리는 가슴 뿌듯한 성취감과 함께 걸프전 참전 용사로서의 자긍심을 느꼈다.

이제 얼마 후 내 사랑하는 조국의 품안에 안착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리라.

아름다운 나의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공민**

남북한관계와 4자회담

한 용 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I. 서론

탈냉전시대를 맞아 한국정부는 북방외교와 남북회담을 추진하여 상당한 수준까지 외교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고 벼랑끝 외교를 전개하자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을 저지시키고 연착륙(soft landing)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시켰다. 이에 북한은 핵무기 카드뿐만 아니라 대미평화협정 카드를 사용하여 한국을 배제시킨 대미접근외교를 전개하였다.

특히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킨 가운데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자 한국은 대북한 협상에서 외교의 운신 폭이 좁아지게 되었고, 따라서 한·미정상은 1996년 4월 16일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4자회담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우여곡절 끝에 북한은 1997년 1월 29일 뉴욕에서 개최된 '4자회담을 위한 3자설명회'에 참석하였고, 1차 후속 협의회에서 4자회

담에 원칙적 참여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회담이전에 충분한 식량지원 보장과 북·미관계 개선 및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후속회의를 무산시켰으며, 이에 미국이 북한의 4자회담 참여를 촉구하고 식량난 해결을 위한 군축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요구하자 북한은 "3자회담을 계속한 뒤 4자회담을 갖자"는 「3+1」회담을 제의하여 지연전술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제네바 핵합의의 순조로운 이행과 4자회담의 추진을 대북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대가를 노려 지연전술을 구사는 하겠지만 결국은 4자회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탈냉전과 남북한 관계의 전개를 먼저 살펴본 이후 북한 및 미국의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우선순위를 분석하고, 4자회담의 배경과 관련 정책을 고찰하여 북한의 생존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도출코자 한다.

II. 탈냉전과 남북한 관계의 전개

1980년대 말부터 불어닥친 사회주의권의 퇴조로 인해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및 체제 유지난으로 3중고에 시달렸다. 그러므로 북한은 3중고를 해결하여 체제를 생존시키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비롯하여 대남관계를 대폭 재조정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우선 북한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핵 개발과 대미관계 개선을 맞바꾸었으며, 일본과도 8차에 걸친 수교회담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비핵화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 괄목할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는 냉전하에서 북한이 '하나의 조선정책'을 견지해온 것에 비추어볼 때 실로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으며, 이제 북한은 한국의 국력이 북한과는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월등하여 남북한관계의 재조정을 통해 남북한 두 체제의 장기적 공존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고질적인 경제의 침체상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것을 위해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현 체제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제한적인 정책변화와 통제된 개방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한국과의 교류는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1988년부터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에서 10% 수준을 점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이 상당히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아직도 과거의 정책노선을 견지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노선의 급진적 변화가 대내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체제의 생존을 보장받는 대외환경을 창출함에 있어 체제단속을 위한 기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공조체제를 이완시키고 대미접근을 피하기 위해 배재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은 형식상 과거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북·미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급진전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의 새 지도부는 더욱 실용주의적 노선을 추구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정통성 확인을 앞당기려고 할 공산이 크다. 논의야 여하튼 4자회담이 성사되어 4자회담을 통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교차승인과 더불어 남북한관계도 안정적 국면으로 정착될 것이다.

III. 남북한 및 미국의 정책노선

남북관계는 남북한 양자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및 북·미관계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또한 관련 쟁점도 전통적인 군사·안보문제뿐만 아니라 핵확산방지, 경제협력, 인도주의적 문제 등이 중층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므로 남북관계는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와 국제화의 상호작용 관계이고, 따라서 관련국가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남북평화 공존체제의 정착과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평화 공존체제의 정착은 남북한 간 대립구조를 해소하고 분단구조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현상유지적 정책인데 반해, 평화통일 환경

북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의 조성은 분단질서 타파적 성격을 띤 정책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분단질서의 타파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대미 대남정책의 목표는 체제의 생존과 대남 열세의 회복인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권의 붕괴로 인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에 직면했기 때문에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생존에 최대의 역점을 두면서 경제발전을 통해 한국에 뒤진 국력을 회복코자 한다. 그러므로 북한은 혁명적 방법보다는 평화적 방법을, 명분론보다는 실용주의적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벼랑끝 외교로부터 구걸외교에 이르기까지 계산된 외교를 총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어 체제 위기까지 이어진다면 자포자식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기본적으로 탈냉전하에서 새로운 안보전략으로 제시된 '개입과 확장'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전략은 구적국을 더 이상 봉쇄의 대상이 아닌 확장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관계개선을 통해 민주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북관계개선 및 체제보장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보상적 수단과 강제적 수단이 있지만 포용정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적 수단을 활용하는 경향을 띤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공히 대량 파괴무기의 확산방지에 일차적인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2차적 우선순위는 한국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체제의 구축에 두는데 반해, 미국은 경수로 사업과 북·미관계의 진전에 두고 있어 양국간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북한이 대미 대남정책에 동원하는 정책수단은 대량 파괴무기의 확산 위협과 체제붕괴 위협 및 군사적 도발 위협 등이며, 이는 한국에 비해 국력이 열세한 처지에서 체제생존을 위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안보를 위해 대미관계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대량 파괴무기에 대해 최대한 모호성(NCND)을 유지하여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며,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대해서는 최하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IV. 4자회담의 배경과 관련 쟁점

한국전쟁이 끝난지 44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법적인 의미의 종전을 상징하는 평화협정이 아직도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북·미간 핵 회담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1994년 4월 28일 정전협정을 북·미간 '신평화보장체제'로 대체하자고 제의하고,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중국으로 하여금 군정위를 탈퇴토록 하고 폴란드 대표단을 축출하여 중립국감도위를 폐쇄시킨 후 1995년 5월 24일 '북한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여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한국전쟁의 당사자 및 정전협정의 당사자를 미국으로 간주하여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관철시키려 하자 한국은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과 남북기본합의서 존중원칙을 내세워 이에 맞섰다. 그러나 북한이 정전기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

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정전협정의 유지라는 소극적·수세적 입장으로 대응할 수 없게된 한국과 미국은 1996년 4월 16일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의 4자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는 미국이고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실권자라는 논리와 “조선의 북과 남 사이에는 이미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북·남군사공동기구까지 발족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4자회담을 반대해 왔으나, 잠수함사건이 일단락되자 1997년 1월 29일 뉴욕에서 ‘4자회담을 위한 3자설명회’에 참석하는데 동의하였다.

북한은 1차 후속협의회에서 4자회담에 원칙적 참여의사를 표명했으나 “회담 이전에 충분한 식량지원 보장과 북·미관계 개선 및 경제체제완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미국무성이 4월 15일 “수백만이 굶주리고 있는 때 백여만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고 지적하고 군축을 촉구하자 북한은 4월 21일 예정된 후속회의에 불참하고, 4월 23일 “4자회담을 보다 실속있고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3자협상을 계속한 뒤, 4자회담을 갖자”고 하여 「3+1회담」을 제의하였다.

이는 북한이 선결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벌기 전략이 분명하므로 클린턴 미대통령은 4월 25일 미·일정상회담이 끝난 후 북한의 4자회담 참여를 촉구하면서 4자회담의 목적이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체제의 이질성 해소 및 북한경제의 구조조정에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같은 언급은 그동안 북한이 4자회담의 내용과 목적이 분명치 않다고 주장해 왔음에 비추어 미국이 4자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황해도 농촌의 한 할머니가 죽을 끓이기 위해 바구니에 뜬어 놓았던 풀뿌리를 챙기고 있다.

회담의 구체적 대응을 담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향후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해 상당기간 지연전술을 구사할 것이나 식량지원이나 대미관계개선 등으로 인해 결국은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자회담이 개최된다면 근본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에 두고 회담을 진전시켜야 할 것이며, 4자가 공히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임을 감안하여 4자가 동등한 자격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여 4자간 평화협정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4자회담을 개최한 후 남북회담과 4자회담으로 이원화시켜 회의를 운영하여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는 형식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4자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실

북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천될 뿐 아니라 국제적 보장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V. 북한의 생존전략과 한국의 대응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 추진에 열의를 보였고, 그 일환으로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하였다. 그 결과 북한과 미국 간에는 1988년 12월 6일 북경에서 참사관급 접촉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1980년대 후반 남북한 관계가 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킬 정도로 진전되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통과의례에 불과했던 것이다.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조성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핵합의에 도달함으로써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추구해 온 대미관계 개선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이 미국은 물론 서방국가들과 정치·경제관계를 증진시켜 국제적으로 북한의 생존을 보장받는 대외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북한은 북·미관계의 진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 등 북한의 체제유지 및 생존에 대한 국제적 보장시스템이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될 때까지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오는 충격과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도 남한배제에 기초한 대미 접근정책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그러므로 북한은 대미 협상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원칙과 북·미수교 및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일괄타결한다는 원칙

을 일관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의 이러한 생존전략의 추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이다. 북한 지도부는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으면서도 체제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정치사회적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북한문제 전문가 중에는 북한경제가 회생되지 못하면 주민 불만이 조직화되어 북한은 붕괴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996년 6월의 한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일각에서 장차 북한이 붕괴하는 경우 그 관리를 미국이나 국제연합이 잠정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한다면 북한의 붕괴론이 물고 울 파장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정부나 사회가 북한붕괴론을 내세운다면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은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붕괴가 현실화된다면 그 결과는 예측을 불허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전략적 고립을 면하기 위해 대남우세 군사력을 이용하여 한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켜 안보 불안의식을 인질로 삼는 한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벼랑끝 외교의 수단으로 군사력을 이용하여 관계개선을 피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북한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케 되면 대남 군사도발의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사태는 기필코 방지해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한 관계는 4자회담의 기본구도 내에

서 변형을 거듭하며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마무리되기 전에 남북한 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의 제도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4자회담을 통해 남북한이 새로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동안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공존체제를 형성하려면 남북한 간에 신뢰를 구축해야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광범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① 대북 경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②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개선 노력에 한국이 협조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고, ③ 한·미간에 전략기조는 준수하되 사안별로 협조하는 전략적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④ 북한이 군사적 도발위험을 포기하도록 군비증강과 군비통제의 양면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오늘날의 세기적 변화는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운영의 중심가치와 원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구조개혁과 체제개방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회주의체제의 생존을 위해 운영의 중심가치와 원리를 변화시켜 세기적 변화에

대응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외교적 고립, 경제난과 체제유지난의 3중고에 시달리던 북한은 이를 동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의 의존전략으로 전환하여 공세적 외교전략을 구사하는 변신을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은 급변하는 북한의 상황 전개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견지하여 북한의 새로운 전략 구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향후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게 될 4자회담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자세인 것이다.

비록 4자회담이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체결이라는 북한의 기존 원칙에는 정면으로 위배되고 아직 예비회담 단계에도 접어들지 못한 상태이지만, 미국의 정책목표와 북한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결국 성사될 것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고 이같은 추세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급진전될 것이다. 그러므로 4자회담은 냉전체제의 극복에 이어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4자회담에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등문**

좌경세력 연방제 통일논리의 부당성

— 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평화협정 체결 투쟁을 중심으로 —

공군 기무부대 자료제공

이 글은 '97년 봄호에 연재된 「좌경세력 연방제 통일근거의 부당성,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중심으로—」의 후편이다.

1. 주한미군 철수투쟁

주한미군이 '통일의 장애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좌경세력들은 북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면서 미군철수 투쟁을 최대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우리의 대북 군사력, 특히 해·공군력의 열세를 보완하는 전투력으로서, 대남적화전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대치한 상황 하에서 무력남침을 억제하고, 유사시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따라서 현 남북상황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주한미군은 전쟁을 억제하는 평화유지군으로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주둔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연합방위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전쟁억제력으로 보안보상 필수불가결한 핵심전력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6.25전쟁과는 별개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엄격히 말해 유엔사령부 해체나 휴전협정의 전환과 연계될 문제가 아니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합법적인 주권의 행사로 체결한 방어적 성격의 군사동맹으로서 제3자가 이에 대해 개입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무력적화통일 기도를 포기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 온다면, 한·미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 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군부대 앞에서 전개중인 주한미군 철수투쟁 장면

한국은 '작전지휘권'이 없어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좌경세력들은 한국이 '전시 작전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군 통수권은 헌법에 대통령의 전권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군 통수권의 일부인 '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정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한국 내부문제이고 군 작전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이를 한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여 군통수권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연합군 또는 다국적군의 효율적 지휘체계"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하던 작전지휘권은 54.11 작전통제권으로 축소되었고, 이것 또한 78.11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로 이양되었을뿐 아니라, 94.12 평시작전권을 환수함으로써 현재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제외한 평시의 모든 작전통제권은 한국이 갖고 있는 상태이며, '전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도 어디까지나 외부의 안보위협에 대응키 위해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공동방위기구'이므로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는 주장은 부당한 억지논리이다.

최근들어 좌경세력들은 국민안보감정상 비판의 소지가 있는 단순한 미군철수 주장보다는 미군기지 사용료와 기지주변 공해문제 및 미군범죄 문제 등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확산시킴으로써 미군철수 분위기를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들 좌경세력의 투쟁을 지속 사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반미감정을 고조시켜 이

북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른바 “적화통일의 최대걸림돌”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처럼 북한이 미군철수를 위해 갖은 선전선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비록 수만명에 불과한 미군이지만 철수하게 된다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군사장비가 아울러 철수하게 되어 우리의 국방 전력에 상당한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서, 일단 유사시 단시일내 대한민국을 무력통일할 수 있다는 고도의 군사적 전략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좌경세력들이 이러한 북한의 적화야욕을 알면서도 미군철수를 부르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이러한 주장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결코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2. 북미 평화협정 체결투쟁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좌경세력들은 정전협정이 전쟁의 완전한 종결이 아니라 전쟁중단 상태를 관리하는 과도적인 조치이므로 이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안한 휴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한간 화해와 평화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도 “남북한은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

환시킬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계속 준수한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전협정의 일방적인 파기를 선언하고 무력도발을 지속 자행하는 등 대남 적화야욕을 한시도 버리지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설령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북한이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는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체결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좌경세력들은 남한은 정전협정의 당사장도 아니며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였던 북한·중국·미국 중에서 중국은 이미 철수하였고, 미국은 한국의 전시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교전자가 협정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연합군을 구성할 경우 연합군 사령관이 관련국을 대표하여 서명하고, 이 효력은 모든 관련국에 미치는 것이 국제 분쟁의 관례이다.

한국은 유엔군 등 모든 군대가 참여한 한국전쟁의 주된 교전 당사자로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의 무력남침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또한 전쟁의 원인이 한국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북한의 남침이며 전쟁의 전과정이 한반도에서 수행되었음에 비추어 볼때,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관한 당사자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더구나 남북한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상호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를 감축하며 평화를 정착시켜 나아가야 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한국을 제쳐두고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남북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군이 남한에 주둔할 이론적 근거를 상실시켜 미군철수를 유도하려는 저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맺는말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이 이미 몰락하고 중국마저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도입, 생존을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 조류임에도, 북한은 아직도 가난에 굶주린 주민들과 낙후된 경제는 아랑곳없이 김일성 주체사상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남북경협 및 나진·선봉지구 개발에 대한 투자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 9월 잠수함을 동원하여 동해안으로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무력도발 행위만 보더라도 그들의 적화통일 야욕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국면에서도 국내 좌경세력들은 북한이 "미군철수→현정권 타도→민중정권 수립→북한과 합작, 적화통일 달성"이라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내놓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그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국보법 철폐·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 등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며 북한의 선전대 역할을 하고 있어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들 좌경세력들은 대남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과 대치한 상황하에서, 피로써 지켜온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수단인 국가보안법을 인권침해 운운하며 철폐를 주장하면서도 이보다 더 가혹한 북한 형법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 갖은 구실을 붙여 철수하도록 선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국가안보현실을 외면한 불순한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좌경세력들이 진정 그들의 말대로 우리동포를 사랑하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이라면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이 함께 변혁하고 우리나라가 밝아오는 21세기에 세계중심국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는 북한과 국내 좌경세력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다시한번 그 실체를 정확히 되새기고, 이들의 불순한 통일론과 통일운동에 대해 정당한 비판세력으로 나서므로써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데 일치 단결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물류관리 방안

안 중 엽

대령/공군본부 군수참모부



I. 서언

공군 수송 분야에 근무해 오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송 정책 및 운영에 관해 꾸준한 연구를 해왔다. 얼마전 다녀온 한진교통물류연구원 주관의 물류스쿨('97.3.17~3.22)은 아마도 이러한 생각에 대한 해결의 묘안을 제시해 줄 듯 싶다. 물류(logistics)라는 말은 각종 언론 매체,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최근 물류 개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한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innova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물류관리라는 개념이 왜 갑작스레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최근 물류비 부담이 GNP 대비 14.5%이며, 물류비 증가율은 연 17.7% 증가로 1987년 15조원에 1993년 38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올해 정부 예산이 71조4천억원이라는 것과 비교할 때 이는 엄청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물류선진국과 30년 격차가 나는 물류 후진

국임을 감안할 때 물류관리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전반적인 변혁은 결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물류의 개념과 물류 환경의 변화, 그리고 국제적인 동향과 효율적인 물류관리가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아울러 군 수송에 있어서 물류관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II. 물류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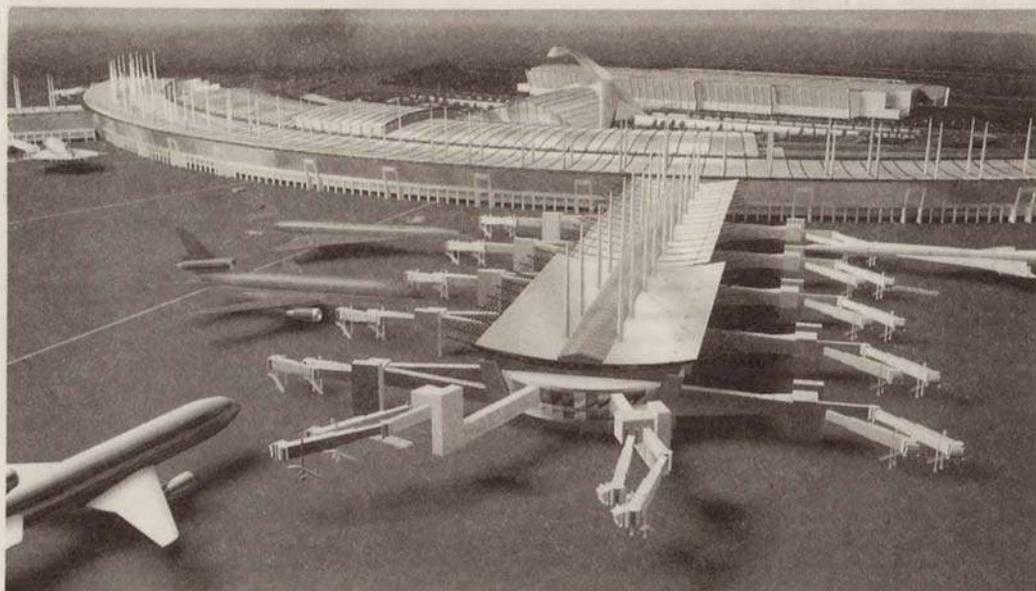
1922년에 F.E.Clark이 "Physical Distribution"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데서 연유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물류(物流)"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Logistics"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미국 AMA(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의 정의(1948)에 따르면, 물류란 생산의 단계에서 소비 또는 이용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재화의

이동 및 취급을 관리하는 일이다. 또한 물류란 유형재(有形材)의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 이르는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극복하는 물류적인 경제활동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및 정보(6대기능)라는 제활동의 유기적 구성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교통과 물류를 비교하면, 교통이란 사람과 화물을 장소 또는 공간적 거리의 극복을 통해 이동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물류보다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류의 개념을 크게 나누면 거시적 물류와 미시적 물류로 구분되는데, 거시적 물류의 예로서는 공공물류를 들 수 있고, 미시적 물류로서는 기업물류를 들 수 있다. 공공물류는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조장, 촉진하는 공공적 기능으로 철도, 항만, 도로 등을 건설하는 시설적 측면과 법령, 제도, 행정 관행, 공직자 마인드를 바꾸는 체제적 측면이 있다. 또한 기업물류는 기업 이윤의

추구를 전제로 발전하는 미시적 물류이다. 물류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물품을 상호 연결시키는 도로·철도·선박·항공 등의 수송과 중심점(node)인 화물역·트럭 터미널·창고·물류센터·항만·공항 시설 등이 있다.

이 물류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일찌기 1920년대부터 도입되어 기업 경영에 적용되어 왔으며, 일본에서는 1950년대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물류관리라는 개념이 기업 경영에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이는 물류관리가 물류환경 및 그 요구에 의해 발달을 달리하여 온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에 비로소 물류관리라는 개념을 인식하게 되었고, 현재의 Logistics 개념은 아니지만,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통산업 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어 물류부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그 연구·개발이 왕성하게 전개되어 물류



21세기 물류 중심지 인천국제공항

부문에 가장 근접한 법률인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물류의 개념도 비용 위주의 '비용중심(cost center)'에서 '이익중심(profit center)'으로 관점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 물류부문을 이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독립채산제(the self-supporting system : 기업자체내 원조하는 제도)를 통한 사내 유료화 제도나 물류관련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물류부문의 이익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관리가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물류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교통 혼잡 등 물류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며, 최근에는 물류 경제기반의 확충, 복합화물터미날의 건설, 물류 표준화의 추진, 보관·하역시설의 근대화, 육·해·공 수송 연계 체제의 구축 등 물류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Ⅲ. 물류환경의 변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물류개념이 변화되고 대상도 계속 확대되어온 것은 물류환경이 경제활동의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물류환경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규모의 확대 및 고밀도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화물량과 차량의 증가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물류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물류비용 증가율이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기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소비형태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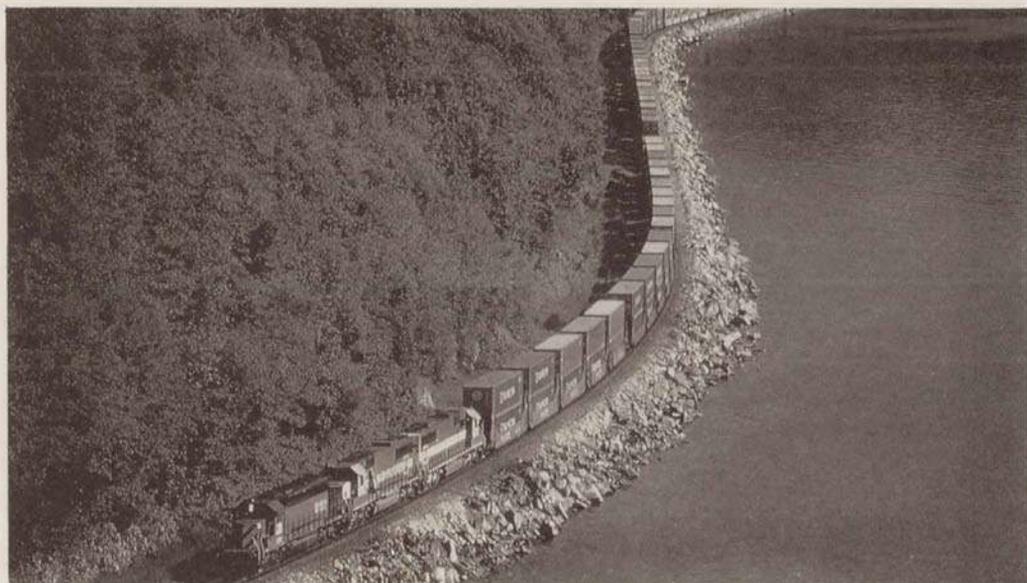
루어지면서 소득 수준 향상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가 상품의 품질, 신선도, 편리성 등에서 다양화·고도화됨으로써 수요 패턴이 다품종·소량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른 배송단위의 소량화, 배송의 신속화, 재고보관량의 증대, 폐기물의 증대로 물류비 상승을 야기시키고 있다.

셋째, 산업구조 및 생산구조의 변화로 소비자 욕구(needs)의 다양화와 제품의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한 과잉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넷째, 정보 기술 및 자동화 기술의 혁신으로 물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문서교환) 및 물류 VAN(Value Added Network : 부가가치 통신망) 등을 이용함으로써 물류작업의 고속화, 공동 이용을 통한 효율화, 적정 재고관리,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다섯째, 세계화의 진전 및 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국제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대도와 경제 블록화 등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물류시스템이 필요시 되고 있다.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내 물류부문의 개방화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어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기초로 하여 외국 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의 강화가 대두되고 있다.

여섯째, 인력 부족의 심화로 수송 분야에 있어서도 교통 체증에 따른 피로 가중, 근무시간의



철도 컨테이너 수송

불안정, 타지 근무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많아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Ⅳ. 물류와 국가 경쟁력

미국 하버드 경영 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전통적인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고전적 무역 이론이나 정부 정책, 환율, 이자율 등을 중시하는 거시 경제 이론은 산업내 무역이나 기업의 범세계적 경쟁과 같은 최근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국제 경쟁력 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포터 교수는 국가의 국제 경쟁력은 고전적인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천연자원, 노동력, 이자율,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정 산업에서 특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함으로써 범세계적 경쟁에서 성공한 이유는 그러한 산업이나 기업이 위치한 국가가

제공해주는 독특한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요소 조건, 기업의 전략·조직 및 경쟁 양상, 관련 및 지원 산업, 수요 조건 등 네 가지 변수를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근본 요인으로 파악하고, 이 네 가지 요인 이외에 국제 경쟁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변수로 정부역할과 기회를 들었다.

국가 경쟁력의 창출 원천과 그 결정 요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하기가 힘들다. 국가 경쟁력은 정부, 기업, 국민이 개별적으로 혹은 삼위일체가 되어 창출하는 국가 경쟁력, 상업 경쟁력, 사회문화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데에는 사회 간접 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로, 항만, 통신 등 국가 기반 시설을 국가가 주도하여 시설을 마련할 때 국가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기업에서도 기업의 경영 시스템으로서 물류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야 한다. 국가 경제기반 구축 노력을 별개로 볼 때, 정부의 역할과 기회를 외생변수로 본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론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체 운영 효율화 노력을 통한 기업력 향상이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비용 절감, 우수한 인력과 기술 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간 우리나라 기업 매출액의 17% 수준이 물류비로 지출되었다고 볼 때 기업 단위에서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 공동물류, 자동화 처리를 통해 물류비를 상당 부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류비는 1993년을 기준으로 총 38조원을 지출해 고지가, 고임금 고금융 비용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물류비는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4대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물류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유리한 위치에 있다. SOC시설이 잘 갖추어지면 일본, 중국 등의 큰 시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서구 기업들의 동남아, 중국, 일본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광양만 개발, 서해안 개발과 영종도 신공항 추진도 이러한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입지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국내적으로는 지장화 시대가 전개되고 있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 소비 계층의 다양한 욕구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물류의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이고 정부, 지방자치 단체가 동시에 참여할 때 기업의 물류비 절감이 기대되고 국가의 경쟁력 향상도 바라볼 수 있다.

V. 군 수송에 있어서의 물류관리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명명되었던 걸프전쟁은 병참술의 승리였다. 이 전쟁은 중동의 허허벌판인 사막 지대에 미국 본토와 유럽, 태평양의 각 기지에서 배치된 병력과 장비의 이동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계획되고 지시, 관리되는 새로운 형태의 물류 전쟁이었다. 동원된 다국적군 다국적군의 병력이 52만5천명이었고 식량, 탄약, 전투 장비 등이 1천50만톤, 연료가 20억갤론이 공급되었고, 이에 대한 이동 배치기간이 약 3주, 물동량의 공수가 단 6주만에 완료되었다. 한국 전쟁에서 3개월 걸린 병력 배치기간과 베르린 대공수 작전에서 65주가 소요된 공수기간을 비교할 때 이는 엄청난 발전이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database)화하고 있으며, 물류사업자 및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담 사업자를 지정하여 종합물류정보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정보 전산망에는 물류활동에 수반되는 선적 예약, 운송 의뢰, 도착 통지 등을 전자 문서로 전달해주는 물류거래 서비스, 국내의 물류관련 정보를 분석, 가공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물류정보제공 서비스, ITS(Innovation Traffic System : 첨단 교통 체계) 및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 위성위치정보시스템)기술을 이용하여 화물 차량 및 화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차량 상태에 대한 파악으로 작업지시 등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주는 화물 운송 정보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근래부터 시행시키고 있는 수송 전산망 역시 이러한 정부의 분위기에 발맞추고 있는 직업 시



해상 수송

스텝이다. 수송 이동 관리는 필요한 이동 소요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수송능력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 계획, 조정 및 통제를 체계화시켜야겠다.

또한 군 화물을 일정한 표준의 중량 또는 체적으로 단위화시켜, 기계를 이용하여 하역, 수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 및 유사시에 완벽한 수송 지원이 되도록 연구해야 되겠으며, 수송용 표준 팔레트의 사용으로 제반 수송비용을 절감토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지간 화물 이동이 발생하였을 때, 상호간 차량 배차를 확인하여 공차 발생률을 최소화해야 되겠으며, 공군 화물의 이동을 파악하여 거점 수송 지점을 확보하여 연계 수송 및 역수송을 방지토록 해야겠다.

Ⅶ. 결론

물류 School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 수송업무의 필요성을 느꼈

다. 특히나 지금처럼 국가 경제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공군 역시 국가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가용 운행 억제, 군 차량 10부제 운행, 각종 사치성 행위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제3의 물결인 정보화 혁명으로 세계가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공군도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화, 전산화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수송 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용과 수송인력의 체계적 교육, 더 나아가서 종합 물류정보망을 구축하여 군 수송 전반에 걸친 정보의 흐름을 전산화함으로써 이에 따른 물류 비용을 절감토록 해야한다. 이러한 것이 국가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고, “철벽 영공방위 소임완수”와 “싸우면 이기는 강한 공군 육성”을 위하고, 세계일류 정예공군을 건설하는 길임을 확신한다. **등근**

정보전 관련 동향과 한국군 적용 가능성



이 정 표
중령/국방부 국방정보본부

I. 서론

전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중요한 사회현상의 하나이다. 이러한 전쟁의 형태는 생활형태, 과학기술, 경제수준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여 왔는데, 특히 8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한 과학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첨단 정보기기들이 전쟁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정보에 대한 인간육구는 본성적인 것으로 인간투쟁의 역사와 유사하며, 특히 70년대 이후 정보수집·분석·전파 수단이 크게 발달하고, 정보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정보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결프전시 다국적군이 첨단 정보장비의 운용을 통해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정보전”이란 새로운 형태의 전쟁유형이 대두되었으며,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정보전 수행을 위한 새로운 전쟁방식의 개발, 교리발전, 조직개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래의 정보화 사회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군대

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보관련 기술의 발달로 정보전은 국가전쟁 수행방식의 중추가 되어 21세기 군사작전의 핵심이 될 것이다. 즉, 21세기 군의 모습은 강력한 컴퓨터와 고속정보 통신장비의 통합에 의해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의한 “시스템중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첨단기술군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보전의 정의와 임무, 최근 미군의 정보전 관련 동향, 이에 따른 한국군의 적용 가능성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여기서 정보전은 컴퓨터, S/W, 통신망 등에 대한 해커의 침입, 바이러스 투입 등에 의한 공격도 포함하나 주로 군사적 측면의 정보전에 중점을 두려 한다.

II.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이란 무엇인가?

1. 정보란 무엇인가?

정보(Information)란 어떤 “현상(現象)” 또는 “사상(事象)”에서 유래한다. “현상(現象)”이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이나 사건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항상 발생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런 “현상”들이 정보화되려면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즉 인식된 “현상”이나 그 “현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이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는 “현상”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서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 인식되고 해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군사 정보의 기능은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제반 역할을 수행한다.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신속·정확하게 획득하는 지휘관은 그렇지 못한 지휘관과 비교할 때 강력한 이점을 보유하게 되며, 정보지배가 정보화시대 지휘관리의 핵심 열쇠가 됨에 따라 “핵 우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최근 “정보우산”이란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정보우산”이란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함으로써 호혜적 상호관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전쟁의 역사

앨빈토플러는 그의 저서 「전쟁과 반전쟁(War and Antiwar)」에서 전쟁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제1물결의 전쟁, 즉 농경 사회의 전쟁은 주로 인간의 근력에 의해 운용되어지는 무기 체계에 의해 비전문적이고, 비조직적이며 불규칙적인 형태의 원시적인 전쟁이라고 설명하였다. 제2물결의 전쟁으로 명명되는 산업사회의 전쟁은 산업혁명에 의하여 초래된 전투방식의 변화로 대량 파괴 무기의 대량생산에 따라 전문

적이고 직업적인 군인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발전된 형태의 전쟁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끝으로 제3물결의 전쟁인 정보화사회의 전쟁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초래된 전쟁이다. 즉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쟁의 형태도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무기 체계의 정확성과 치명성이 개선되어 대량 파괴보다 중요 지역의 선별적 공격을 통해 적의 전쟁 수행 의지를 파괴하여 조기에 전쟁 종결을 유도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걸프전에서는 제2·3의 물결 형태의 전쟁이 병존하여 대량 파괴와 정밀공격에 의한 선별적 파괴가 공존하였기에 걸프전을 정보전의 첫시작이라 할 수 있다.

3. 정보전의 정의

현대는 외교력, 경제력, 군사력 등과 같이 정보력 자체가 국력의 중요 부분으로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전은 국가 자원의 활력을 증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George Stein” Pennsylvania 주립대 국제안보연구소장에 의하면 정보전은 “미래형의 전쟁으로 인간의 사고방식 및 의사 결정방식에 관한 것이며, 상대 지식 또는 사고체계를 공격하는 것으로서 광범위하고 복잡한 적대행위의 일단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보전은 “적의 정보, 정보개발 프로세서,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한편, 자신의 정보, 정보기반 프로세서, 정보시스템을 보호함으로써 정보의 우월성을 성취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 국방성은 정보전을 “우군의 정보와 정보

체계를 보호하는 반면, 적의 정보와 정보 체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 전략 수행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고 하였으며, 미 공군은 "적의 정보와 정보기능의 운용을 거부·왜해·파괴시키고, 우군의 정보와 정보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정보전은 "정보우세를 획득하기 위해 아군의 정보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적의 전투의지 또는 능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적의 정보기능을 파괴하고 기능을 저하시키는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4. 정보전의 형태

가. 지휘통제전(C² Warfare)

지휘통제전은 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정보전의 중요 형태로서 "작전 보안, 군사적 기만, 심리전, 전자전, 물리적 파괴 등의 종합적 사용으로 적 지휘통제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파괴시키는 반면, 우군의 지휘통제 체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휘통제전은 적의 전쟁 수행 능력 파괴보다 적의 지휘 통제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이다.

나. 정보에 기초한 전쟁

(Intelligence-Based Warfare)

정보에 기초한 전쟁이란 정보가 전반적인 전쟁의 지휘통제를 위해 사용되어질뿐 아니라 표적추천, 전장피해 평가, 전투평가 등과 같이 정보가 직접 작전을 지원하는 형태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즉 실시간·근실시간 화력통제가 가능하며, 전장상황을 직접 감시·평가하고, 차후 작전에 필요한 공격결과를 수집·전파하는 체계를 개발·유지·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전자전(Electronic Warfare)

전자전이란 적군의 전자파 에너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효과를 감소시키고, 우군의 전자파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제반 군사적 활동으로, 최근에는 전자전을 Software분야에까지 확대하여 "전자 및 소프트웨어전"(Electronic and Software warfare)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라.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

심리전이란 정보를 우군 또는 적군의 심리적 변화에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인간의 마음에 대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다.

마. 해커전(Hacker Warfare)

해커전이란 전형적인 정보전의 비군사적인 요소로서 현재는 주로 범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커란 컴퓨터 Network에 인가되지 않은 자가 침입하여 정보자료를 파괴, 변형, 불법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해커전은 컴퓨터 Network에 대한 공격으로 물리적 파괴에 의한 전투가 아니라 특정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공격의 방법에는 간헐적인 System Shutdown, 임의적 자료의 Error, 정보의 절취, 서비스의 무단 사용, 불법적인 System Monitorin, 허위 정보 주입 등이 있다.

바. 경제 정보전

(Economic Information Warfare)

경제 정보전이란 경제적 이익획득을 위해 정보의 유통을 봉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정보 제국주의는 근대 경제제국주의와 유사한 개념이다.

사. 인공두뇌전(Cyber Warfare)

인공두뇌전이란 공상과학 소설과 정보전의 한 형태로서 현재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나 미래에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1) 정보 테러리즘

정보 테러리즘이란 기존의 테러리즘과 같이 정보에 의해 테러를 가하는 것으로 컴퓨터 Hacking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시스템 공격

시스템 공격은 무작위적 또는 체계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을 거부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으로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잘못된 output를 생산케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가상전(Simulation Warfare)

가상전이란 상상속의 전투로서 War Game과 같이 컴퓨터에 의한 가상 전투를 통해 상대에게 전쟁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것 등이 해당된다.

4) Gibson전

Gibson전은 미국의 소설가인 "William Gibson"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슈퍼컴과 인간의 전투, 즉 공상과학 소설 속의 전쟁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5. 정보전의 임무

가. 정보 제압(Counter Information)

정보 제압은 정보우세 확보를 위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유통을 원활히 하여 정보체제를 보호함과 동시에 우군정보에 대한 적의 접근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보우세(Information Superiority)"란 "아군에 적보다 많은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

공하여 전장에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제압은 공격과 방어적인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공세적인 정보제압은 아군이 정보영역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적에게는 정보체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간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수단은 물리적공격·군사적 기만·심리작전·전자전 등이 있다. 또한 방어적 정보제압은 아군의 정보를 적의 정보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활동과 소극적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인 활동에는 물리적 방어·물리적 보안·시설의 견고화·작전보안·통신보안·전산보안·방첩 등이 있고, 소극적인 활동에는 은폐·엄체·지하화 등이 있다.

나. 지휘 통제 공격(C² Attack)

지휘 통제 공격은 적의 지휘 통제 체제를 파괴하는 것으로 적의 지휘 통제 체제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취하는 제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다. 정보 작전(Information Operation)

정보 작전은 정보의 획득·분석·평가·존안·전파 등과 관련된 제반 활동으로 정보작전은 지휘관에게 전장상황을 적시·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전투의 진행상황을 심층 분석하며, 병력을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6. 정보전과 무기체계

가. 선진국의 정보전 관련 무기체계 연구 개발 추세

1) 핵무기

최근 선진국들은 대량파괴의 전략 핵무

기보다 제한된 지역에 치명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하는 사상자의 수에 맞추어 그 질량을 조절하여 설계할 수 있는 핵탄두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 군사위성

최근 세계 주요국가들은 군사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인공위성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우주전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3) 무인 항공기(UAV)

최근 선진 각국은 생존성 증대를 위해 소형 무인비행체의 이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에 적시적절한 정보수집이 가능토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4) 로봇

로봇에 의한 정찰임무 수행과 정보수집을 추진하고 있는데, 로봇으로 하여금 적의 레이더 시설에 침투시켜 타격하거나 사람의 유전자 식별장치를 로봇에 부착하여 선별적으로 특정 요인만 사살하는 로봇전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디지털 전산관리

디지털 기술발달로 전투기, 헬기 등에서 자신의 위치는 물론 주변의 우군이 적의 위치 및 활동 등 모든 정보를 획득 가능하도록 연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군에 즉각적인 지원요청 및 광역 전장관리도 가능케 될 것이다.

6) 전자파 무기

전자파 무기에는 HERF(High Energy

Radio Frequency) Gun이라는 전자총과 EMP(Electro-Magnetic Pulse) Bomb 등이 있다. HERF Gun은 고출력 무선신호를 전자표적에 방사하여 적의 전자장비에 고장을 유발시키거나 기능장애를 초래케 하는데 사용한다. EMP Bomb은 특수 부대가 적지에 침투하여 전자장비 근처에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 적의 전자장비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나. 정보와 무기 체계

우리의 정보분야는 미국 의존형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독자적인 판단을 거쳐 자주적인 절차에 의해 정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군의 주요 인사들은 정보를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여 정보에 대한 투자의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즉 야전의 공격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서 사정거리와 파괴력에 집착한 나머지 관련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보를 무시하는 것이 무기체계의 개념 구축시에 용이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향후 무기 현대화의 흐름은 양보다 정보를 수반한 질을 중요시 해야 하며, 파괴력보다는 정보가 뒷받침된 정밀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첨단 무기체계에는 종합 정보 System이 필수이며, 특히 실시간·근 실시간 정보 제공은 현대 무기체계의 핵심적 요소이다. 2000년대에 대비한 우리군의 무기 체계 소요는 정보우세를 위해 정보수집·분석·전파 장비의 최첨단화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소요개발 및 확

보가 필요하다.

우리군의 조직·훈련·장비 및 운용 방법에 새로운 정보전 개념의 적용이 시급하다. 실시간·근 실시간 정보수집·분석·전파·관리가 가능한 무기체계의 소요제기 및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하고, 지·해·공군의 정보체계 상호간 연동이 가능한 무기체계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Ⅲ. 미군의 정보전 관련 동향

1. 국방성의 동향

미 국방과학 심의위원회는 군사작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정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과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정보전에 따라 기존의 규전 규칙을 변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 국방성은 새로운 정보사회의 전쟁 기념에 따라 세계 제일의 초강대국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변화하는 정보사회에 부합되는 전쟁 개념을 새로이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 국방성 총괄 평가국(Net Assessment)을 중심으로 정보전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단순히 정보·전자기술을 이용한 네트워크의 구축 수준을 넘어 전투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술적 차원에서 작전운영 개념과 조직을 함께 연결, 전 군사분야의 혁명으로 확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2. 합참의 시각

최근 미 합참의장은 「합동 2010(Joint 2010)」이란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정보 및 체계 통합 기술을 이용해서 전투공간에 대한 정보 지배력을 확보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합동성(Jointness)”과 “신 복합체계(A System of System)”를 강조하였다.

현재 각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기존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보 기술을 이용한 네트워크 발전에 치중하고 있다. 즉 각군별로 설정한 전투공간 내에서 감시 수단과 정밀 타격 수단을 상호 연결한 정찰 타격 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각군의 미래 비전은 작전 운용개념과 조직 구성의 개혁이 결여된 상태로써 미국의 정보전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육군의 동향

전 육군 참모총장 “설리반(Gordon Sullivan)” 장군은 「21세기 군(Force XXI)」이란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육군은 최근 「그 이후의 육군(The Army After Project)」을 연구하고 있다.

즉 전장에서 가용한 모든 무기 체계 상호 간에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연결시켜 전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개념으로서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1세기의 디지털 전투원(Digitalized Land Warrior)은 GPS 수신기와 야간 센서장비를 부착하고, 헬멧 앞쪽의 조그마한 스크린을 통해 모든 정보를 파악하며, 통신망을 통해 후방에 위치한 모든 화력 수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4. 해군의 동향

해군은 “협동적 전투 수행 능력”(CEC : Cooperation Engagement Capability)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장차 해군은 수천 마일의 광범위한 지역의 함정에 장착된 다양한 유형의 감시 수단들을 상호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정보(Intelligence)·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 등 새로운 C⁴I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것이 성공할 경우 해군 지휘관은 확대된 전장의 모든 전투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고, 원거리에 위치한 표적들을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으로 공격하여 전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5. 공군의 인식

미 공군은 장차 미래 전장 개념을 획기적으로 변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군의 특기할만한 아이디어는 타격 계획으로서 공군의 모든 전투 수단들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통합해서 전투의 효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개념이다.

이 네트워크에 인공위성, AWACS, JSTARS, U-2기, 전폭기, 무임비행체 등을 모두 통합시킨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무인 비행체를 이용한 네트워크 체제의 중요성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데, 무인비행체가 하나의 노드(Node)가 되어, 이들 노드들을 상호 연결시키면 하나의 커다란 공중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현재 미 공군은 “우주 기획 2020(Spacecast 2020)”과 “공군 2025(Air Force 2025)”란 계

획을 연구·발전시키고 있다. 상기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첫째, 감시 및 정찰 체계로서 성능이 뛰어난 GPS 및 우주에서의 정밀감시 체제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둘째, 우주로 투사할 수 있는 수단과 우주내에서 정비하는 방안을 발전시키려하고 있고, 셋째, 미국의 정보체제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적의 정보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넷째, 우주에서 지상 및 대기권의 표적을 직접 타격을 할 수 있는 초운동에너지와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것 등이다.

IV. 한국군의 정보전 적용 가능성

1. 정보제압 관련사항

가. 전자전

전자전 무기체계는 공격 임무 수행시 생존성 보장 및 임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 전력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전투임무 수행시에 자체 보호를 위한 전자전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최소한 제한된 지역 내에서 전투수행의 우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의 위협을 최소화 내지 무력화할 수 있는 규모의 전자전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 심리전

심리전은 인간의 마음에 자극을 주어 전투의 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과 같이 폐쇄사회에서 외부의 사상이나 문물을 접하지 못했던 병사들에게는 외면

적으로는 사상무장이 철저히되어 있을지 모르나 외부사조를 접하여 자신들의 허상을 인식케된다면 오히려 아측의 심리전에 더욱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다. 기만·은폐·엄폐

아측의 기도 및 실제 전력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적의 정보 판단의 오류를 유도하고, 적의 물리적 공격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만·은폐·엄폐의 효과는 Gulf전에서도 입증되었다.

Decoy 항공기 운영, 적의 오폭을 유도하기 위한 지상 모의 항공기 설치, 주요 작전 시설의 지하화 및 위장 등을 현 수준에서 한차원 발전시켜 필요시 모의장비를 이동 가능하게 하고, 시설의 견고성을 제고시키는 등 과학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라. 군사 보안

전·평시 공히 군사 보안은 아측의 전력을 보호하고 적의 정보수집으로부터 거부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신보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 외형적, 절차적인 보안, 즉 규제·통제·제한보다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군사보안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현실화하고 관련 장비를 첨단 과학화하여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2. 정보작전 관련사항

가. C³I 체제(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Gulf전에서 다국적 군의 승리는 C³I 체제에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미래 전

장은 그 규모면에서나 상황변화 등의 측면에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지휘관은 예측 불허한 전장상황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즉각 전력운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시에 적정보 및 전장 상황을 수집·분석하여 지휘관에게 실시간 제공되어야 하고, 지휘관의 결심사항을 하부 체대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C³I 체제가 필수적이다. 또한 C³I는 생존성 제고를 위해 복수체계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군은 정보전 수행을 위한 C³I 체제 구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공중 조기경보기, 전략·전술 정찰기, E-8(JSTARS)기 등 정보 자산을 획득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연동시키며, 체계의 능력 보강과 함께 제2,3의 체계를 구축하여, 생존성 향상과 더불어 통일 후를 대비해야 한다.

나. 조기 경보 체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기 경보를 위해서는 정찰위성, JSTARS, 전략·전술 정찰기, 신호정보수집기 등 정보수집 자산과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지상 레이더와 같은 조기경보 수단에서 획득한 자료를 분석·판단하는 종합적인 정보체계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기 경보 및 감시 체제는 전쟁 억제 효과성으로 인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전력으로서 국가 생존 측면에서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3. 정보화 군 추진

정보화군이란 “정보전력의 효과가 타전력의 효과를 능가하는 미래전략 환경에 부응하여, 정

보전력(정보관련 인력·장비·체제)이 군사력의 운용을 주도하는 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군은 기술집약형 구조인 정보화군으로 나아가야 한다.

20세기 중반 이후 컴퓨터와 전자·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정보화 사회로의 이전을 위한 변혁의 물결이 국방 분야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쳐 정보 분야를 선두로 C³I 분야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도 전력증강 방향설정이 과감하게 의식을 전환하여, 미래 정보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전력 건설에 우선적인 투자를 하는 정보화 군을 적극 추진하여야만 진정한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4. 한국군의 정보전 무기체계 획득 방향

한국군의 정보전 무기체계 획득 방향은 현실적인 북한 위협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최우선적으로 획득하여야 하겠으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남북통일에 대비, 인접 군사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전력, 일본의 하이테크 전력등의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이후 주변 강대국과 힘의 균형 유지는 불가능하므로 적의 침략의도나 징후를 조기 포착·경보할 수 있는 전장감시 자산과 신속 대응을 위한 전장 지휘통제 자산 그리고 전략표적에 대응 가능한 중·장거리 정밀유도무기와 생존성제고를 위한 TMD 등 전략무기체계 위주로 확보하여 전쟁 억제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즉 1단계로 주한미군의 철수·감축에 대비한 소요전력의 건설을 위해 대북한 영상·신호정보

수집자산 및 정보융합 전력을 구비하고, 핵심 공격전력인 해·공군력 및 지대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2단계로 대주변국 전쟁억제를 위한 전력 건설로서 광역 정보수집 자산건설로 조기경보 체제를 광역화·정밀화·신속화하여야 하고 해·공 전력 중심의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3단계로 미래 정보전 수행을 위한 전력 건설로 군사정찰위성, 비살상무기, 로봇무기, 무인비행체(UAV) 등을 구비해야 한다.

5. 한국군의 정보전 발전 방향

가. 정보 조직개편

현재 한국군의 정보조직은 참모조직과 계선조직이 혼성 편성되어 있어 업무수행 및 지휘통솔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의 정보참모 역할과 기능부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한개 부서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DIA는 독립조직으로 편성되어 있고 펜타곤을 지원하는 부서가 파견대 형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정보업무의 특수성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서 적시 적절한 기능의 배분과 조직구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영상정보 수집업무를 보면 대부분 항공자산에 의한 수집에 의존케 되는데, 미군도 영상정보 수집업무는 대부분 공군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군 자산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다면 가능한 원만한 대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Counter-partner인 미군의 조직체계와 유사하게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정보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미래 정

보전에 원활히 대비하기 위해 현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즉 백지상태에서 시작한다는 의식, 즉 Zero Base 개념을 도입, 업무성격에 의거 정보수집, 분석·평가, 전파·존안, 교육·훈련, 정보체계·발전계획, 정보운영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정보수집의 기능별로 인간·영상·신호·기술정보 등으로 특성화하며, 또한 자산운영에서 한국군 독자적·한·미연합·대미의존 등으로 구분하여 업무성격, 기능, 자산운영 형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정보조직을 새로운 구성하여야 한다. 즉 모든 국방정보 업무의 총괄부서를 최상위 조직으로 독립 편성하고, 정보업무의 특성 및 현실태 등을 고려한 독립 정보부대가 편성되어야 한다. 특히 지휘관을 지원하는 참모부서와 기능부대를 지휘 운영하는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나. 정보 자산 확보

한국군 정보의 핵심 기능인 북한군의 기습 방지를 위한 조기 경보뿐 아니라 공격표적 획득, 적 의도 파악, 전투평가 등을 위한 정보수집 자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우리 정보의 많은 분야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경우 가능한 분야는 미군의 자산을 최대 활용하면서 한·미 합동근무를 통해 수집관리 및 정보자산의 운영 기술의 습득에 노력해야 하겠으며, 단계적으로 미군 철수 등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한국군 독자적 정보수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전술수준의 정보수집자산의 Sensor 개량을 비롯, ATARS/EO-X/TEREC 등 현용 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신규 Sensor 구입뿐 아

니라 새로운 형태의 최신행 전술 및 전략 정찰자산의 확보가 시급하다.

즉, 현재 미군의 U-2기급 공중자산에 의한 정보수집능력 구비와 표적획득을 위한 JSTARS기, 개량형 전술정찰항공기 및 수집센서 등의 확보가 요구된다. 나아가 영공의 개념을 뛰어넘어 우주에서 임의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정찰위성의 단계적 확보가 필요하다.

다. 정보자료 전산화

현재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및 자료 관리 등이 대부분 재래식 방법, 즉 수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료 관리를 일부 전산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극히 초보단계이며, 정보자료의 Data Base화 및 영상정보의 전산화 등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정보전파체계도 대부분이 미공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군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영상, 도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유 정보 자료의 Data Base화를 위한 전산 장비뿐 아니라 다양한 Output가 가능한 Software개발이 시급하며, 전파체계도 보안성이 보장된 개량된 형태의 자동화된 정보전파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정보요원의 자동화체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컴퓨터 Key Board에 익숙치 못한 우리의 기성세대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인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Key Board에 매달려야겠으며, 특히 상위계급자들은 전산화가 이루어져도 전산화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뒤따르지 않으면 전산화의 효과는 반감되고 output를 서면으로 다시 print해서 보고하고, 수정해야 하는 이중적인 업무수행이 될 것이다.

V. 결론

1. 우리의 나아갈 길

미래 정보전 수행에 대비하여 우리 군이 정보화 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군사력 요소에서 무형전력의 중요성이 유형전력보다 점차 더 커지고 있으므로 무형전력 강화에 더 비중을 두어야겠다. 정보전이 미래 전쟁의 주류를 이룰 것이므로 우리도 정보전 교리의 개발을 서둘러야겠으며, 개발된 정보전 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점진적으로 군조직 구성원의 지식수준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부합되는 개인의 노력과 관심, 그리고 투자가 요구된다. 스마트 무기체계는 스마트한 군인을 필요로 한다. 스마트한 무기체계는 첨단기술이 바탕이 되며,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무기체계의 운용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정보조직의 개편이 요구된다. 기술발전으로 무기체계가 지능화되면 운용요원의 수가 감소하게 되고 소규모의 융통성 있는 부대편성이 필요하게 된다. 전문성이 깊어 질수록 지원조직의 규모는 더욱 커져야 한다.

넷째, 모든 C⁴I 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다. 작전과 이를 지원하는 모든 컴퓨터, Data Base, 정보통신망 등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전장관리

의 복잡성을 해결해야 한다. 즉 C⁴I 체계의 운용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관·군 협력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미래의 전쟁은 더 이상 군인들만의 것이 아니며, 민간분야의 전문분야의 전문기술과 지식의 지원없이 전쟁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될 것이다.

2. 맺는말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변함없이 한반도 적화통일정책 및 공산독재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의 독자적인 국력과 군사력 증대에 의해서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북한 체제가 변화한 후에야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앞서가는 미 군사전략과 전쟁수행 방식의 변화 흐름을 통찰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비록 앞서가는 미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우리의 능력이 미흡하지만 장차 다가올 21세기 통일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어떠한 군사정책과 전략 그리고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을 연구, 개발,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를 미군의 흐름에서 파악하고 항시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는 미국의 정보전 수행을 위한 군사분야 발전추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적인 저오전 수행준비를 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장기적 기획인 21세기 미래비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등문**

환경위기와 환경주의

한 동 호

중위/제3훈련비행단 정훈실



I. 서언

최근 환경의 중요성은 모든 이에게 널리 공유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단순히 일국가, 일지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온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환경보호의 문제는 민·관·군을 따질것없이 그리고 선진국, 후진국을 따질것 없이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해 각군, 각부대 차원의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말하자면 환경주의(environmentalism)는 거의 모든 이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환경주의의 내용들은 그 함축하고 있는 바와 맥락 자체가 다르게 존재한다는 데 있다. 산업화 과정이 낳은 자연파괴는 우리의 생명자체를 위태롭게 하였고 이것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상을 배태할 수 밖에 없었다. 당연하게도 산업화 과정을 먼저 겪었던 서구에서 환경에 대한 사상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담론들은 대부분이 서구에서 유입되어 온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환경주의의 내용과 그 함축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경위기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환경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환경위기의 내용

환경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987년도 발간된 Our Common Future에서는 현단계의 환경위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북반구의 심한 오염지역의 오존층이 불과 몇년 전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두 배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 매일 적어도 140종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

○ 온실효과 기체인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26% 높아졌고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다.

○ 19세기 중엽 기록작업이 시작된 이래 1990년은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해였고 가장 더웠던 일곱 해 가운데 여섯 해가 1980년 이후 기록되었다.

○ 매년 1700만 헥타르의 삼림-핀란드 국토면적의 절반-이 사라지고 있다.

○ 세계 인구는 연간 9200만명, 즉 멕시코의 현재 인구만큼씩 늘어나고 있고, 이 가운데 8800만명은 개발도상국에서 증가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서구적인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고대 로마에서도 환경문제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고대사회의 환경실태에 대한 베버(Karl-Wilhelm Weeber)의 <아티카 위의 스모그>에 따르면 70~80만명의 인구가 밀집된 고대도시 로마와 이보다 작았던 도시 국가 아테네는 넘치는 마치 왕래로 인한 소음공해, 먼지공해, 숲과 목재떨감 사용에 의한 공기오염, 도시상공의 스모그, 교통체증, 교통사고, 대형화재, 그밖의 쓰레기 공해, 납으로 지어부은 상수도 및 납그릇 사용 등으로 인한 납중독에 시달렸고, 이런 환경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마차통행시간, 쓰레기 처리 등을 규제하는 각종 환경입법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게 될 정도의 환경적 위기

를 초래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환경위기는 근대성의 산물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 오존층 파괴

성층권 오존파괴가 인류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해야 되는 이유는 오존이 태양의 자외선이 지구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유일한 대기가스라는 점에 있다. 지구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증가는 인간에게 해로운 효과(피부암, 실명, 면역반응 체계의 억압 등)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육상과 해상 생태계의 생산성에 타격을 가할 가능성을 가져온다. 더 나아가서, 오존의 수직적 분포의 변화는 대기권의 온도 분포에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적 그리고 지구적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인류의 건강에 가공할 위협을 가져올 성층권 오존파괴의 주범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프레온 가스이고 다른 하나는 할론이다. 이 중에서 프레온 가스는 80년대 초기에 무분별하게 대기에 방출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친밀하게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컨, 에어로솔스프레이, 공간을 절약하는 폼(foam)단열재, 안락한 의자의 쿠션, 청정 반도체 칩 등과 같은 것으로부터 대기에 방출된 것이다. 또 브로마인을 포함하고 있는 할론은 컴퓨터실, 박물관, 전화교환실, 은행금고 등과 같이 고가치 물건을 저장하고 있는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소방훈련시에 다량 사용되고 있는 진화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프레온 가스의 경우에는 대체물질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나, 할론의 경우는 대체물질이 없는 형편이다. 전자의 대체 물질은 아직



방독면을 쓰고 환경오염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공단 지역 주민들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또 그 기술이 모든 국가에 전파되어 있지 않고, 후자는 가능한 회수해서 재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 기술적 해결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적, 도덕적 의지의 집행이다.

2. 토지의 문제

국제연합 환경계획기관(UNEP)에 의하면 1백10억 에이커의 땅(지구표면의 35%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막화의 위협에 직면하여 있고, 여기에 인류의 1/5에 해당되는 인구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한다. 이러한 토지 척박화는 네가지 원인-목축지의 과잉사용, 농경지의 과잉개간, 개간지의 수자원 고갈과 염화, 산림벌채-에서 비롯된다고 알려져 있다. 목축지의 척박화는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30억 마리의 가축들에 의한 과잉소비에 기인한다. 가축의 수가 목축의 재생산 능력을 능가할 때, 목초지는 잡초지로 변모하게 된다.

산림벌채는 외채에 시달리는 개발도상의 채무국들의 근시안적 채무변제 방식, 지역주민들의

절대빈곤, 다국적 기업들의 무분별하고 착취적인 개발 등에 기인한다. 공산품으로 전환된 상품의 시장가격의 1/17의 가격으로 원목을 수출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채무변제의 압력을 무리하게 받는 채무국은 근시안적 정책에 매달림으로써 장기적 이익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대량벌채를 가능케해주는 중장비로 무장한 다국적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발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물론 선진국의 제약회사들처럼 '기적의 의약품'의 천연재료의 상당 부분이 열대우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보이는 산림보호적 관심도 있기는 하다.

3. 해양과 수자원의 문제

1989년 3월 24일, 알라스카의 프린스 윌리엄스 섬에 좌초한 엑슨 석유회사 소속의 발라테스호 석유유출사고는 그 해 5월 중순까지 730마일에 이르는 해변을 오염시켰다. 그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는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알라스카의 찬 기후에서는 기름이 잘 용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에서 2억5천만 달러의 손실, 어업에서 일년에 1천3백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반복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이러한 일회성 대형사고만이 해양오염의 주범은 아니고 오히려 누적적으로 쌓이는 인간활동의 부산물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일년에 약 3~4백만 톤의 석유가 해양으로 유출되는데, 산업배출, 하수구를 통한 유출, 강을 통한 유출, 비사고로 인한 해양유출이 그 주된 원인이다. 인간이 방기하는 폐기물은 궁극적으로 해양, 특히 해변가에 산적하게 마련이다.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 농산물 잔재, 산업 유출물 등은 해양에 과도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로 인하여 식물 플랑크톤이 과

도하게 성장하게 되면 그 일부는 조개류를 오염시키는 독극물을 생산해내는 적조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조개류는 인간이 소비하기에 부적합한 것이다.

4. 지구온난화 문제

지구온난화 또는 지구온실효과는 지구의 기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지구는 5년 전에 비해서 두배의 속도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과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서기 2030년에 가서는 1950년과 1980년 사이의 평균 기온보다 화씨 3도에서 8도 정도 높은, 혹은 과거 2백만 년 동안의 기온상승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1988년 국제연합에 의해서 소집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위원회(IPCC)는 12개 국가에서 온 300여 과학자들에 의해서 준비된 보고서를 통해서 21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화씨 5.4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실 평균 온도의 상승은 그런데로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만 더욱 위험한 것은 평균 온도의 상승이 아니라 최고 온도치의 급격한 상승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되는 것조차 힘들다.

지구온실효과로 인한 기온의 상승은 인간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학적 관찰은 과거 100년 동안 해면이 수위가 10센티미터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서기 2030년까지 약 20센티미터, 21세기 말까지는 약 65센티미터의 상승을 예고한다. 인류의 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해변가에 집중적으로 몰려사는 것을 감안할 때, 그 결과는 가공할 만한 것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벼농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지대인 강의 삼각주 지역에 곡물재배 지역이 밀집해 있

고 그 타격은 다른 곳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대륙에 있는 얼음이 녹을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세계의 농업은 현재 상태의 기후패턴에 민감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의 옥수수, 중국의 쌀, 아프리카의 생존곡물 등이 타격을 입게 될 때,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된다. 홍수와 가뭄도 예상되며, 삼림지역도 황폐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구온실효과를 야기하는 온실효과 가스(GHGs)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CHCs, nitrous oxide, 대류권 오존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향후 40년간에 걸쳐서 지구온실효과의 약 절반의 기여를 할 것이고, 화석연료와 같은 에너지의 사용이 증가되는 지구온실효과의 약 절반, 산림벌채와 농업활동이 약 1/4, 글고 산업활동이 나머지 1/4의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에너지의 시급한 개발과 에너지 효율상승이 이산화탄소의 대기방출을 줄이는 최상의 방법이지만, 대체에너지로서 핵발전을 그 자체로 심각한 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고, 태양에너지의 개발은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Ⅲ. 환경주의의 등장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서구적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데카르트 이후의 합리적 기계론적 세계관, 소위 카테지안 패러다임(Cartesian Paradigm)하에서는 자연은 공생의 대상이라기보다 하나의 정복의 대상이었다. 서구적 의미의 근대화는 자연에 대한 정복이었고 이러한 메카

니즘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더욱 촉발되었다. 이러한 시장기제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은 칼 폴라니의 대변환(The Great Transformation)에서 일찌기 논파된 바 있다. 어쨌든 과학기술에 의한 자연의 정복은 지구 환경자체를 위협하게 되었고, 이러한 징후들은 여러 저작들을 통하여 지적되었다.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가렛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슈마허의 '작은 것은 아름답다' 등은 대책없는 개발에 대한 반명제 구실을 하였다.

'성장의 한계'는 과학자, 기업인, 학자, 직업관료 등으로 구성된 100여명 가량의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구성된 '로마클럽'에 의해서 발간된 것이다. 이들은 지구의 미래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가 결속의 계기가 되었다. 1968년에 로마에서 결성을 본 이 그룹은 지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론적 접근법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컴퓨터 모델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성장의 한계'라는 책자는 MIT에서 두 연구팀들이 행한 결과를 종합해서 얻어진 것이다. 이 책자는 매우 음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이 복잡한 모델은 역사적으로 세계의 발달을 이룩해 온 '물리, 경제, 사회적 관계의 모든 인자들을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미래의 현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모델은 20세기의 자원이용과 고갈상태, 인구성장, 공해, 소득, 개인별 식량소비 등의 변수들을 지구 전체적 차원에서 함수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1900년부터 210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인구성장이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는데 반해서 자원의 고갈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가용 자원의 양은 인구성장을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인구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델속에 가변성의 다양한 가정들을 하나하나 입력시키고 다시 이를 종합해서 조작하는 두 단계를 거쳤다. 그런데 이 모델의 가정에 의하면 모든 가용자원은 충분히 이용되고 이중의 75%가 재순환되며 농업생산량을 두배로 증가하고 공해는 1970년대의 25%선으로 감소하며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산아제한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인구성장과 자원고갈 그리고 공해증가 등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구가 감소하면 산업 또는 농업생산력이 감소한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비록 모든 가정된 변수들을 컴퓨터 모델에 입력해 조작한 결과, 이 지나친 과잉으로 인한 멸망이 1세기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미래의 지구의 수용력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초과되어 버릴 것이 밝혀졌다. '인구성장 억제와 공해의 통제', '자원의 재순환', '경제성장우선정책의 범세계적인 포기', '강대국과 제3세계간의 자원 불균형 분배의 조절' 등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과잉으로 인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안정된 세계모델이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물론 인구 및 경제성장 정지운동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972년에 이 연구가 발표되었을 때 이는 전세계의 언론을 통해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성장의 한계'는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대다수의 비판은 부정확한 가정과 불완전한 자료가 입력된 결과로 그 현실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모델이 제시하는

‘과잉으로 인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인구와 경제의 안정상태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는 일반결론일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류가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을 둔화시키지 않는 한 21세기에 이르면 자원과 영토의 부족, 그리고 공해로 말미암아 지구의 시스템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예고는 현실의 전개에 비추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류통계학자들은 그때까지 적어도 세계의 인구는 현재의 두배가 족히 될 것으로 예측한다. 게다가 오늘날 제3세계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경제발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고,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부를 빈곤한 나라에 재분배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슈마허의 ‘작은 것은 아름답다’는 약간은 추상적인 관념이다. 그는 경제문제가 관념적인 가치체계에 의해 철저하게 구속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결코 경제문제가 무관하지 않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구식 가치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들에게 현재의 경제체계를 대신할 새로운 이상적 체계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모든 사례들에 대한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던 경제법칙들이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슈마허가 주장하는 ‘불교경제학’(Buddhist economics)¹⁾도 새로운 가치관이 새로운 경제체계에 주어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엇이 ‘경제적’인가의 판단 기준은 경제적 판단가치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이 ‘자본축적을 통한 이윤추구’에 있다면 생산과정에서의 인간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일은 ‘경제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보람있고 행복한 삶’에 있다면 이윤추구보다는 ‘고용기회 창출’이 훨씬 더 경제적일 것이다.

슈마허는 또 『생존을 위한 청사진』에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주의를 배경으로한 자본집중적인 현대기술이 그 자체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고전경제학의 꿈인 ‘노동의 분업과 생산라인의 기계화’라는 경제철학과 결별했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철학은 서구 및 제3세계에서 상당한 환영을 받아 이런 유의 진보적 경제체계의 실험적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프리초프 카프라에 의해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 그는 ‘The turning Point’에서 데카르트적 세계관의 한계가 도래하고, 유기체적이고 전일적(全一的)인 세계관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을 The turning Point라고 명명하였다. 동양의 도(道)사상에서 그 근원을 찾은 카프라는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앞으로의 미래의 발전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프라의 동 저서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판매부수를 기록했고 그 영향 또한 엄청났다. 인문사회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중심적인 인물인 소위 산과학 운동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신멜더스주의자 하딘의 ‘공유자의 비극’은 우

1) 자급자족을 통해 자신의 경제행위 및 그 결과를 모두 자신이 소화해냄으로써 사회적·환경적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불가의 스님들의 생활을 연상하게 하는 엔트로피가 몹시 낮은 극도로 위축된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화 형식을 띤 것으로서 앞서 논의된 것들보다 더욱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 우화는 어떤 공공목장의 일부에 몇마리의 소가 남아 한가롭게 방목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마리의 소가 들어오게 되는데 소의 먹이인 풀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도 최대한의 생산이 가능한 평형상태(즉 수용력의 한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일 한 목동이 다른 목동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딱 한마리의 소를 몰래 이 곳에 더 넣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수용력의 한계에 이른 공공목장에 단 한마리의 소라도 추가된다면 곧바로 과잉방목 현상이 나타난다. 간단히 말해 공동목장 자체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열마리 정도의 소가 근근히 배를 채울 수 있는 정도밖에 풀이 자라지 않는 곳에 열 한마리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풀을 뜯기 시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풀 자체가 다시는 돌아나지 않는 지경에 이를 것이고 식량이 사라졌는데 소라고 무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비극을 통해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단 한사람의 행동(계획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지의 소산으로 흔히 나타나는 행동)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이 증명된다.

그런데 하딘은 이 우화를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환경교육의 대중화가 반드시 환경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데는 단지 한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고, 이 한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게 마련이므로 ‘대중적 이익에 기초한 자원의 공유’는 결코 제대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마침내는 비극을 초래한다고 주장했



환경포스터

다. 이와 같은 불행을 피하려면 ‘계몽된 소수의 사적인 소유’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접근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대중의 규모’까지도 규제하는 길만이 공공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하딘은 또 하나의 우화를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계속해서 피력했다. 1974년 또 하나의 우화에서 그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익사해가는 사람들로 가득찬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딱 열명이 탄 구명선을 그리고 있다. 이 구명선에는 딱 열명분의 음식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만일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명선에 올라타게 되면 어떤 사람도 충분한 자기의 몫을 얻지 못하고 마침내 모든 사람은 굶어 죽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따라서 이 우화에 의하면 ‘수용력 법칙의 보편적인 적용에 따라 온정적인 자비를 베푸는 것’은 ‘도덕적 차원’에서 불가능하게 된다.

이 논리는 곧바로 서구와 제3세계의 관계에 적용되어서 제3세계에 대한 자비적 식량원조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자신의 식량을 확보하고 구명보트에 안주하고 있는 서구인들은 실질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로 어쩔수없이 빈곤의 바다에서 익사해가는 제3세계인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도움의 손길을 뺏는 것은 자비롭기는 커녕 구명선 자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된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딘의 논리를 제3세계에 대한 개발의 권리에 대한 제약의 근거로 사용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환경문제를 발생시킨 본래 책임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오직 이미 먼저 존재하고 있는 이들(선진국)을 위해서 욕심 많고 무지한 이들(개도국)의 행위를 제약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지구자원, 환경문제를 완화 내지는 극복하기 위한 국제환경규범의 적용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제환경규범은 과도한 경제성장과 환경개발에 대해 일정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겠지만, 때로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당한 기준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기존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왜곡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 미국의 부통령이자 환경운동가로서 유명한 엘 고어(Al Gore)는 자신의 저서 (Earth in the Balance : Ecology and the Human Spirit)에서 'Global Marshall Plan'을 제안한다. 2차대전의 전황으로부터 서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원조계획이었던 마셜 플랜을 본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계

획은 미국이 세계환경정책을 주도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하며, 특히 환경관련기술의 이전과 관련하여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

IV. 결론

소위 '그린 라운드'(Green Round)라는 용어는 함께 이미 유행어가 되어버렸다. 탈냉전으로 군사적 문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경제전쟁의 시대로 들어와서 이른바 '경제안보' 내지는 '총체적 안보'의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시점에 환경규제와 무역규범의 연계를 의미하는 '그린 라운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만 하는 현상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단일한 접근은 자칫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논리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환경문제가 과거의 자연보호운동과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안보'의 개념을 정립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슈마하의 '불교경제학' 정도는 안된다 하더라도 과도한 소비를 지향하는 새로운 소비규범의 정립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부연할 것은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호활동과 관련하여 단순히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환경안보'의 차원에서 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개인이 철저한 인식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등문**

10원의 철학

김 경 숙

제10전투비행단 중사 성수부인



명퇴, 불경기, 한보·삼미 부도, 소비자 물가 상승, 교통비 인상 등, 요즘 나오는 경제와 관련된 대중 매체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나의 마음을 침울하게 하는 것들 뿐이다.

만원을 들고 시장에 가면 그래도 예전에는 조금 목직함을 느꼈는데, 지금은 딸 아이의 빵과 우유, 그리고 오이, 양파 등의 저녁 반찬 몇 가지면 그만이다. 장바구니의 가벼움을 실감하곤 한다. 큰 맘 먹고 과일이나 고기를 사지만, 가끔 가계부의 빈곤함을 느끼고 허탈해진다. 10% 국가 경쟁력 키우기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그나마 쥐꼬리만한 생활비마저 줄인 구두쇠 남편에게서는 더이사이 생활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어찌겠는가?

오늘도 오이와 오뎅, 그리고 신김치를 먹자꾸나!

하지만 이런 생활이 내겐 너무나 행복하다. 내겐 올해로 4살이 된 예쁜 공주님이 있고, 공군 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멋쟁이 남편이 있다.

물론 그 멋쟁이 남편과 나도 결혼 초엔 다른 사람들처럼 경제권을 포함한 기타 권력 투쟁을 한 적이 많았다. 그러나 남편이 내게 들려준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나의 투쟁의욕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나는 오직 충성, 절대 복종을 남편에게 다짐하며 살고 있다.

우리 남편은 산골짜기 출신이다. 그것도 마을이 다섯가구밖에 살지 않는……. 산으로 마을이 둘러싸여 있고 산에 바위가 많아서 마을 이름도 석암(石巖)이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새로 고무신을 사주면 아까워서 맨발로 다녔으며, 콩보리밥도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고, 봄이면 풀 뿌리를 캐 먹고, 어린 소나무 윗 부분을 잘라서 껍질을 벗기고 물을 빨아 먹었다는 등, 남편은 'TV 그때를 아시나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다. 여기에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을 외치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바로 우리 남편이다.

이런 우리 남편이 나를 행복시킨 이야기는

1973년도 초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생긴 「10원의 철학」이라는 남편의 개똥철학 때문이다.

때는 바야흐로 남편이 초등학교 2학년, 어느 화창한 봄날의 일이었다.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시다가 몸을 다치셔서 병원비로 돈이 많이 들어갔고, 또한 가난한 산골짜기 시골 마을인데다 보리 고개를 지나가는 시점이라서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고, 아침은 콩보리밥 조금에 죽, 점심은 고구마나 옥수수, 저녁은 밀가루를 풀어서 만든 수제비죽을 먹으며 살아야 했던 때였다.

그런데 학기초라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 없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며칠을 울고불고 억지를 부리자 어머니께서는 할 수 없이 옆집에서 돈 10원을 빌려서 주셨다. 그 거금을 손에 쥐고서,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분에 얼마나 좋았던지 같이 학교에 다니는 누나도 제쳐놓고 혼자 졸랑대면서 학교 가는 길에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산 허리를 하나쯤 지나갈 때 그만 돈을 풀밭에 놓쳐 잃어 버리고 말았다. 처음에는 금방 찾을 줄 았으나 뒤에 오던 누나가 다가오도록 찾지 못하자 마음이 불안해져 오는데 누나가 출랑거릴때부터 알아보았다며 야단을 치자 눈물만 나왔다. 울면서 누나와 같이 찾았으나 시간은 5분, 10분, 자꾸자꾸 흘러갔다. 이제는 누나마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렇게 둘이서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이 되어 학교갈 시간도 잊어버리고 돈을 찾았으나 결국 돈은 찾지 못했다. 풀밭에 털석 주저 앉아서 망연자실해 집에 와서 혼날 걱정만 하고 있었다.

그때, 자가용 한 대가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와 서더니 빨래 안경에 인자한 얼굴을 한 아저씨 한

분이 창문을 여시고서,

“이 녀석들 왜 학교에 안가고 싸우고 있지?” 하셨다.

누나가 눈물을 옷소매에 한번 닦고나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싸우는 것 아니에요!” 대답하자,

“그럼 왜 학교에 안가고 울고서 풀밭에 앉아 있지?”

“동생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학교에 갔다 오면서 찾으시면 되잖니?”

“안돼요. 오늘 쓸거예요. 또 나중에 못 찾으시면 집에 가서 혼나요. 집에 돈이 없어서 옆집에서 빌려다 준건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또 찾으려고 하자, “에들아! 그돈 내가 줄테니 어서 타거라. 학교는 가야 되잖니?” 하셨다.

누나와 나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손등으로 콧물, 눈물을 닦으며 아저씨를 바라보자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시며

“빨리 타거라. 2교시 시작 했겠다!” 하시면서 손짓을 하자, 나는

“정말로 10원 주실꺼예요?” 하고 물었다. 아저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빨리 타라고 재촉하셨다.

누나와 나는 반신 반의하면서 차에 타자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10원짜리 2개를 꺼내시더니 누나와 나에게 쥐어 주시면서 “이걸로 필요한 것 사고 열심히 공부하거라. 잃어버린 것은 나중에 학교 끝나고서 찾고 알았지!” 하셨다.

“고맙습니다. 아저씨!”만을 되풀이하며 웃는 누나와 나에게 아저씨는

“나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 했단다. 시골에 있는 소와 논을 팔아서 서

울에 올라가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에 다닐 때, 먹을것이 떨어져 며칠을 굶고 물로 배를 채우며 살기도 했단다. 그러다 내가 대학 3학년에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골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내려 가려는데, 주인집에는 아무도 없고, 돈을 구할곳도 마땅찮고, 친구들도 다 돈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 기차역으로 달려갔지. 그리고 무임 승차를 하려고 열차에 올라 타려고 하다가 역무원 아저씨에게 붙잡혔지. 사정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하고 해서 시멘트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너무한다고 소란을 피우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오면서 자초지종을 물은 뒤에 차비를 주시더군요. 얼마나 고맙던지 감사하다는 말만 하고 경황도 없이 차표를 끊고서 출발하려는 기차에 올라타고 왔단다.

오면서 조금은 마음이 안정되자 누구인지도, 어디 사는지도 못 물어보고 얼굴도 자세히 보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때 생각했다.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 주겠다고 말이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준 것이 내가 주는게 아니고 그 아저씨에게 갚을 것을 너희들에게 대신 갚는 거야.

그렇게 고향에 내려와 보니 아버지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날밤을 넘기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지. 그분 아니었으면 난 아마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을 것이야. 아직도 그분에게 어떻게 그때 고마움을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며 눈시울을 적셨다.

남편은 아직도 그 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자라오면서 돈의 소중함과 정말 값지고 멋있게 돈을 쓰는 법을 배웠단다. 그래서

남편의 신조도 "개처럼 악착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라며, 추억으로 만든 남편의 개똥 철학인 「10원의 철학」과 "나만 믿고 1년만 맡겨봐! 후회하지 않을꺼니까!"하는 너무나 당당한 남편의 설득에 난 반박할 이유를 대지 못해 무조건 행복을 하고 말았다.

1년이 지난 후 나는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 모든 경제권을 남편에게 다시 맡기기로 했고, 지금도 월급을 타면 봉투 채 남편에게 줘다 준 후 생활비만 조금씩 타서 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초라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남들이 가는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끔 가고, 영화도 보고, 취미인 낚시도 가족 모두 김밥을 싸 가지고 가기도 한다.

이런게 삶의 행복이 아닐까? 가끔 남편이 관리하는 통장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피어 오른다. 작은 월급이지만 쪼개어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대학 다니는 막내 아가씨 용돈, 한달에 한 번 이상 다니는 시골가는 교통비, 딸아이 선교원비, 우리 생활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저금을 한다는게 철칙인 우리 남편덕에 자꾸 붙어가는 통장 때문일 것이다.

결혼 초 월세방부터 시작한 우리가 작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년이면 입주할 한다. 이 모두가 근검 절약하고 생활하게끔 정신을 심어준 그 아저씨의 말씀과 이런 추억으로 인한 남편의 개똥 철학인 「10원의 철학」 때문이 아닐까 한다.

오늘도 우리 남편은 10원짜리를 돼지 저금통에 넣으며 외친다.

"10원짜리라고 무시 하지마. 100원도 10원에서부터 출발했어. 10원 한 개라도 없으면 안돼!" 하고 말이다. **◆◆◆**

절약, 실천의 모범을 보일 때다



김 석 태
준위/공군사관학교 행정부

10여년전 서울 대방동에 있던 “필승연수원”에서 정신교육을 받던 중 난지도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유옥자”라는 아주머니의 소박한 삶의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감명깊게 들은 적이 있다.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의하면, 서울시내에 버리는 쓰레기 중에는 깨끗한 학용품에서부터 각종 참고서들, 흠이 없는 피복류, 멀쩡한 가전 제품들, 약간의 수리나 손질만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소파나 장식용 가구들까지 허다하다는 것이다. 쉽게 싫증을 느끼고 무조건 새것으로 바꿔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치의 극치를 걷는 부유층 사모님들의 낭비성을 질책하면서 “나도 살림하는 주부의 한사람이지만 여러 총각님들 장가갈 때는 알뜰한 아가씨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장가가야 한다”고 호소하는 데 동감이 갔다. 그후 대전에 내려와서 살던 중 실수로 등기 문서를 버린 곳을 추적하여 쓰레기 집하장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나 찾고자하는 등기권리 증서는 못

찾았어도 버리기에 너무도 아까운 것들이 산적해 있음을 확인하고, 전에 들었던 서울 난지도 아주머니의 강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것이다.

내가 국민학교 다니던 60년대는 공책으로 제본된 것을 쓰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고, 갱지 전지를 사서 16등분이나 32등분으로 잘라서 껌매어 공책을 만들어 사용하는 애들이 대다수였다. 가방은 중학교를 진학해야 구입하는 것으로 인식했기에 국민학생들은 아예 「책보」라고 해서 보자기에 싸서 허리에 두르고 시꺼먼 보리밥 도시락이나 형편이 어려운 집은 고구마 한두 개를 다 쓴 갱지에 싸서 가지고 다니는 정도였다. 그 후 30년이 지난 요즘 그런 시절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며 그런 시절이 있었나 의심이 갈 정도로 의식주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69년에 입대한 필자가 식당에서 첫 군대 밥을

먹는데 국에다 밥을 말았더니 (당시에는 4년 가량 비축한 군량곡이라 그런지) 밥에 ○○○가 뜨는 것이다. 처음에는 비위가 무척 상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무디어지는 혼련병의 모습이 기억난다.

90년대부터 병식이 많이 좋아졌다. 주식부터 묵은 쌀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 가정의 식탁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향상되었다. 그러나 근래 신세대 장병들은 국가경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요망사항만 잔뜩하다.

북한은 금년 봄이 최대의 고비라고 한다. 식량난이 극심하여 6월중에 수십만 명이 굶어죽을 위기에 처해있다는 현실을 알고 많은 사회 단체들이 적극적인 모금운동으로 식량을 보내려 하는데, 말단 서민에게까지 전달될 지 특수부대에만 불공평하게 배달될 지 의문이다. 5월의 보릿고개나 춘궁기라는 말이 없어진지 30년이 지났으나 북한은 아직까지도 배고픈 서러움을 겪은 군인들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조상의 잘못으로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 북한 군인이 되었다면... ..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전에 근무했던 부대 쓰레기장에서 주는 「도마」 얘기 한 토막도 떠오른다.

당직 근무 중 순찰을 하게 되었는데 쓰레기장에 버려진 도마가 클로즈업 되었다. 음식 쓰레기가 범벅이 돼서 악취가 심하게 나지만 세면장에 가서 수세미로 깨끗이 서너차례 목욕시키고 일광욕을 시켰다. 위생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 도마를 우리집 주방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7년째 그 도마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네식구 아무 이상없이 살고 있다. 비위가 약한 고등학생 딸 아이가 그 도마의 전력을 알면

기겁을 하며 우리가 거지나고 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우리집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군인은 알뜰하게 살아야 한다. 급여에 불만하는 동료나 후배들에게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받는 혜택에 대하여 별로 곱게 보지 않는 잘못된 민간인들이 많음을 인식하여 그만큼 근검 절약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가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곤 한다.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저비용 고효율 달성, 소비절약 운동 등 매년 정부가 제창하는 구호나 운동이 다양하지만 전 장병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없이는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와 유사한 조건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을 통하여 본받을 점이 참으로 많다. 일본은 2차대전 패한 후 전체 각료부인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사치추방과 근검절약의 비장한 각오로 외출시나 행사시에도 ‘몸빼입기 운동’을 펼쳤다고 한다. 공무상 해외 체류기간 중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까지 자기네 나라에서 출국할 때 아예 마련해가므로 외국생활 중 남의 나라 물건을 살 필요가 없다고 한다.

대만의 경우를 보자. 모든 공직자들이 공과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기관장이나 단체장들이 주말이나 일과 후 개인용차가 있을 때 관용차 사용을 지양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1년간 봉급의 25%를 국가에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와같이 지도급 인사들의 모범적인 자세가 하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일본이나 대만의 총 저축율이 총 투자율을 앞지르기 때문에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대외 채권국으로서 아시아의 떠오르는 나라로 부상하고 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어진 아내가 필요하듯이 나



과소비와 거품경제를 풍자한 포스터

라가 어려울 때 누가 필요하겠는가? 대통령만 욱하고 국회의원이 썩었다고 남의 탓만 하며 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사무실부터 긴축 운영하며 국가재산을 소중히 아낄 줄 아는 작은 애국자가 필요한 것이다. 애국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려운 나라살림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동참하자는 뜻이다.

나라없는 군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래에 우리생활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절전절수」이다.

우리가 사는 부대의 한달 전기료나 수도료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내 봉급에서 나가지 않으므로 관심 밖으로 돌려버릴 것인가? 필자가 있는 부대 지역 월간 전기료는 54,313,681원이며 수도료는 16,240,308원이다. 유류는 보안상 말하기 곤란하지만 수억원에 달한다. 햇빛에 의한 채광으로도 충분한 사무실이 일과 시작전부터 하루 종일 불이 켜져 있을

때가 많다. 또한 커피포트 등을 비롯한 전열구의 코드가 꼽혀있는 경우도 있다. 항상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스스로 점검하는 양심이 필요하다.

삼성같은 대기업에서도 절수 운동을 위하여 세면기나 용변기에 1회 사용시 소요되는 수요 요금을 금액으로 표시했다고 한다. 콕크를 돌리거나 누를 때 돈이 얼마가 드는지 보라는 뜻이다. 이렇게 시행했더니 전월대비 2억 이상의 경상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 군도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사실 절전 절수 계몽이 필요없어야 된다. 모두다 당연한 것으로 지켜갈 때 의식 개혁이 정착되는 것이다.

둘째,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 자제이다.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절약 차원에서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복사지부터 소모성 품목의 과다구매 습성이 있다. 예산이 남아 있으니, 그냥 신청하는 것이다. 예산을 반납치

않고 금액을 맞추다 보니 사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신청한 물자의 대금 결제가 국고에 의해 집행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이 국고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제품별 유효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어서 버려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생긴다. 일시에 많이 사 놓고 사용기간이 초과하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예산을 사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사진재료, 페인트, 건전지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최소비용의 수리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귀찮아서 수리견적이니 조달수리니 하는 소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폐처리를 빨리 하면 새것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 심리 때문에 못쓴다는 말부터 먼저 하여 국민의 혈세로 구입된 소중한 재산을 조기도태 및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유류 절감 운동이다.

유류는 군대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전투 긴요물이다. 또한 유류는 항공기나 장갑차 군함 등 육·해·공군 3군이 가지고 있는 핵심 전력의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무리 유류 가격이 비싸더라도 전시 대비를 위한 비축 재고가 상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를 경직성 경비라고도 한다. 최신화력 장비가 탑재된 항공기가 완비됐을지라도 절대적 소요물자인 유류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96년 대비 38%의 대폭적인 원유가 인상파동은 군 운영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최근 공군본부에서 「유류 초긴축 운영」 지침이 전 부대에 하

달된 것은 위와 같은 불가피한 배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병들은 조금만 추위도 보일러실 근무지를 욱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시책에 동참한다는 의지로 인내심을 발휘할 때다.

내 승용차에 기름 넣을 때 주유소에 내는 돈이 아까운 만큼 군대 유류도 곧 정부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부대 유류 절감운동에 다같이 동참했으면 한다. 특히 난방 유류 절감은 동력사용을 그만큼 적게 하므로 전기 사용도 절약되는 이중 효과가 있다. 작년 한해동안 석유 수입 대금이 197억불이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7조에 해당한다.

1조가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인지 생각해 보자.

억이 만개가 있어야 1조다. 그러면 1억은 만원짜리 몇 장일까? 만장이다. 즉 1만원권 만장 묶음이 또 만개가 있어야 1조니 엄청난 금액이다. 늘어나는 외채규모가 1,444억 달러로 이자만 6조원이라던 국민의 군대라면 한번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고, 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필요하지만 가능한 부분에서 조금씩 절약하는 모범을 실천으로 보여줄 때 국민은 더욱 군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나 혼자 이렇게 절약한들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 줄줄줄 흐르는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다같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근검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이제야말로 절약을 몸소 실천하는 모범을 보일 때라고 외치고 싶다. **등문**

건강한 치아는 건강한 삶의 출발점



신 준 택

상사/제86항공전자정비창 기술관리과

건강할 때 건강을 돌봐야한다는 격언은 구강 건강의 유지에 특히 적절한 이야기이다. 일단 손상되면 다시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야생동물의 경우에 치아를 잃으면 거의 대부분 죽음과 연결된다. 이런 의미에서 치아는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라 하겠다. 사람의 경우 치아는 야생동물만큼은 아니더라도 소화기관을 이루는 장기의 일부로 신체 건강에 1차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치아의 건강성은 얼굴 전체의 심미성에 절대적 영향을 주어 사회성 및 성격형성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일반의료 치료시 팔, 다리가 골절되었을때 기부스하면 뼈가 다시 붙어 원상 회복되지만 구강 건강은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능 하다. 치과적 치료란 단지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대체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지 않게 유지시키는 것에 불

과하므로 결국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을 통한 건강의 유지이다.

치아 건강의 유지를 위한 노력은 암이나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치과적 질환중 가장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치주질환(풍치)과 치아우식증(충치)의 경우, 그들 질환의 원인이 되는 프라그를 미리 제거해 주거나 프라그가 작용하여 치아를 상하지 못하도록 미리 처치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크레오파트라의 치아가 빠드렁이었다면 어떨까? 예로부터 최고 가지런한 치열은 미인의 필수조건으로 꼽혀왔다. 빠드렁이나 일명 주걱턱(상악치열이 하악치열 밑에 있음)도 부정 교합의 경우에 해당되며 예방 교정을 통해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용품의 적절한 선

택으로 깨끗한 구강상태를 유지하여 프라그를 잘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 구강건강에 좋은 음식물을 잘 섭취하고 해가 되는 음식의 섭취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

셋째, 불소를 사용하여 치아가 산에 잘 견디도록 해야 한다.(불소도포)

넷째, 치아 우식증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작은 골짜기와 구멍이 있는 치아의 씹는 부분을 미리 막아주는 치료(치면열구전색)를 받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90% 이상이 잇몸 질환의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다. 우리가 무심히 참고 넘어가는 잇몸병, 이는 가장 흔하면서도 구강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다. 치주질환은 초기에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이 없이 진행되어 만성이 되는데 병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 치아를 빼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치주 질환이란 무엇일까?

치주 질환은 치아를 지탱하는 구조, 즉 뼈나 잇몸 부위의 감염이다. 치주 질환에는 잇몸에만 발생한 치은염과 잇몸의 뼈까지 깊어지는 치주염이 있는데 병의 진행도 치은염에서 치주염으로 발전한다.

초기단계의 치주 질환증상으로

1. 잇몸에서 피가 나고
2. 충치가 없는데도 찬것을 먹으면 이가 시리며

3. 입에서 악취가 나고

4. 잇몸이 근질근질하거나 빨갛게 부풀어 오른다.

후기단계의 치주질환 증상으로,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아의 우치가 변하며 잇몸이 너덜너덜

하게 된다.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프라그(치태)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박테리아의 일종이며 끈적끈적한 얇은 막으로 치아의 표면에 끊임 없이 생기는데, 치아우식증(충치)과 치은염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제거되어야 한다. 일단 형성된 치태는 잇몸을 붉게 만들며 너풀거리고 쉽게 출혈을 일으키는 증상을 보인다. 치태가 제거되지 않으면 점차 딱딱하게 치석으로 변하고 이러한 치태는 잇몸과 치아 사이에 공간을 생기게 하는데, 이를 치과적 용어로 치주낭이라 한다. 치태는 이 치주낭에 쌓이고 치아를 지탱하는 뼈를 파괴하는데까지 발전한다. 이렇게 될 때까지 무심히 지나쳐 버리면 치아를 잃게 된다.

치주질환은 종종 어린시절부터 시작되므로 예방도 어린시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잇몸과 치아의 주위에 낀 치태를 매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또한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같은 처치의 대표적인 치료가 스케일링이다. 1년에 2번 이상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치석제거 및 구강건강에 대한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발치(치아를 빼는 치료)나 수술후의치치는 감염방지나 발치전의 감염을 막는데 필수적이다.

치아를 뺀 후 다음 주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합병증을 막고 신속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휴 식

휴식은 발치 부위를 신속히 낮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환자는 귀가 후 몇시간 동안 조용히 휴식을 취해야하는데 편히 앉아 있거나 베개를 높이 하고 누워있어야 한다.

출혈

발치 후 1시간 이상은 거즈를 단단히 물고 있어야 한다. 발치 후 6시간 동안은 양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가 굳어지지 않아 출혈이 계속된다. 입안에는 침이 있기 때문에 출혈이 심해 보일수가 있으니 이를 유념하고, 출혈이 계속되면 다시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야 한다.

동통

대부분의 경우 발치 후에는 어느 정도 아픈데,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을 복용함으로써 해결된다. 그러나 종종 발치후 2~14일 사이에 동통과 더불어 입안에서 나쁜 냄새가 나는 경우는 발치 부위에 피가 응고되지 않았거나 응고된 것이 제거된 경우이므로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부종

환자에 따라서 혹은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서 발치 부위가 붓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대체로 당일만 얼음찜질을 함으로 예방할 수 있다. 한시간에 30분정도나 10~15분 정도의 간격으로 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구강 청결

발치 당일에는 치솔질이 어려우나 다음날부터는 나머지 이를 닦아서 구강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발치 부위는 치과에 내원하여 소독을 해주어야 한다.

음식물

첫날은 액체나 유동음식을 섭취하되 미지근한

것이나 약간 찬것이 좋으며 뜨거워서 안된다. 발치 후 몇시간 동안은 음식물 섭취를 삼가해야 한다. 충분한 물과 주스를 섭취하며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발치후 흡연은 감염을 일으키거나 피의 응고를 방해하므로 삼가해야 한다. 5일 정도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보철물 대체

치아를 뽑은후 4~6주의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치아의 주위 조직이 적절히 회복되는데 이때가 되면 즉시 새로운 보철물로 대체해주어야 한다. 치아를 뽑은후 방치하게 되면 인접 치아나 맞물리는 치아가 빈 공간으로 쏠리게 되어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압력이 불균등해져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고 치아가 마모되며 지속적인 치아의 손상이 불가피해진다.

이와같이 세계적으로 구강의 해를 정하여 건강한 치아를 보존하려는 8020이란 표어를 내걸고 있는 등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8020은 80세 이상 자연치 보전이 20개 이상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치아관리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양치질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며, 주기적으로 치아를 살펴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건강한 치아는 건강한 삶의 출발점, 치아를 잘 보존하도록 노력하자. **등관**

완벽한 공중 감시수 공군 제8546부대

실전전 요격 관제 훈련으로 방공 작전의 중추적 역할 수행



공군 제8546부대는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 대한 완벽한 공중감시 활동으로 철통같은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공관제대대이다.

평시에도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전개하고 있는 제8546부대는 임무완수를 위한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습득, 장병 상호 간의 상량과 단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전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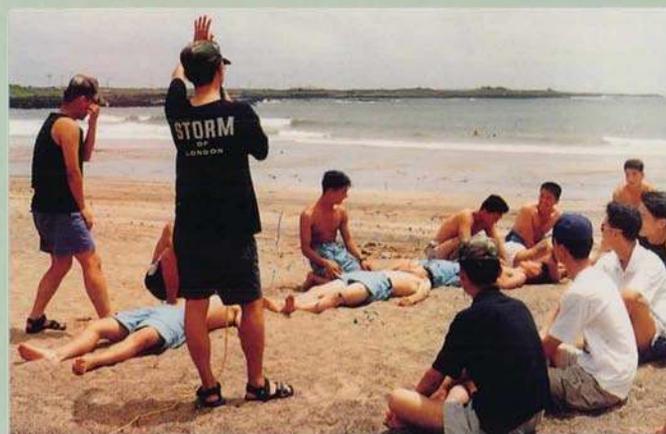
부 · 대 · 탐 · 방



▲ 지상사격 훈련



▲ 소방교육



▲ 장병 크기 훈련

“미확인 항적 1기 포착, 2백50도 방향, 속도 5백km”

5월 12일 오전 10시 55분, 한반도 최남단 공군 제8546부대 작전상황실에서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던 공중 감시수 1명이 미확인 비행체의 항적을 포착하자마자 큰소리로 외친다. 이와 동시에 선임 통제사의 손이 반사적으로 비상벨 위에 얹혀졌다. 이어 대대장이 작전실로 뛰어 들어와 상황실 전면 대형 상황판의 지도에 포착된 항적의 위치를 보며 상황을 통제한다.

미확인 항적이 적기로 판명되자, 즉시 전역통제본부(TACC)의 지시에 따라 대기 중인 아군 요격기들에 출격지시가 내려진다. F-5E 전투기는 적기의 육안 포착과 함께 적기의 무장 상태를 알렸을 후, 요격에 들어갔다. 잠시 후, “적기에 대한 전술조치 완료”라는 교신과 함께 상황이 완전 종료되었음을 보고해 왔다.

적기 포착에서 격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분, 제8546부대의 요격 관제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 실시된다. 이처럼 실전적 훈련은 완벽한 공중감시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유사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철통같은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제8546부대의 노력은 지난 96년 11월, 레이더 무중단 운영 3개년 달성으로 이어졌다. 물론 이와 같은 성과는 장병들의 굳은 의지에서 비롯된 임무 완수를 위한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습득 노력, 그리고 장병 상호 간의 사랑과 단결이 큰 역할을 했다.

부 · 대 · 탐 · 방

장병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단결할 수 있을 때, 부대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부대 정문에는 부대의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구호가 눈에 띈다.

[서로 사랑, 부대 사랑, 나라 사랑]

장병들은 이 구호를 매일 아침 일조행사시 제창하며 장병 상호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긴다. 또한 사랑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제8546부대는 매주 토요일 병영자치의 일종으로 내무실장이 순번제로 명예당직사관 임무를 수행하는 [명예당직사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병들 상호 간의 이해를 돕고 전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8546부대는 장병들의 정서순화와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전사적지 탐방활동을 활발히 펼쳐 [이런디 알았수과 (이런 곳을 아십니까?)]란책을 발간하여, 군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지역 TV에 소개되기도 했다.

한편 대민유대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농촌일손돕기, 고아원, 양로원 방문, 환경보호 행사 정례화 등을 전개하여 장병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제8546부대는 부대장과 전장병이 하나가 되어 공중 감시 임무에 매진함은 물론, 활기찬 병영문화를 가꾸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명예당직 사관제



▲ 어학실습실



▲ 전사적지 탐방활동

✚ 비행단 내 전문대 분교 설립



- ▲ 제16전투비행단은 부대 내에 경북 전문대 분교를 설립하여 장병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현판식을 가졌다. 이로 인해 97년 첫 학기부터 장병 및 군무원 33명이 전자계산학과 과정을 이수받게 되었으며, 부대 내에서 퇴근 후 곧바로 학업에 전념하게됨에 따라 장병 교육에 대한 성과도 한층 배가할 수 있게 되었다. (3.22.)

✚ 민·관·군 합동 대테러 구조훈련



- ▲ 제5전술공수비행단은 민·관·군 합동으로 항공기 납치, 화재, 독가스 테러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테러 및 항공기 사고 구조처리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지난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게임을 앞두고 유사상황 발생시, 이에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4.30.)

☘ 한송정 들차회



▲ 제18전투비행단은 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에 공개되지 못하던 국내 최고(最古)의 차 유적지 한송정(寒松亭)을 개방하여 들차회(野茶會) 행사를 개최하였다. 강릉시, 강릉동포다도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부대장, 강릉시장, 일반시민과 장병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5.16.)

☘ 전역 앞둔 사관후보생 부대초청



▲ 공군교육사령부는 전역을 앞둔 사관후보생 92기 장교들을 부대로 초청, 98기 후배와의 체육행사, 열병, 만찬 등으로 구성된 Homecoming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양일간 진행된 이 행사는 초청된 장교들에게 공군장교로서의 성취감과 자긍심을 다시금 느끼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5.28~29.)

'97년 전사적지 및 산업시설 견학

97년 전사적지 및 산업시설 견학이 총 8차례 2박3일 일정으로 4월9일부터 6월13일까지 실시되었다.

320명의 모범 장병 및 군무원들은 전쟁기념과, 제3땅굴, 강화도 유적지,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등을 차례로 돌며 분단된 안보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국가 발전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97년 전사적지 및 산업시설 주요 견학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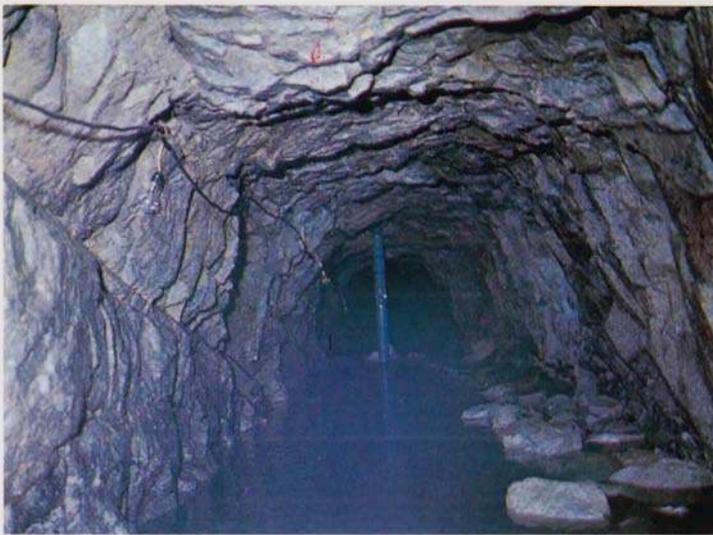
▲ 도라전망대 견학을 마치고 ('97-1차 모범하사관 과정, 4.9.)

'97년 전사적지 및 산업시설 견학



- ▲ 전쟁기념관 군국발전실
한국전쟁 당시 F-51 무스탕 전투기
및 100회 이상 단독 출격 조종사

- ▶ 전쟁기념관 중앙홀
전쟁 유공 추모 대상자 흉상



▲ 제3땅굴 내부 모습

'97년 전사적지 및 산업시설 견학



▲ 강화도 광성보
신미양요의 가장 격렬한 격전지. 어재연 장군 이하 전 용사가 장렬히 순국하였다.



▲ 강화도 용두돈대
병인, 신미양요의 격전지로 강화 전적지 보수정화 기념비가 있다.



▲ 수원 삼성전자
첨단화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발전과 정지 속으로의 여행

발전과 정지 속으로의 여행

발전과 정지 속으로의 여행

최 인 호

소위/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부동켜 안고 있는 국군 형님과 인민군 아우의 “형제의 상”을 첫 만남으로 나의 견학은 시작되었다. 반복되는 일상의 업무에서 잠시나마 휴식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냥 들떠 있던 나의 마음은 전쟁기념관의 숙연한 분위기에 묻혀서 아픈 역사의 단편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우리의 견학일정은 전쟁기념관을 시작으로 도라전망대, 제3땅굴, 강화도를 거쳐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공장을 관람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전쟁기념관

우리의 처음 집결장소이기도 했던 이곳은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곳이어서 한국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선사시대 이래로 우리의 역사가 전쟁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어느 한 역사가는 “역사는 곧 전쟁사이다”라고까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곳 전쟁기념관의 의미는 크

다 하겠다.

그러나, 전쟁기념관의 가장 큰 비중이 6.25 사변을 중심으로 되어 있음에 민족 분단의 아픔을 절감하였다. 어느 누구도 승리자가 될 수 없었기에 그 아픔의 강도와 슬픔의 자국은 반세기가 다 되도록 잔재해 있으리라.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더 흘려야 이 아픔의 자국을 영원히 지울 수 있을까.

침울한 생각으로 발길이 닿은 곳은 공군관이였다. 우리 공군의 발전과 활약상을 비교적 자세히 전람해 놓고 있어 내 자신이 공군에 몸담고 있다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초창기, 건국기 몇 대로 첫 발을 내딛은 공군이 이토록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도록 피땀어린 노력을 하신 선배 장병들에게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앞으로 그 분들의 헌신에 한 치의 누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하며 전쟁기념관을 나섰다.

제3땅굴

전쟁기념관을 관람하고 나서 전세버스 편으로 3땅굴이 있는 파주로 향했다. 휴전선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김문소가 늘어가는 것을 보며 또 한번 분단의 잔재를 느꼈다. 우리가 방문한 3땅굴은 육군 1사단의 관리 하에 있어 먼저 그 곳 기념관을 관람하였다.

그 유명한 육탄 10용사가 바로 이 부대에 몸 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모두들 숙연해졌다. 하기가 요즘 젊은 군인들 중에 포탄을 가슴에 안고 총알이 빗발치는 적진을 향해 돌격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물어 온다면 나도 자신있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의 엄숙한 살신 위국의 정신을 본 받으려 노력한다면 정예강군의 길이 그리 멀지만은 않을 것이다.

기념관을 관람하고 도라전망대로 올라가 분단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언젠가는 꼭 끌어 안아야 할 우리의 산천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아픔을 후손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리라.

도라전망대를 내려와 제3땅굴로 향했다. 땅 밑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길에서 북괴의 남침야욕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고도 남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땅굴이 우리 국군에 의해 발견되자 석탄채취용 굴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해 철수하면서 딸굴 벽면에 검은 칠을 해 놓았다고 하니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다른 남침용 땅굴이 없으리라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몇몇 젊은 학생들의 감상적 통일논리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꼭 말하고 싶다.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고 얻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겠다.

한반도를 반동강 내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휴전선을 뒤로 하고 강화도로 향하는 차안에서 “분단”과 “정지”된 세상을 생각해 보았다. 반세기 가 넘도록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정지된 이 공간을 언젠가는 활기찬 국토의 품안에 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노력해야만 할 것이라고 되새기며 견학 첫날을 마감했다.

강화도

고려시대 이후로 조선조 말기에 이르기까지 외세의 침략과 관련하여 수많은 전적지가 산재해 있는 강화도에서의 첫 아침은 전등사를 오르며 시작되었다. 아름드리 나무가 병풍을 치듯 둘러싼 사찰을 거닐며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 만큼이나 사찰 구석구석에서 느껴오는 선열들의 호국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아침의 상쾌한 공기가 온 몸에 전해지듯 옛 선열들의 불타는 충절심이나 나의 마음에 번지는 듯 했다. 먼 옛날 고려시대 때 불교의 힘을 빌어서라도 나라를 지키려 했던 조상들의 의지에 우리 후손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나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명확한 것이리라.

전등사를 둘러보고 나서 강화도 역사관과 초지진, 광성보를 견학함으로써 강화도 방문을 마감했다. 역사적인 장소가 많아서인지,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숙박시설이나 유흥업소들이 많았다. 내가 보기에 그리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점이였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 도가 지나치면 자칫 옛날의 그날들처럼 외세의 침략에 무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애기봉, 제암리 순국유적지

강화도를 떠나 도착한 곳은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김포의 애기봉이었다. 김포에는 유난히 해병대가 자주 눈에 띄었다. 애기봉 전망대도 해병대가 관리하는 것 같았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 지점은 여느 강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데 그 탁한 강물빛 처럼 가슴이 메어옴은 무엇때문일까.

우리의 견학 마지막 밤은 화성에서 보냈다. 화성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 일찍 제암리 3.1 순국유적지를 찾아갔다.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치는 제암리 사람들을 교회당에 몰아 넣고 불태워 죽인 일제의 잔학스런 만행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보면 우리 민족은 외세와 내부갈등에 의해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어온 것 같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그 사적지를 찾아보는 이유를 분명히 해주는 또 한번의 체험이었다.

산업시설

달리는 버스는 시원한 바다바람이 느껴지는 남양만의 기아자동차 공장에 도착했다.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것은 의전용 안내차와 길에까지 가득 세워둔 새로 만든 차들이었다. 이 많은 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반면 경기가 불황이라 판매률이 저조해 도로에까지 세워놓았다는 것을 알고 걱정도 되었다. 우리가 만든 차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수출되어 국위선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탈파하는데 선두에 서야할 제조업의 부진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신형차의 성능을 시험해보는 주행장에서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있는 많은 차들을 보며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모두의 결의가 느껴지는 것 같아 경제회복의 전망이 그리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끼며 발길을 돌렸다.

다음은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수원으로 향했다. 국내 최대의 전자제품 회사라는 이름에 걸맞듯 규모도 크고 근로자들도 바쁘게 일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안내하는 아가씨의 웃음만큼이나 국가경제의 전망도 밝았으면, 그리고 통일의 그 날이 희망으로 다가오길 바래보았다.

이번 견학은 안보현장과 역사유적지, 그리고 산업시설 현장중 살펴봄으로써 발전된 국가의 위상을 느끼고 앞으로의 의지를 굳건히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군에 몸 담은지 얼마되지 않지만 이런 좋은 기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정훈감님과 전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견학일정 동안 인솔하느라 고생하신 본부정훈감실의 이소령님께도 늦게나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새로이 정립하여 앞으로 유형전력의 정진뿐만 아니라 부대 정신전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본다. **등문**

전사적지를 다녀와서



이 용 숙

9급/제1전투비행단 군수전대

설레임.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아내로, 엄마로, 직장인으로 너무도 정신없이 지내왔던 시간이었기에 나 혼자만의 여행은 내마음을 온통 설레임으로 물들였다. 아니 여행이 아니라도 좋다. 나 혼자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만큼 나만의 시간이 없었기에 이번 전사적지 견학은 여러가지로 특별한 의미로 내게 다가왔다.

견학 첫날, 집결지인 전쟁기념관에 모여 인원을 체크하고 견학취지를 들은 후 부푼 설레임을 간직한 채, 관람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설레임은 첫 관람에서부터 여지없이 깨지기 시작했다. 군이라는 특수한 곳에 근무하면서도 전쟁을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이곳 전쟁기념관은 내게 '아! 이것이 전쟁이구나' 하는 느낌을 실감나게 전해주었다. 참담한 전쟁의 비극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는 조형물들을 보며 명치끝이 아려움을 느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숱한

전쟁과 전쟁들. 그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선열들과 이름 모를 민초들이 피를 흘려야 했는지... ..

짐보따리 지고, 짐수레 끌고, 가족들 손잡고 떠나는 피난길, 그리고 총탄이 지나간 폐허가 된 도시에서 움막을 짓고 거죽대기를 깔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전시관을 뚫고 나올 것 같다.

우리 조상들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왔다. 전쟁으로 점철된 뼈아픈 우리의 역사, 그러나 그 역사 속에는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투쟁했던 위대한 우리 선조들의 얼이 녹아 있다. 오늘의 내가, 오늘의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분들의 애국애족 정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전쟁기념관에서 점심을 먹은 뒤, 도심을 벗어나 우리의 희망처럼 쪽뽕은 통일로를 달려 임진각을 지나고 목적지인 도라전망대에 도착했다. 육군 병사의 명쾌한 브리핑과 함께 망원경을 통

해서 본 북한 선전용 마을인 기정동과 멀리 보이는 개성, 그리고 무엇인가 심어놓은 듯한 논과 몇 명의 사람들이 어렴풋이 보이고 우리나라의 대성동 마을도 볼 수 있었다.

망원경을 통해 본 북한 마을은 그저 평안해 보일 뿐인데도 분단이 가져다 준 아련한 슬픔은 가슴을 아리게 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과 얼마되지 않은 거리에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적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다는 현실이야말로 전쟁이 가져다준 비극일 수밖에 ……

아련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 일행은 제 3땅굴로 향했다.

그곳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등, 우리 분단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온 사람들로 이미 붐비고 있었다. 잘생긴 안내장교의 설명과 주의사항을 들은 뒤, 땅굴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측에서 파내려갔다는 300m나 되는 거의 직선코스의 동굴을 지나니 북한이 파내려왔다는 땅굴을 만날 수 있었다.

세상에!

어떻게 해서, 어찌자고 이곳까지, 이 깊이까지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내려올 생각을 했을까. 이 땅굴을 파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북한주민들의 피와 땀과 애달픔이 있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우리 조상들이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때문에 술한 눈물과 가난을 겪으면서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같은 동족끼리 6·25도 부족해서 또 다시 이런 엄청난 땅굴까지 만들어 총부리를 들이대려 했다니, 정말 벌레만도 못한 놈들이란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주민들은 식량때문에 많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배고픔 때문에 인육을 먹

고 있다고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슴에 독약을 품고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군량미는 남아 돌아가고 여전히 군사훈련은 계속되고 있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인가.

더군다나 세계식량기구 등에서 원조한 식량을 북한은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데 쓰지 않고 군에 전용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감상적 동포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너무나 안이하게만 느껴왔던 안보의식을 더욱더 확고히하여 우리 여군무원들도 내나라와 내겨레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다짐하는 숨결이 돌아오는 버스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처음 만나게 된 많은 여군무원들이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기만 했는데, '공군'이라는 한 공동체를 가진 소속감과 오늘 돌아보고 느낀 마음가짐이 합하여져 숙소에 들어서면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편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선열들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오늘 우리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와 서로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무원들이 함께 모여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각 부대의 특성과 근무처의 애로점을 이야기하며 서로 친화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반성과 다짐의 시간

김 상 만

상사/공군사관학교 행정부



1997년 4월 9일 수요일, 전쟁기념관에서 본 하늘은 맑고 푸르다. 아직은 봄이라 그런지 아침 공기가 제법 싸늘하지만 내 나이 30대 후반, 아직은 젊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그리 추운 날씨도 아닌 것 같다.

며칠 전 뜻하지 않게 모범사병 위로행사에 추천이 되어 전시적지 견학을 하게 되었다. 내가 과연 모범적이었을까? 단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이 나라의 군인이라는 사명감에 십수년 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하는 하였지만 내가 모범적인 군이라고는 -그렇게 훌륭한 수식어를 나를 표현하는데 쓴다는 것은 아직 무리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 것 때문이라도 그 동안 잘 해왔다고 칭찬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맙기만 하다. 그런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노라니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물려든다. 시간이 다 되었구나. 인솔자가 와서 이번 전시적지 견학의 취지를 설명한 후 전쟁기념관을 견학했다.

우리 나라 전쟁의 역사는 무척 긴 편이다. 그

리고 그 기나긴 전쟁의 역사 중 대부분은 외침에 의한 방어 때문에 치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쟁의 역사와 전쟁도구, 장비 등이 시대별로 나열되어 있어서 흥미있게 관람하였는데, 그 중 6.25 전시관 관람이 가장 인상깊었다. 아마도 내가 현역 군인이고 6.25 동란이 가장 최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간 것 같다. 동족 상잔의 비극, 그 비극으로부터 아직 우리나라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꼈다. 견학은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며 다짐했다.

“너희들에겐 결코 이 비극을 물려주지 않으리라”고.

점심을 먹고 임진각으로 달리는 버스의 창밖으로 보이는, 임진강을 끼고 구불구불 서 있는 철책은 민족의 허리를 베고 지나간 피묻은 상처의 상징이다. 가슴이 아팠다. 반드시 내 손으로 통일을 이루고야 말리라. 우리 자식세대에게까지 결코 이 비극을 전해주고 싶지 않아 나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 상념속에 어느새 버스는 임진각에 다다랐다. 버스가 임진각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검문을 한답시고 버스 문 쪽으로 화이바가 하나 올라온다. 자세히 보니 미군이였다. 이런!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나라 군인이 지나가는데 미군이 검문을 하다니... . 왠지 기분이 그렇다. 비록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방이긴 하지만 말이다. 어서 국력을 키워 진정한 자주국방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슴에 품은 채 도라 전망대에 올랐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산들이, 나무들이, 들이, 마을이 보인다. 철책 너머 지금은 갈 수 없는 얼어붙은 땅이다. 사람들이 신격화된 바보를 숭배하고 고통 속에서 전쟁준비만 하는 불행만 가득한 땅, 저 북쪽에 태어나지 않고 이곳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개성시는 뛰어서 5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깝게 보였다. 이곳은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근무하는 장병들의 얼굴에 선명하다. 휴전선 멀리 청주에서 살아서 그런지, 군인이면서도 너무 안일한 생각을 했었구나! 반성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안보현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추스르면서 전망대를 내려와 제 3땅굴을 향했다. 북괴가 지하 깊숙하게 파고 들어오는 땅굴을 발견하고 측면에서 우리측이 파고 들어간 갱도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한참을 내려가니까 널찍한 동굴이 나온다. 높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넓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이동하기 위해 이렇게 넓게 파다고 한다. 북괴가 이런 땅굴로 우리의 후방을 덮친다고 생각하니 소

름이 끼쳤다. 일찌감치 발견해서 대비했으니 다행이다.

임진각을 떠나 하룻밤을 묵은 곳은 다른 아닌 우리나라 외침 항전의 대명사 격인 강화도이다. 가족호텔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저녁식사를 한 후에 쉼한 시간이 남아서, 밖에 나와서 산책을 했다. 맑은 하늘 사이로 별들이 보인다.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나라는 하늘까지도 아름답다. 그런 아름다운 땅에 정착하신 우리 선조들도 감사하고, 무수한 외침 속에서도 그 땅을 지켜 후세에까지 물려주신 숭한 용기 있는 조상님들도 감사하다. 이 땅을 지키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도 감사하다.

문득 우리 소형이와 당회생각이 났다. 이 아빠만 믿고 편히 잠들었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전사적지 견학을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바빠 살다가 삶을 돌아볼 시간이 주어진 것에도 감사했다.

둘째날에는 오전에 강화도의 유적지인 전등사, 광성보, 초지진을 견학했다. 항몽시절의 흔적 곳곳에서 우리 조상의 자주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조선 말기에 프랑스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현장에서 진정한 전투력은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비록 북괴가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군인정신, 그리고 평소에 연마한 기술과 전투력을 갖춘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승할 것이다. 이미 선배들이 가장 열악했던 전장에서 승리함으로써 필승의 신념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던가!

점심을 먹고는 애기봉을 향했다. 가는 도중에



광성보(廣城堡) 안해루(按海樓)에서 견학자들과 함께

차창 밖으로 해병부대가 많이 보였다. 이곳은 최전방이니 군인이 많이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왠지 해병들은 더 듬직해 보이고 든든해 보인다. 아마도 해병대 출신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들의 무용담을 풀고 무수히 자랑했으리라. 조직을 떠나서도 자기가 속해 있던 조직을 사랑하는 조직은 좋은 조직이란 생각을 했다. 애기봉 365계단을 오르면서도 문득 문득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해병대 문구가 생각이 났다. 해병대가 용감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힘든 훈련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해병대의 구호 아래서 똘똘 뭉쳐서일 것이다. 사실 해병대만 그런 생각-영원한 해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공군도 한번 공군이면 영원한 공군이고 나는 인사행정 특기로서 한번 인사쟁이면 영원한 인사쟁이다. 내가 근무하는 공군사관학교 인사처의 한 장교 분도 자신이 비록 단기장교이지

만 한번 공군이면 영원한 공군이고 자신이 공군이라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 못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 공군도 해병대 못지 않은 기백과 용기가 있고 군인정신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간 곳에서는 한 해병대 장교가 우리를 반갑게 맞고 애기봉 지역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 브리핑 내용 중에 북한 주민들이 땀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갔다는 이야기가 와 닿았다. 북한 주민이 무슨 죄가 있을까? 잘못 태어나서 저리도 고생하는구나 생각이 든다. 북괴의 괴뢰정권이 미워진다. 그들이 매년 투자하고 있는 국방비의 10% 정도만 투자해도 북한 주민의 식량난이 해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다. 도대체 국민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지 전쟁만 잘하면 되는 건가. 그들은 어리석다.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다. 게다가

이대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도 엄청나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난다. 애기봉을 내려오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났다.

마지막날에는 먼저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를 견학했다. 일제가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불질러 학살했다는 현장에 서서 나라가 강해야 국민이 편안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만고의 진리를 되새기고 되새겼다. 우리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더욱 강한 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내가 노력해야 한다. 다짐을 했다. 잠시 순국한 선열들을 위해 묵념을 올리고 남양만으로 향했다.

남양 만에는 기아자동차의 생산공장이 있다. 거대한 공장이 쉬지 않고 차를 토해내고 있었다. '귀하가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드릴 때 우리는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드립니다'라고 선전하는 최고급 승용차 엔터프라이즈의 자동 생산라인을 훑어보고, 또 4km나 되는 자동차 시험장을 보고 우리 나라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저가상품보다는 고품질로 승부하려 한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사실로 다가와 기분이 좋았다.

점심은 수원에서 먹었다. 삼부자집 갈비탕이라고 했다. 맛이 일품이었다. 이런 세세한 점까지 신경을 써주는 전시적지 견학 담당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자기 직무에 성실한 것도 아름다운 군인정신 아닌가.

오후에는 삼성전자의 칼라TV 자동 생산라인을 견학했다. 우리의 발전한 모습이 보기에 좋았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는 서울로 올라와서 각자 집으로 해산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이번 견학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날에는 휴전선의 우리의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안일한 나의 마음을 반성했다.

둘째날에는 강화도-우리 선조들의 외침에 대한 항거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후세에 물려주려고 항거하던 우리 선조들의 강인한 정신을 교훈으로 가슴에 담았다.

셋째날에는 제암리를 가서 강한 국력이 없어 수모당한 우리의 상처를 돌아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군인으로서 우리나라가 강한 나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또한 남양만과 수원의 발전된 산업현장을 돌아보고 이렇듯 피땀흘려 일궈온 우리나라가 북괴의 광적인 도발로 인한 한 번의 전쟁으로 폐허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인으로 시작한 인생이 벌써 십 수년이 지나갔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지만 성실하게 군인의 길을 가야겠다. 결국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것이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우리나라가 요즘 어려운 것 아닌가! 나부터 잘하자. 이런 생각을 하니 앞으로의 군생활이 기대가 된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나에게 이런 반성과 다짐의 기회를 준 정훈공보실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글을 맺는다. **공근**

제주예선대회를 회고하며

정 상 중

중령/제30방공관제단 정훈실



지난 4월 12일, 제주도에선 처음으로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예선대회가 제30방공관제단 주관하에 치루어졌다.

공군에 대한 인지도와 항공분야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불모지에 가까운 제주도에서의 첫 대회는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 이런 아쉬움은 대회를 처음 치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감정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앞으로 새롭게 대회를 개최하는 타부대에게 참고 자료가 되고, 또한 내년 제주 예선 대회를 보다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의도에서 쓰여진다. 이를 위해 먼저 대회준비과정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설명하고, 대회결과를 분석한 후,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준비과정

당단에서는 기존에 모형항공기대회 예선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회 준비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다른 지역보다 이른, 대회 4개월여전부터 4단계로 준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각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각 단계의 성과가 다음 단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첫 대회 준비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대회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단계

당단이 이 대회를 준비하는 데는 무엇보다 대회를 주관할 단본부 정훈실이 대회 개최지인 제주도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점이 큰 난관이었다. 현지에 예하 부대가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단본부에서 주관해야 했으므로 자료 수집, 유관기관 협조 확보, 홍보 활동 등을 모두 전화와 문서로만 처리해야 했고, 필연적으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단계별 준비 계획

월	단 계	내 용	비 고
1월	자료수집단계	○ 대회장 후보지 조사 ○ 특별 행사 item 구상 ○ 대회 운영위 조직안 구상	○ 도내유관기관과 사전 협조 ○ 타 비행단 자료 수집
2월	계획수립단계	○ 대회 준비 계획 수립 ○ 대회 홍보(유관 행정기관, 학교, 언론사)	○ 공본 대회지침 접수 ○ 현지출장·답사
3월	행사준비단계	○ 참가자 접수 ○ 특별행사 참가자 준비 확인 ○ 행사비품·시설물 제작 의뢰 및 주문 ○ 행사지원요원 수성·숙박 계획 수립	○ 정훈장교 현재 부대 파견
4월	실 시 단 계	○ 제 준비사항 지속점검 ○ 비품·시설물 수급·설치 현황 점검 ○ 심판 요원 차출 및 교육 실시 ○ 운영요원 교육 실시	○ 심판요원 (SR장교과정 교육생 활용)

이에 더하여 무엇보다 대회 개최 경험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대회 개최에 대한 노하우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으므로, 예선 대회를 개최한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타 부대로부터 대회 준비 계획서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의 필수요소들을 선정하여 '대회 장소, 특별행사 아이템, 대회 운영위 구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현지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내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주 지역의 인구, 학교 수, 지리적 여건, 도내 교통편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회 장소를 물색하여, 제주 종합 경기장에 소재한 2000명 수용 규모의 '애향운동장'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축제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 행사 아이템을 선별하였다. 기존 대회에서

주로 실시한 군악대·의장대 공연, 특공무술시범, 초경량항공기시범, 무선 모형항공기 시범 등을 선정하여 공군본부의 지원 가능성 타진과 현지 동호회의 규모 및 기량을 조사하였다.

계획 수립 단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 답사를 위한 출장을 통해 실지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각종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제주도의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각종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던 제주도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성과였다.

대회일로 예정했던 4월 중순에 '제주 봄꽃 축제' 기간이 맞물려 있어서, 우리 공군에서는 도 행사에 공군 군악대·의장대 공연, '블랙이글' 에어쇼팀 공연 등을 지원하고, 도에서는 운동장 시

설물 설치, 모형항공기 대회 홍보, 각종 편의시설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 부대 외부에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지의 초경량 항공기·무선모형항공기 동호인들을 섭외하여 특별행사 아이টে임을 구성하였고,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소속 아마츄어 무선통신 봉사회로부터 자원봉사를 약속받아 지원 인력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회 장소와 프로그램이 확정됨에 따라 대회 홍보자료용 보도기사와 비디오 테이프를 언론사와 제주도청 공보실에 제공하여 신문·방송을 통한 대회 홍보에 활용토록 하였다.

행사 준비 단계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착수하여, 현지에서 실무 준비를 책임질 정훈 장교 1명을 파견하였고, 조달의 편의를 위해 현지에서 대부분의 각종 비품·시설물을 구입·제작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대회 참가 선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모형항공기 대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서 예상보다 많은 참가신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처음 홍보단계에서는 모형항공기대회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각 학교에서 공군대보다 과학교육원 주최의 과학경진대회에 치중하는 양상이었으나,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의 규모와 비중을 증점적으로 홍보하여 유도해낸 결과였다.

그리고 단본부에서 많은 행사지원요원이 파견되어야 했기 때문에 수송과 숙식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기본적으로 정기 공수편을 활용하는 한편, 특별 공수기 지원계획을 추진하였고, 현지 부대의 협소한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급식 시간 조정, 내무반 재배치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

실시 단계



대회 개막을 알리는 제30방공관제단장의 축하비행

대회가 임박함에 따라 비품 및 시설물의 수급과 설치 현황과 자원봉사자 동원계획, 특별행사 참가 동호인회 공연준비 및 에어쇼·군악의장대 공연 일정 점검, 행사지원요원 수송·숙박 계획 점검, 그리고 대회 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지 부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안내요원, 질서유지요원만 현지 부대에서 차출하고, 대회 심판요원으로는 '자기혁신 부대정신교육 장교과정' 교육생들의 교육기간을 연장하여 활용하였다.

이들 심판요원들의 교육을 위해 본부에서 발행한 경기규정을 토대로 하여 비행단에 비해 공간적으로 협소한 운동장 실정에 맞게 자체 규정을 확정하고, 심판교육용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하였다.

대회 결과 분석

이번 제주예선에는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728명 선수와 500여명의 관람객이 참가하고 성황을 이루었고, 제주도 봄꽃 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공군 본부와 도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여 그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블랙 이글팀의 에어쇼와 공군 군악대의 장대의 공연은 제주도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지역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보도되어 공군의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행사장이 도서지방인 관계로 행사지원 요원에 대한 항공수송부담이 컸을 뿐만아니라, 현지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숙식여건도 대회 운영에는 미흡하여 대대장병의 애로가 컸다.

그리고 금년 모형항공기대회는 제주도에서 처

음 실시한 관계로 준비 단계에서는 관내 교육장과 일선지도교사, 학생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특히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제주지역 예선 대회는 본선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본선 참가경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지도교사에 대한 출전지원경비도 없는 관계로 본선 참가 자격을 획득하고도 본선 참가를 대부분의 선수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해당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큰 반발과 불만이 조성되었던 점이 매우 유감스러웠다.

개선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제주예선대회는 일천한 대회준비 경험과 어려운 지원여건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지만 향후 제주예선대회가 현지에서 도민들의 호응속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 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예선대회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차후 새로이 예선대회를 주관하게 될 타 부대에게 유용한 검토사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에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대회규모의 축소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모형항공기대회 제주지역예선은 대회 개최지로의 진행요원 수송부담이 크고, 현지 부대의 지원여력이 부족한 관계로 동행사의 존속을 위해서는, 대회장을 현지 부대장으로 하는등 현지 부대주관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이벤트행사도 그



조종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어린이들

규모를 축소시켜 수송 및 숙박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진행 및 심판요원도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하여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선대회 참가자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상 본선참가에 대한 경비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선대회 결과와 관계 없이 개인경비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토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본선 참가 선수에 대한 교통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본선참가 선수에 대한 교통편 제공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내년에 제주예선이 다시 치뤄질 경우에 현지에서 금년과 같은 높은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주의 본선대

회에 참가하기 위해 항공료와 숙박비 등 1인당 출전 경비가 2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제주도민들로부터 공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선 참가자격을 개방하는 방안과 더불어 최소한 지도교사에 대해서라도 교통비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몇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 공수기를 대회 당일 청주-제주 간에 운항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보다 세밀하게 평가되어 내년도 대회 준비가 이뤄질 수 있다면,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는 명실 상부한 전국 규모의 국내 최대 항공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더 높은 하늘, 더 넓은 세계,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창공의 꿈을 키워나갈 소중한 추억을 안겨주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하루를 위한 4개월 간의 준비

김 현 준

소위/제30방공관제단 정훈실



1996년이 저물어가던 12월의 어느날, 한해를 마무리하며 자대생활 6개월은 정리하는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고 있던 차에 공군본부로부터 엄청난 소식이 날아들어 왔다.

“30단은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예선을 실시할 것!”

특기교육을 받던 시절, 선배 정훈장교들로부터 들었던 모형항공기 대회의 ‘악명’을 떠올리며 하늘이 노래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자대에 오자마자 치뤄야했던 ‘우정의 무대’에 이어 이번에는 모형항공기 대회 제주 예선 개최라니, 더군다나 우리 부대에서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 최남단의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대회를 주관해야 한다니 앞이 캄캄했다.

새해에 접어들자 일단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자료 수집에 나섰다. 우리 부대에서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대회이니 아무런 노하우도 없었고, 모든 것을 ‘0’에서부터 쌓아 나가야만

했다.

1차적으로 다른 부대에서 작성한 준비계획서를 참고하기 위해 몇몇 부대에 요청을 했다. 연락을 받은 부대의 정훈장교들은 하나같이 필자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윽고 도착한 계획서들을 분석해 보니, ‘우정의 무대’ 준비가 초등학교 운동회라면 ‘모형항공기 대회’는 전국체전 수준이었다.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은 열악한 지원 능력이었다. 제주도의 현지 부대는 워낙 규모가 작다보니 실질적인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었던 반면, 타 부대의 사례를 보니 기지 전체가 총동원되어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또한 현지 부대 규모상 기지 내에서 행사를 치를 수 없었고 민간 시설을 대여하여 이용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불편도 큰 부담이 되었다. 인력과 장비의 수송, 편의 시설 확보, 추가적인 경비 지출 등이 문제였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장소를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지도 우려가 되었다.

그리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특별행사들이 마련되어야 했다. 하지만 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단본부에서는 제주도에 문화 역량을 가진 동호인이나 클럽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마치 안개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헤매는 기분이었다.

최악의 조건에 처하자 오기가 생겼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1회 행사를 내 손으로 기획한다!' 기존에 해왔던 틀에다가 살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뼈대부터 만들어내는 작업이 줄성취감을 생각하자 힘이 났다.

일단은 기본적인 하드웨어부터 충족시키기로 했다. 비행기를 날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넓은 공간의 확보가 선결조건이었다. 장소를 정하는 데는 그동안 자기혁신 부대정신교육과정 교관으로 제주도를 서너번 방문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제주에서 10여일 생활하고 이곳저곳을 반복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제주도의 교통사정이나 지리적 특성에 대해 개략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양축으로 인구가 밀집해 있고 참가 대상이 될 학교들도 이곳에 밀집해 있다.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고, '교통편'이 원활하며 '넓은 공간'이 확보되는 곳을 꼽아 보았다. 제주시 인근의 목장, 학교 운동장, 해변의 넓은 공터 등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다가 가장 많은 요건을 충족시킨 제주 종합경기장을 임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모형항공기대회는 기록경기이므로 선수들의 기록을 측정하고 이를 합산·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대회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터를 지원 받을 길이 막막했다. 몇 대 되지도 않는 현지 부대의 컴퓨터를 반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단본부에서 컴퓨터를 공수해 올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일단은 제주에서 컴퓨터 대여점을 찾아 보기로 하였다.

특별행사로는 '무선모형항공기 시범'과 '초경량항공기 시범'을 현지에서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제주지역 동호인들을 찾아 나섰다. 한국 모형항공 협회를 통해 제주지역의 동호인들을 알아보는 한편, PC통신의 무선모형동회에도 전자메일을 보내 제주지역에 대회 홍보와 협조를 의뢰하였다.

이 때부터 나의 머리 속에는 '제주도'가 떠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에 신문스크랩을 할 때에도 '제주'라는 단어만 보이면 눈이 번쩍 뜨였다.

모든 조사를 전화상으로만 해결해야 했으므로 한국통신에서 제주지역 전화번호부를 구해서 하나하나 탐문하는 지루한 작업을 계속했다. 체신 전화 한대 없이 매번 교환을 통하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공중전화로 뛰어가서 제주까지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탐문해나가길 매일 수십 차례... . 왜 이리 결번인 전화번호는 많은지 성과도 없이 자꾸만 시간은 흘러갔다.

원격지에서 책상에 앉아 조사하는 작업은 너무나 빨리 벽에 부딪혔다. 사무실에서는 더 이상의 진척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기본적인 조사가 끝나자 '출장계획'을 세웠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는 모든 것이 지지부진한 채로 원점에서 맴돌 수 밖에 없었다.

2월 중순. 정훈실장님과 출장길에 올랐다. 현지에 도착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 제주도청

에서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봄꽃축제'라는 이벤트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이벤트와 우리 대회를 연계하면 여러모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내리고 도청 관광진흥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우리가 내세운 카드는 군악대와 의장대 지원이었다. 도청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각종 공연, 마라톤 대회, 시가행진 등을 기획하고 있었다. 이런 이벤트에 공군 군악대와 의장대가 참가하고 대신 도청에서는 차량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다. 현지 부대의 열악한 수송능력 때문에 군악대와 의장대를 초청하고 싶어도 쉽게 결정을 못내리던 우리는 수송문제가 해결되자 큰 소득을 얻은 셈이 되었다. 게다가 우리 대회뿐 아니라 도청 행사를 연계하면 공군 홍보 차원에서 '블랙이글' 에어쇼팀을 초청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히 생긴다는 판단에 에어쇼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것은 정말 예상외의 수확이었다. 빈약한 특별행사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기미가 보였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제주 종합 경기장이었다. 전화로 확인했을 때와는 달리 우리가 요구했던 5월 10일 또는 11일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다. 난감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던가. 실장님과 달력을 들여다 보며 고민에 빠져 있는데, 4월 12일(토)이 눈에 들어왔다. 4월 13일(일)은 '제주 시민 국제마라톤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제주도청에서는 이 대회를 올해 들어 그 규모를 확대하여 하와이 마라톤이나 보스턴 마라톤에 버금가는 대회로 육성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더욱이 그 출발장소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기로 한 제주 종합경기장이었다. 우리 대회 날짜를

4월 12일로 확정하여 4월 12~13일은 하늘과 지상의 축제가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홍보하기로 도청과 합의를 하였다.

장소와 날짜가 확정되고 군악·의장대와 '에어쇼'라는 아이টে모 추진키로 결정하자 큰 짐을 덜은 것 같았다. 이제는 가장 모험항공기대회다운 특별행사인 '무선모험항공기시범비행' 동호인들과의 만남이 남아 있었다. 아직까지 제주에는 동호인들의 수나 활동이 활성화되지는 않아서 다채로운 묘기 시범은 기대하기가 힘들었으나, 그래도 시범행사의 구색을 갖추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았다. 여기서도 기대치 않았던 수확이 있었다. 이들 동호인들을 통해서 '초경량항공기' 동호인들을 알게 된 것이었다. 어렵사리 이들과 연결이 되어서 계약을 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공연료를 요구해서 쉽지는 않았지만 달리 기획할만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도 또 하나의 예기치 않았던 수확이 있었다. 행사 지원 인력 부족을 해결할 방편으로 다량의 무전기를 임대하기로 했었는데, 초경량팀을 통해서 적십자사 무선봉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무선통신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지원까지도 가능하더니 정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자 즉석에서 보도기사 자료를 수정하여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현지 언론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에어쇼'를 추진한다는 점이 크게 어필했다. 출장은 성공적이었다.

3월 19일, 현지에서의 행사 준비를 위해 제주도 파견을 나갔다. 대회까지는 이제 한 달, 한



제1회 제주대회를 축하하는 초경량비행기 시범

달전에 확정했던 사항들을 일단 다시 점검해 나갔다. 도청과의 협조, 대회장 임대, 동호인들과의 계약 등등 예정되었던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는 각 학교에 홍보를 하고 대회참가를 적극 유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현지 부대에 새로 체신전화를 가설하고 제주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일일이 전화를 걸고 대회 안내를 했다.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큰 벽에 부딪혔다. 모형항공기대회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었다. 이미 공문을 발송했지만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지조차 모르는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회보다는 과학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과학경진대회'에 더 비중을 두어 우리 행사에는 불참하겠다는 학교도 많았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의 규모, 그리고 이 대회의 전통 등등을 설명해주며 홍보했지만, 과연

얼마나 참석을 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 전 학교에 홍보 전화를 마치고 나자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홍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자잘한 행사 비품들을 제작하고 구입해야 했다. 단본부에서 구입할 경우 수송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각종 표지판을 제작하고, 시상 자용 상품을 구입하고, 현수막을 도안해서 주문하는 일은 한정된 예산을 아끼려고 이리저리 가격을 비교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손이 많이 갔다. 같이 내려간 정훈병 한명과 둘이서 일을 하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또 현지 부대에서 대회 전후로 내려올 운영 요원들에 대한 수송·숙박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한된 수용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부담이 지워지는 상황에서 치밀한 계획이 없이는 막상 행사에 임박해서 어떤 혼란이 발생할 지 모를 일이었다.

내무반을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내무실을 재배치하고 식사 시간 조정 계획을 세웠다.

3월 말이 되자 참가 신청서가 도착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 역시 언론의 힘은 컸다. 신문과 방송에서 모험항공기대회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여러 언론에서도 모험항공기대회와 에어쇼에 대한 취재 문의가 연일 이어졌다.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이때부터 들기 시작하자 몸은 바빠도 마음에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참가신청을 마감하고 참가증 제작에 들어갔다. 현지 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겨우 두 대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낮시간에는 다른 작업들을 하느라 우리 일만을 위해 독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800명에 가까운 인원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입력하고 참가증을 출력하는 작업을 야간에 밖에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참가증 양식을 따로 대량 인쇄해 놓은 게 아니어서 양식까지도 일일이 프린터를 사용하여 찍어내야 했다. 털털거리며 돌아가는 도트 프린터와 함께 며칠 밤을 지새워야 했다. 수시로 열이 받아 멈춰 버리는 프린터 헤드에 얼음 주머니를 올려 놓고, 부채질을 해가며 작업을 했다.

이제 대회는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무실 한쪽 켠에 산처럼 쌓여 있는 상품더미들, 그리고 차곡 차곡 포개진 수십개의 행사포지판들이 이 대회를 위해 지내온 시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다. 잠시 숨을 돌리고 싶었다. 현지 부대에 근무하고 있던 동기와 함께 주말 드라이브를 나갔다. 한참 물이 오르고 있는 유채꽃이 가슴 뭉클할 정도로 아름답게 느껴졌다. 에머랄드 빛 바다와 푸르른 하늘, 상쾌하게

이마에 부딪히는 남도의 해풍... 언덕 위에 놓여진 지중해 풍 백색 건물의 식당에 앉아 금빛으로 물결지며 부서지는 낙조를 바라보며 이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멋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하게 되었다. 마지막 주, 대회는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단본부에서 운영요원들이 내려오기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 하나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현지 부대에서 할당된 임무를 재지시하고 수송·숙박계획, 운동장 시설 설치 작업, 학교별 안내문 발송, 대회장 배치도 작성, 심판 교육용 교안 작성, VIP 접대계획, 자원봉사사 교육, 언론 홍보 상황 점검 등, 정신없이 한 주가 지나갔다.

드디어 대회일. 4월 12일이 밝아 왔다. 불과 한 두시간 사이에 날씨가 급변하는 제주도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쾌청했다. 만약에 비로 인해 대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사 자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도저히 단본부에서 다시 운영요원들을 데려올 방법이 없었고, 4월 12일 이외에는 제주종합경기장도 빌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경기장에 도착해 보니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었다. 걱정스럽기 그지 없었다. 과연 비행기들이 제대로 뜰 수 있을까? 게다가 이번 대회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던 에어쇼도 걱정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대로 묘기를 보여줄 수도 없을텐데...

개막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과 관람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병아리떼처럼 설새없이 재잘대며 몰려다니는 아이들, 행사장 구석구석을 정리하느라 부산한 장병들, 무전기를 들고 내빈들을 영접하느라 바쁜 안내 장교들, 어렵사리 빌려온 노트북 컴퓨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하느라 부산한 기록실 요원들……, 대회시작을 앞두고 긴장된 가운데에도 이 모든 정경들에 팬시리 마흔한 구석이 몽클해져 왔다.

군악대의 개막연주에 이어 의장대의 시범행사가 펼쳐지자 경기장은 축제 분위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곧이어 블랙이글팀이 상공에 나타났다. 아무런 말이 필요 없었다. 강풍이 부는 가운데 블랙이글팀은 기기묘묘하고 현란한 에어쇼로 모든 이들을 사로잡았다.

이제 식후 행사가 끝나고 본 경기에 들어갔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경기 진행 책임자로서 마이크를 잡고 심판들에게 경기시작을 지시했다.

첫 경기는 글라이더 1부. 우려했던 대로 강풍 때문에 제대로 뜨는 비행기가 드물었고 끄는 줄이 빠지지도 않은 채 대부분 땅바다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심판들이 다급하게 무전으로 연락해 왔다. “글라이더에서 끄는 줄이 빠지질 않습니다!” 부리나케 경기장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사전에 교육을 시켰는데도 선수들이 바람의 방향을 생각 안하고 대부분 바람을 등지고 비행기를 띄우고 있었다. 다시 본부석으로 돌아와 날리는 요령을 방송하고 경기를 지속시켰다.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까지도 기록은 저조해 보였다. 바람이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았다. 생전 처음 해보는지라 서투르기만 했던 심판들도 이제 차츰 능숙하게 선수들을 이끌고 있었다. 조금씩 마음이 놓여 갔다. 특히 적시자사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이 활약이 눈부셨다. 각종 봉사활동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라 우리가 의뢰한 심판조와 본부석 간의 통신 외에도 선수들 정렬에서부터 비행 기록 기입, 본부석으로 기록지 전달, 의료지원 등 너무나 큰 도움을 주었다.

전반부 경기가 끝나고 후반부 경기에 앞서 무선 모형항공기와 초경량항공기 시범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바람은 거세어지고 모래가 눈을 때렸다. 그 와중에도 동호인들은 갖가지 묘기를 보여주어 참가자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특히 초경량항공기 동호인들은 비전문가인 내가 보기도 무리가 따르는 상황에서 운동장에서 비행기를 이륙시켜 탄성을 자아냈다.

고무동력 4부 경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경기가 종료되었다. 이제는 경기기록을 산출하고 시상식을 준비해야 한다. 기록실은 경기기록을 입력하고 성적을 출력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밖에서는 성적을 빨리 가져오라고 독촉을 하고 작업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모두들 신경이 곤두서게 되었다. 성적 산출이 끝난 부문부터 입상자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 글라이더 3부 입상자 발표가 나가자 몇명의 선생님들이 기록실로 들이닥쳤다. 성적이 잘못 집계되었다는 것이다. 더 좋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오히려 입상을 못했다는 것이다. 순간 목덜미가 뻗뻗해졌다. 손으로 기입한 기록표와 출력한 결과를 비교했다.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 분명히 입력했던 데이터 중 일부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일단 사과를 하고 기록을 재입력하고 결과를 재산출했다. 성적처리 프로그램과 윈도우즈 95 간에 충돌이 일어난 것 같았다.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설명하고 정정된 결과에 따라 시상을 하는 것으로 사태를 간신히 무마할 수 있었다. 그 바람에 대회가 끝나고 텅빈 운동장을 바라보며 지난 4개월을 정리하며 상념에 젖고 싶었던 필자의 계획은 막바지에 발생한 해프닝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경기장 정돈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자 먼저 와있던 동료들이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다. 모두들 피약별과 모래바람에 검게 그을리고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행사를 잘 치뤘다는 뿌듯함이 얼굴에 배어 있었다. 그동안 쌓인 피로가 물밀듯 밀려오는 듯했다. 모처럼 흥분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다음날 출근을 하니 지역 신문에 상세하게 대회결과가 보도되었고, 제주지역에 오래 근무한 장병들은 이번 행사로 도내에 공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나중에 커서 공군사관학교에 가겠다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들 했다.

대회를 준비했던 4개월의 시간들이 하룻밤의 꿈만 같았다. 책상 위에 수북히 쌓인 서류철과 아직 배포를 못한 상장과 상품들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았다. 현지 부대에서 뒷정리를 마치고 단본부에 올라와 대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가 되어야 조금 냉정하게 결과를 정리할 수 있었다. 완벽한 기획과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지향했지만 돌이켜보면 좀더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제 대회 결과에 대한 몇가지 소회를 덧붙이면 나의 군대 생활에 가장 큰 추억이 될 모형항공기대회 준비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모형항공기대회 예선을 신설할 지역이 있다고 한다. 추가 개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전에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다. 이번 대회 준비에서도 드러났지만 군내에서 지원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고, 별도의 준비 요원이 파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다른 부대와 달라야 할 것이다. 우선 경기장 임차료, 수송비 부담, 쓰레기 수거차량 대여, 출장비 등 추가 지출 항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에서처럼 본선 참가를 위해 개인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비 지급 계획 또는 항공기 제공 등 보완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실무진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히려 사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게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모형항공기대회 제주 지역 첫 예산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4월의 어느 날, 서북쪽 하늘에 긴 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혜성처럼 긴 여운으로 '제주'는 여전히 나의 가슴 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기획하면서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너무나 많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제8546부대 가족들, 열정적인 추진력으로 여러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실장님, 그리고 정훈실 전 요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보다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 신병으로 30단에 전입오자마자 행사 지원요원으로 차출되어 제주도에 한 달간 수많은 밤을 함께 지새우며 열과 성을 다해 대회준비를 하고, 지금은 격오지 사이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석준 이병의 앞길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등문**

하늘에 꿈을 싣고



양 보 현

교사/제주한림초등학교

2분40초!

시력이 나쁜 나의 눈에는 점으로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산 너머로 멀리, 점점 사라져가던 글라이더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군인 아저씨의 스톱 위치는 사정없이 놀러졌다.

비행시간 2분 30초! 정말 감격스런 순간이었지만 불안한 마음이 마음 한 구석에서 떠나질 않았다. 처음 출전한, 그것도 바다 건너 해외(?)에서 참석한 우리 애들에게 입상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힘든 대회였다.

결과를 기다리기 지쳐 본부석 주위를 맴돌던 진우가 컴퓨터 프린터기에 출력된 글자를 살펴 보고는 와서,

“선생님, 처음에 선생님 이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고 걱정이 되었다. 잠시 후 게시판에 ‘글라이더 2부 금상 오진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도 모르게 진우를 얼싸안고 기쁨의 환호를 지르고 말았다. 금상이란 기쁨이 우리에게

게 주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을 나 혼자 씹어 삼겨야만 했던 아픈 날이 연속이었다.

공군참모총장님께서도 개회사때 언급하셨듯이 제1회 제주도 모형항공기대회는 분명 성공적인 대회였다. 수많은 학생들, 부모님과 친척들까지도 경기장인 애향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또한 시종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치루어졌다. 그러나, 바람이 많다는 제주의 날씨를 뽐내듯 거센 바람은 모형 항공기를 여지없이 꺾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1회밖에 날릴 수 없으며 그것도 지도 교사는 보조하지 못하고 군인 아저씨들이 보조해서 날리는 것이었다. 화가 치밀기도 했다. 그러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학교에서의 연습이 있었기에 글라이더 부에 7명이 참가하여 6명이 입상을 하였다. 100명 가까이 참석한 어느 학교에서도 생각 못하는 숫자였다.

입상한 모든 어린이들은 전국 대회에 참가할 것이라는 방송을 듣는 순간 우리 애들은 모두 탄성을 질렀다. 그 뒷날부터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애들은 글라이더 만들기 수십 회, 학교 건너 건물 뒤쪽으로 날려 보내버린 글라이더 찾기 30분, 나무 위에 걸린 글라이더를 내려놓기 위해 나무에 오르기를 또 여러 번,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 세계 일류 공군의 푸른 꿈을 펴는 공군사관학교에 간다는 꿈은 시골 어린이들에겐 평생 잊지못 할 최고의 감격이었던 것이다.

참가증은 받았지만 언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궁금해 알아보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자체적으로 참가하라는 것이다.

저 파란 하늘보다도 더 고운 어린이들의 꿈이 와르르 물거품이 되고 마는 순간이었다.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점점 들었다.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는 생각 그 자체보다는 7명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파란 꿈은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언제나 열린 교육에 몰두하시고 어린이들 마음을 헤아리시는 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후원과 학부모들의 도움으로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다.

5월 17일 오후 청주행 비행기를 탔다. 찢어질까, 휘어질까, 꺾어질까, 염려스러운 모험 비행기를 들고 여관을 찾았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여관이 모두 만원인 것이다. 물고 또 물어 찾아간 여관도 방이 1개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그 여관에 들어 지친 몸을 설세도 없이 찢어지고 휘어진 모험비행기를 조립하고, 거지 옷처럼 테이프로 이곳 저곳을 붙이고는 벽걸이, 선풍기 줄 등에 모험비행기 14대를 걸고 하루 밤을 지냈다.

드디어 날이 밝았다. 우린 아침도 건성으로 챙겨먹고 다소 일찍 공군사관학교를 찾았다. 텔레비전으로만 한두 번 본 공군사관학교에 상처투성이의 비행기를 들고 운동장에 들어 선 순간, 나 자신부터 몸이 오그라드는 열등감(?)에 사로

잡히기 시작했다. 애들까지도 연습은 커녕 하늘 위에 오래 떠 있는 다른 어린이들의 비행기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 하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국내 최대의 항공 축제에 2천 여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참석한 것이다. 물론 교사, 부모, 가족들까지 합쳐 약 이만여 명이 공군사관학교를 메우고 있었다.

‘더 높은 하늘로,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 대회에 제주도에서는 처음 참석한 것이다. 그것도 많은 경비로 해서 다른 학교에서는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다.

대회에 앞서 펼쳐진 한국 최초의 특수 곡예 비행팀인 ‘블랙이글’의 공중 곡예와 동력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의 합동 축하 비행 등은 파란 하늘에 수놓은 하나의 예술품임에 틀림이 없었다. 대회 결과에 관계없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장면들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씩씩한 공군 사관 학생들의 행진 모습, 스커트를 입은 최초의 여자 생도 모습도 보기 좋았다.

이윽고 우리는 경기에 돌입했다. 오전에 예선, 오후에는 결선을 가졌다. 예선, 결선을 어떻게 치렀는지 정신이 없었다. 심사가 나오기까지 공군 의장대의 시범이 있었다. 국군의 날 TV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 더구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부르는 군악대와의 시간은 열린 음악회에 참가한 것 같은 착각까지 들 정도였다. 지휘자의 인자한 미소는 군인이 아닌 예술가의 모습을 엿보게 하였다.

지친 시간 속에서 해매던 기간들! 가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 낯선 여행에 대한 두려움, 모자라는 잠자리, 이 모두가 과연 금상이란 상 하나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의문만큼이나 나름대로 보람도



시상식에서 참모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제주한림초등학교 오진우 학생

있는 것 같다.

작년 교육부 주관 전국 재능겨루기대회 때는 한 어린이만을 데리고 여유있는 예산을 갖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주도 대표라는 자긍심을 갖고 한강 고수 부지에서 날개를 힘껏 펼쳐 동상을 받았는데, 이 기쁨은 고통이 없었던 순수한 기쁨뿐이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대회가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어린이들에게 하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희망의 항공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금상, 은상에 입상한 어린이들만이라도 공군에서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여건상 더더욱 그러하리라.

제주지역 학교에서는 참가할 경비가 없어 이 대회를 무관심하게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왕복 비행기값, 숙박비 등을 학교에서 부담하기에도 학부모에게 떠넘기기에다 여의치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사정으로 제주도에서는 그리 많이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음 번에도 이 대회에 참석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하늘에 대한 동경심과 희망을 심어줄 것이

다. 앞으로 공군에서 금상, 은상에 입상한 어린이들만이라도 배려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상을 받아서 좋기는 좋지만 상을 못 받은 우리 어린이들 가슴 속에도 푸른 잔디밭과 하늘에 둥실 떠 있는 모형 항공기를 기억할 것이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공군 아저씨들을 찾아 볼 것이다. 더 높은 하늘로,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미래로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언젠가는 ‘빨간 마후라’ 노래를 부르며 옛일을 생각할 것이다.

그 중에 어느 한 학생이라도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다면 운동장에서 옛날 모형항공기를 날리던 때를 더듬어 볼 것이다.

어쩌면 모형 항공기가 아닌 진짜 항공기를 타고 저 푸른 하늘을 나를 것이다.

하늘에 꿈을 싣고 마음껏!

미래의 꿈을 실현한 어린이들이... ..

끝으로 제주지역대회를 개최하고 본선에까지 초청해주신 참모총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등극**

공군참모총장님께!

— 인자하신 얼굴과 크고 부드러운 손의 감촉을 느끼며 —

오진우

6년/제주한림초등학교



필승!

군인 아저씨들처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맑은 하늘이 상쾌한 하루를 맞이하게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18일 열린 '제 19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글라이더 2부에서 금상을 받은 학생입니다. 시상식 때 총장님이 축하해주시며 굳게 잡아주신 커다란 손의 감촉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파란 하늘을 지켜주시는 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들 어린이들은 공군 아저씨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 아저씨들 덕에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제주시에서 40km 떨어져 있는 시골 학교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어느 학생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저는 4학년 때부터 과학의 달에는 항상 모형항공기 대회에 참가하여 줄곧 상을 받아 왔었지만 이번만큼의 큰 상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갖는 제주도 예선에서의 입상은 한라산

까지 뛰어오를 정도의 기쁨을 제게 주었지만, 대회에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지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큰 파도 소리만큼이나 한숨을 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아랑곳없이 우리들은 꾸준히 만들고, 날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린 우리들의 초조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는가 봅니다. 글라이더도 우리들의 마음을 아는지 오래 날지 못하고 금방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들의 부푼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교장 선생님께 간절한 부탁을 드린 결과, 부모님들이 왕복 비행기표를 사고 그 나머지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등은 학교에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넓은 마음에 우리 7명의 선수들은 과학실이 떠나라고 함성을 질렀고, 수없이 많은 글라이더를 파란 하늘 저쪽으로 날려보내며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모형 항공기가 아닌 진짜 비행기를 타고 청주에 도착해 여관에서 모형비행기들과 함께 하루

밤을 지낸 후, 2천여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파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글라이더를 멀리멀리 날려 감격의 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파일럿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가슴에 간직하고서 4학년때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한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지도 선생님의 헌신적인 지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지도 선생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큰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여관이 없어 고생한 것을 아신 한일민 선임하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우리 집에라도 와서 자도록 할 것을…….”

걱정해 주시는 말씀에 큰 위안이 되었고, 그 고마운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는 그 순간까지 선임하사님은 편히 갈 수 있도록 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시고 전송해 주신 것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총장님께서 대회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처음 개최한 제주도 예선 대회를 성공리에 끝내도록 도와준 제주 도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저는 총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선 대회가 있었기에 본선대회에 참석을 할 수 있었고, 꿈에도 못 이룰 금상을 받게되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의 미래의 꿈을 결정해주셨고 학교엔 명예를, 부모님께는 자랑스러움을, 그리고 지도 선생님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이 모든 것이 총장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대회에서 사관생도 형과 누나들의 능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된 것이 금상을 받은 것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그

러기에 저는 그날 이후부터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고, 공군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이 하나, 둘 생겨나는 궁금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공군사관학교 형과 누나들의 제복과 모자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도 앞으로 6년 후에는 꼭 공군사관학교 학생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운동도 해서 꿈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모형 비행기지만 자기 몸처럼 조심히 다루어라.”

지도 선생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열심히 하면 전국에서 1등인 금상을 타듯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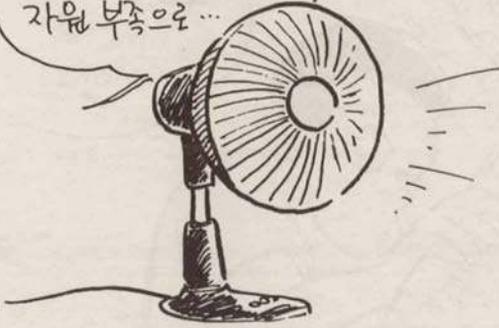
굳게 잡아 주시며 축하해주신 그 기쁨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파일럿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자하신 총장님의 얼굴과 크고 부드러운 손의 감촉을 느낍니다. 총장님은 비록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조금도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총장님께서 사관학교에서 가장 씩씩하고 능률한 6년뒤의 제 모습을 떠올리실테니까요.

그럼 총장님 안녕히 계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오진우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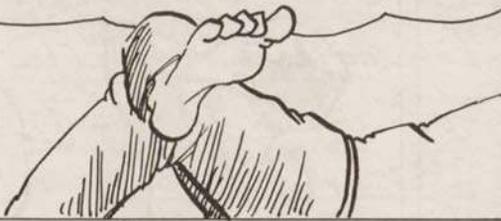
지속적인 경제불황과
자원 부족으로...



수통만

고석현

각기업및 가정에서는
물자와 소비절약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동결업체
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큰일이야...



간혹 경제가
불황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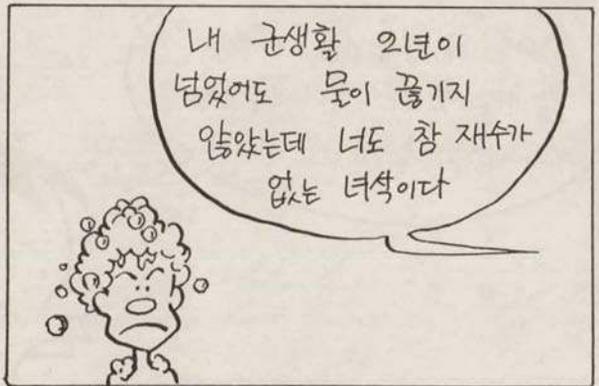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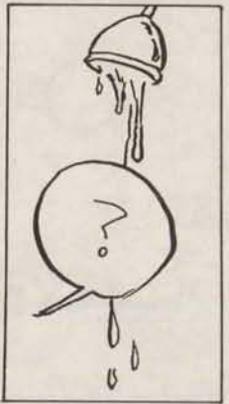
그러고 보면 군대는 참
좋아. #군속의 풍요나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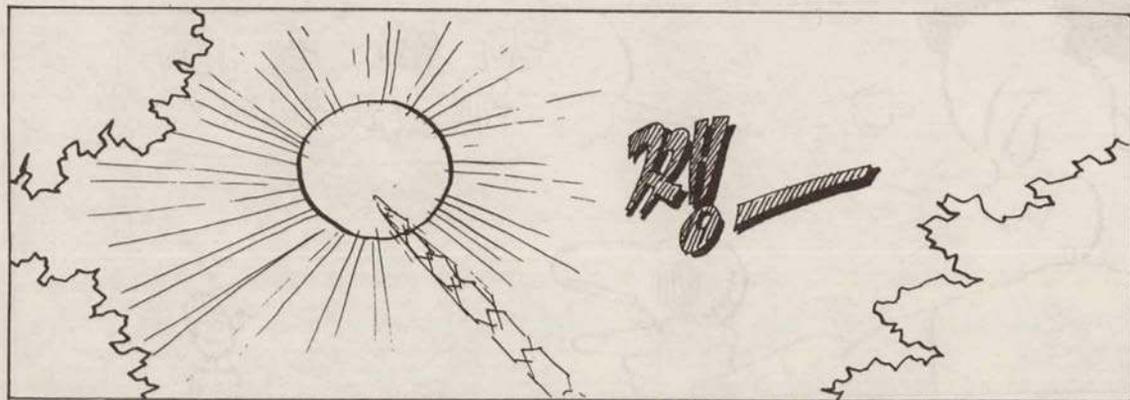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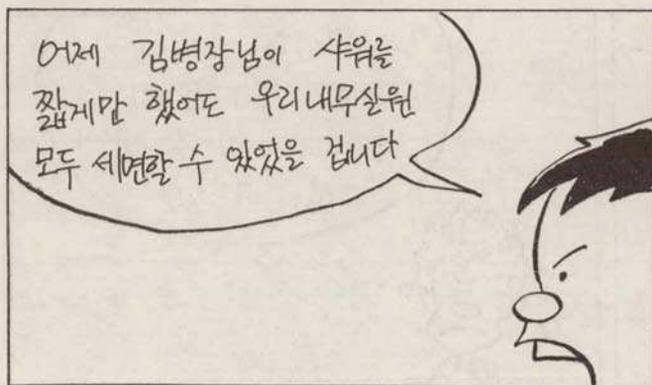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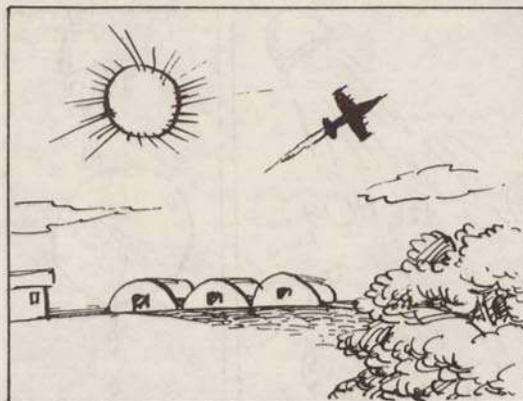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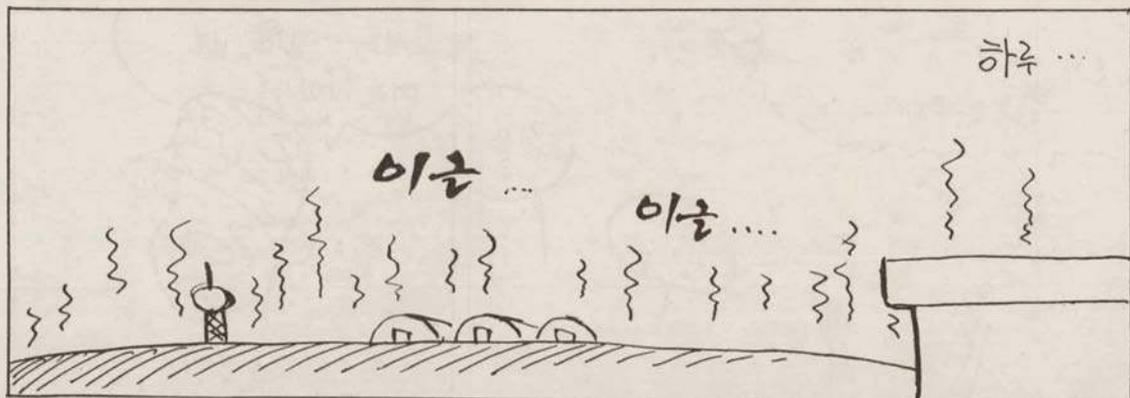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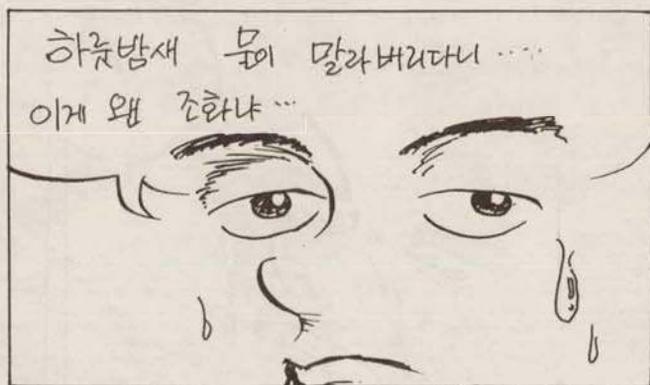
밥줘... 물 펄펄나타...
전기... 연료 풍부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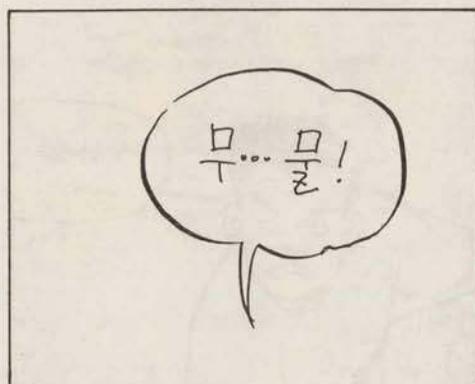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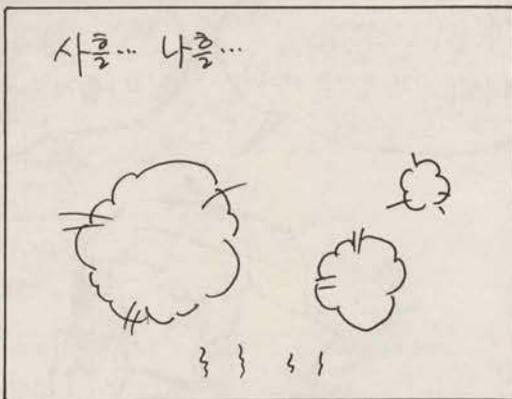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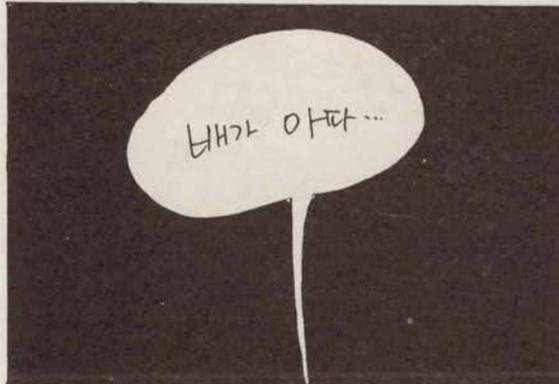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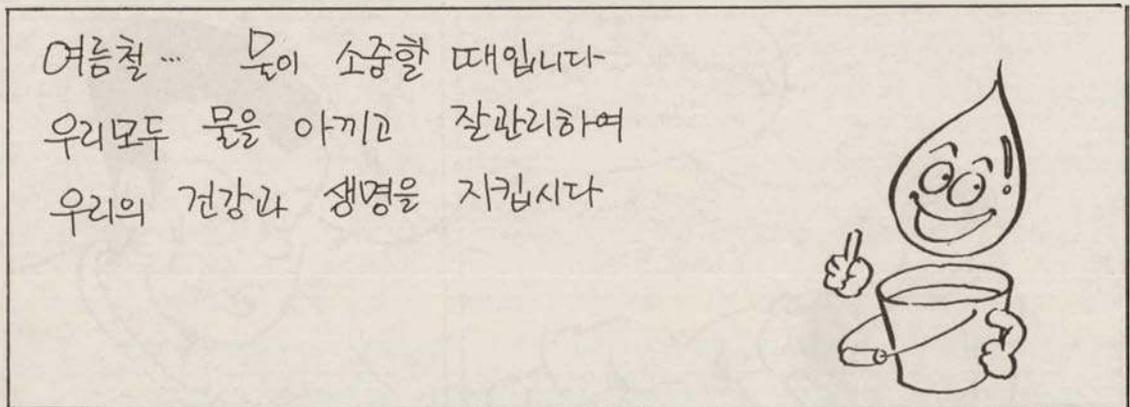












패러글라이딩에 대하여

서 재 석

원사/제6637부대 전투정보대



하늘에 자신의 발자국을 찍어보지 않은 사람은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의 묘미를 알 수 없다. 산을 넘고 강을 따라 골짜기를 자유스럽게 날아다닐 수 있는 즐거움은 PARAGLIDER만이 즐길수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과 더불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PARAGLIDING은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인간의 진취성과 도전성을 심어줄 수 있는 멋진 레저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PARAGLIDING은 연령, 성별, 운동신경 및 계절 등에 제약이 거의 없는 레저 스포츠이므로 여름이 가기 전에 누구나 도전해볼 만하다. 그러나 두려움은 과감히 사양해야만 하는 레저 스포츠가 바로 PARAGLIDING이다.

PARAGLIDING의 유래는 1960년대 중반 미국 NASA 연구소에서 PARAGLIDER의 원형인 PARA FOIL이 발명되었으며, 1978년 프랑스의 한 등산가가 스카이 다이빙용 낙하산으로 산꼭대기에 처음 이륙한 것이 PARAGLID-

ING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1985년부터 보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묘미를 즐기는 인기 레포츠의 한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PARAGLIDING 장비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각형 낙하산에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것이 이제는 대부분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보다 큰 가로세로비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 보다 멀리, 보다 높이, 보다 오래 비행하고자 하는 활공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PARAGLIDING은 사각형 모양의 스카이 다이빙용 낙하산을 모체로 활공성능과 조정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초승달 모양(레몬 컷)의 날개로 발전하였다. 공기 투입구를 통하여 날개 내부로 들어온 공기압에 의해 부풀어 진 날개의 단면도 점점 얇아지면서 속도와 활공

비가 월등해져 각각 45~50km/h, 활공비 8:1 정도까지 향상되었다.

이렇게 공기로 채워진 날개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십 가닥의 줄(서스펜션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위치별로 줄을 구분하여 줄묶음(라이셔 뭉치)이 되어 있어 비행자가 착용하는 하네스와 카라비너(연결고리)를 통하여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캐노피에 연결된 줄은 비행자를 매달 뿐만 아니라 캐노피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종은 캐노피 후미에 연결된 산줄가닥을 좌우로 나누어 한 줄로 연결한 조종줄에 의하여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체중이동을 적절히 사용하여 조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PARAGLIDING 세계 최고기록을 보면 비행 거리로는 251.6km, 체공시간은 11시간30분을 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비행기록은 그리 좋지 못하다. 기껏 30km 정도의 거리 기록밖에 못내고 있는데 이는 산이 작고 상승기류가 약하다는 면도 없지 않지만 워낙 좁은 국토에 오밀조밀한 산과 장애물이 많고, 비행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내릴만한 넓은 공지가 없어 마음놓고 멀리 날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 중순 이후부터 이듬해 4월말까지는 농한기이기 때문에 비상 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 들판이 무궁무진하게 있고, 기류도 순조로워 장거리 비행에 적기이다. 따라서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도전해 볼 직하다.

PARAGLIDING은 교육방법, 교육시설, 장비가 발달해서 아주 쉬워졌으며 남녀노소 할것 없이 배우기 쉬운 레저 스포츠로 굳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PARAGLIDIER를 1만 미터 상공까지 끌고 올라가버리는 무서운 난기류 등도 상대해야 하는 격렬한 스포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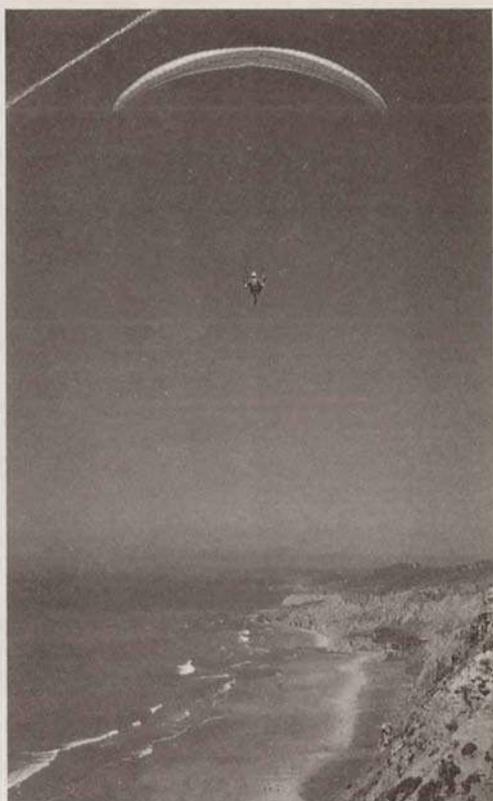
그러므로 안전한 활공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이론과 실기 등 약 30시간(4~6일) 이상을 받아야 하며 교육과정의 내용은 비행의 원리, 비행의 기초, 비행의 응용, 항공법규, 항공공학, 항공기상과 항법 등의 지식을 배우며, 장비의 사용법과 사용후 관리 보관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지상교육, 초급비행 등을 실습과 병행하여 받아야 한다.

PARAGLIDING을 단지 산 정상에서 이륙하여 평지에 착륙하는 단순 스포츠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처음 PARAGLIDIER를 손에 잡고서 이륙하는,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은 매우 감동적이지만 이것은 PARAGLIDING이라는 스포츠의 문을 조금 두드린 것에 불과하다.

PARAGLIDING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스포츠이며 하늘에 떠올라 부유감을 즐기면서 여유있게 하늘 산책을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다.

PARAGLIDING의 기본 조작을 습득하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비행하게 되므로 행동범위와 자연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하늘 위에서의 즐거움 또한 배가될 것이다. 특히 상승풍을 타고 이륙지점보다 높게 올라가 자기가 이륙한 지점을 내려다 보았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PARAGLIDING을 즐길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해안비행

탠덤 플라이트(TANDEM FLIGHT)

2인1조로 하늘을 나는 탠덤 플라이트는 단독 비행과는 달리 둘이서 호흡을 맞춰 이륙하게 된다. 연인을 태우고 공중 데이트를 즐기는 것도 낭만적이다.

해안 비행

해풍에서 바다 내음을 맡으며 감동적인 비행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해안 비행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도 PARAGLIDING로 날기에 좋은 지역이 몇군데 있으며 착륙할 것을 생각한다면 멀리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소어링(SOARING)

하늘이 맑게 개인 창공을 독수리가 원을 그리면서 날고 있는 것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어링(상승비행)이다. PARAGLIDING의 기본 조작을 습득했다면 다음 도전 단계는 상승 비행, 즉 기류를 이용한 소어링 비행을 시작한다. 소어링에는 경사면을 이용한 리지 소어링(RIDGE SOARING)과 열상승풍을 이용한 서멀 소어링(THERMAL SOARING)이 있으며 소어링에 의해 높은 고도로 비상함으로써 장시간 비행과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게 되고, 이때 바람이라는 에너지를 날개에 받아 더욱더 위로 올라가는 감각을 체험하게 되어 또 하나의 PARAGLIDING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CROSS-COUNTRY

PARAGLIDING이 유행인 유럽에서는 CROSS-COUNTRY가 매일 행해지고 있다. 지난 90년 12월, 프랑스의 다자베 레몬이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직선거리 150.64km의 장거리 기록을 달성했고, 같은 해 5월 오스트리아의 바하 마리는 목적지 왕복거리 64.28km를 달성했다.

CROSS-COUNTRY는 상승풍 소어링을 연속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고 상승풍에서 고도를 획득한 후 다음 상승풍까지 이동하는 테크닉을 사용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도의 기술과 기상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과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고 단독으로 비행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삼가해야 한다. 적절한 지도 아래 조금씩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SOARING

PARA SKI

겨울레포츠의 꽃은 역시 스키다. 그러나 요즘에 일반 스키는 이미 식상해졌다고 할 수 있다. 신세대를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좀더 색다른 스키를 경험해보고 싶어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PARA SKI'이다. 이는 PARAGLIDING과 SKI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레포츠로, SKI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다 보면 등에 메고 있는 PARAGLIDER가 확 펼쳐지면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다. 발 아래

에는 눈덮인 설원이 내려다보이고 앞에는 저 멀리 크고 작은 산들이 병풍같이 펼쳐진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들이 개발한 'PARA SKI'는 그때부터 알프스 산맥에서 조난당한 스키어들을 구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다가 레포츠로 정착됐다. 우리나라에서는 3년 전부터 PARAGLIDING 동호인들을 주축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 PARAGLIDING 자격증과 관련기관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자격증은 대한 항공 협회에서 전문강사 및 교육단체의 일정에 다른 강습을 마친후 평가 결과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등급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격증 구분

- A급 POILOT(초급연습조종사자격증)
- B급 POILOT(중급연습조종사자격증)
- P급 POILOT(활공스포츠참자격증)
- INSTRUCT(활공지도자자격증)

자격증 발급시 평가조항 및 필수 구비 능력

종 류	A 급	B 급	PILOT급
필수구비 능력 및 평가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 비행 이론 • 장비 취급 요령 • 지상 주행 • 이륙,착륙 실시 • 공중 조종법 • 자유 비행(1분 이상 체공) • 왼쪽,오른쪽 90° 회전 • 정해진 착륙장 : 50M 이내 착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역학,구조학,기상학, 항공법규 • 단독안전착륙 • 안전착륙 • 착륙 정밀도 : 반경 5M 이내 착륙 • 구조용 낙하산 산개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역학,구조학,기상학, 항공법규 • 상승 기류 이용 비행 • 단독 후방이륙 • 장거리 비행 • QUICK TURN • 실속(STALL) 회복능력 • 착륙 정밀도 : 반경 5M이내 착륙

PARAGLIDING 조직으로는 국제 항공 연맹 (FAI)에 소속되어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 항공 협회(KCAA) 산하 단체중 가장 활동적인 단체 인 한국활공협회(KGA)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단체는 PARAGLIDING 외에도 HANGGLIDING, 동력 HANGGLIDING(ULM) 분야를 보급, 장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활공협회에는 약 5,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고루 활동하고 있으며 약 40개소의 공인 교육기관(PARAGLIDIER SCHOOL)과 200여개의 동호인 클럽이 소속되어 있어 각기 기초교육과 비행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누구든지 PARAGLIDING을 배우고자 하면 공인 교육기관 중의 한군데를 선택하여 기초과정을 수료한 후 클럽에 가입하여 계속 활동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4~6일 정도이며 비용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20~30만원 정도이며,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수준에 맞는 PARAGLIDING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CROSS COUNTRY

다음으로 PARAGLIDING 장비에 대해 설명 하겠다.

PARAGLIDING 장비로는 캐노피와 하네스, 비행자의 안전을 위한 헬멧, 보조 낙하산, 무전기 등이 있다. 특히 무전기는 비행중 교신이나 만일의 경우 구조용으로 필요한 보조장비라 할 수 있다. 하네스는 비행자를 매다는 시트로 안정적으로 비행자가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1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시에는 단순히 매다는 역할뿐만 아니라 안락하고 편안해야 한다. 대부분의 초심자들은 엉덩이로 동체착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럴때 하네스 밑판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대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노피는 비행자의 비행 숙달정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선수용으로 구분되며 비행자 체중별로 적절한 크기의 지체를 선택해야 한다. 캐노피 모델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지만 우선 감항 증명된 것을 구입토록 한다. 보조 낙하산은 최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사용할 기회가 없더라도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재포장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헬멧 역시 안전장구로 머리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턱을 보호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특히 여성 비행자는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풀페이스 헬멧이 좋다.

우리나라에는 6~7개의 패러글라이더 장비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있는데 성능과 안전성이 뛰어난 우수한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그들은 설계와 장기간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 외국 유관기관의 안전도 시험에 합격된 모델을 취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나은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가격은 메이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초급기가 70~100만원선, 중급기가 100~150만원선, 고급기는 150~250만원선이다. 각 모델들은 가격이 천차만별인 만큼 성능이나 안전성, 조종성, 내구성 및 디자인 등의 고유특성이 각기 다르나 전문 선수들이 성능과 조종성을 중시하는 반면, 일반적으로 비행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비선택에 있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중구 기체가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신품의 50~60% 정도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장비는 강습이 끝난후 장비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나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종류, 크기 등을 선택한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구입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PARAGLIDING 대회에 대하여 설명해보겠다.

전국적으로 약 80여 곳의 활공장이 인가되어 있으며 또한 전국 동호인간의 교류와 기량 향상을 위하여 협회장배 전국 선수권 대회, 체육부장관배대회, 육군참모총장배 대회 등의 주요 대회와 전국 친선 대회 및 지역 대회가 연중 계속 개최되고 있다.

특히 고급 기량을 보유한 선수들이 주로 참가하는 국가대표선발 리그전이 연중 5~6차례 전국 유명 활공장에서 개최되어 고급 기량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리그전을 통해 선발된 우수선수들이 국가대표선수로서 2년마다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나 월드컵대회 및 기타 국제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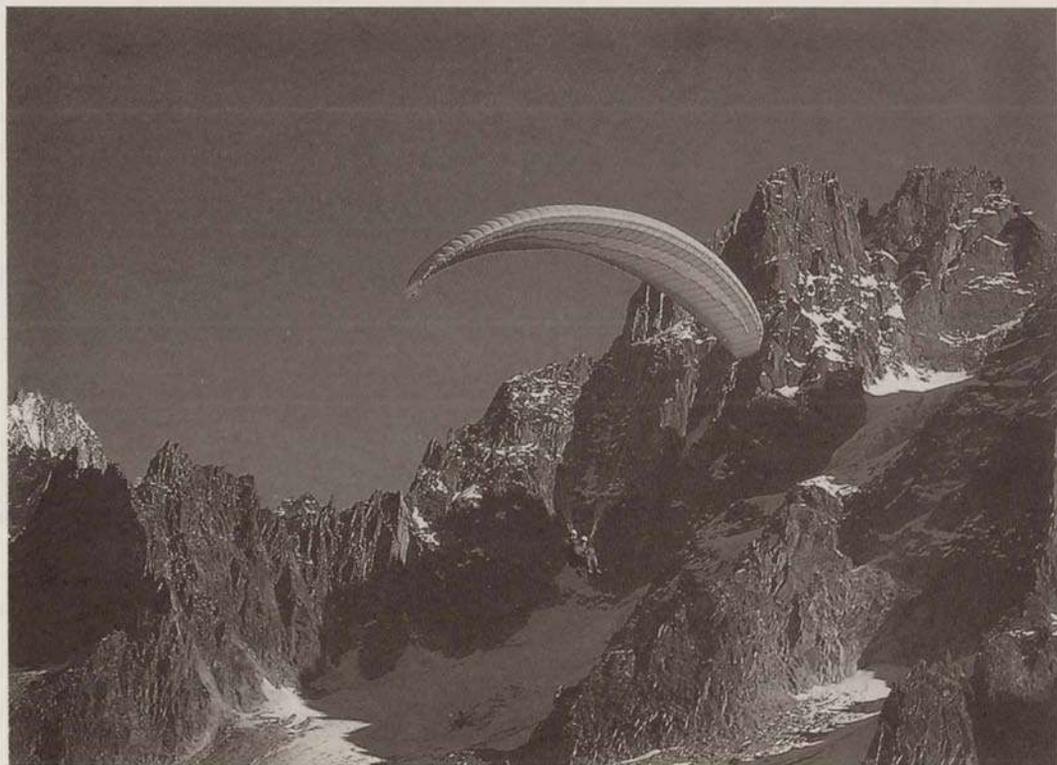


PARA SKI

국내 선수들의 수준도 해마다 향상되어 지난 1993년 8월 스위스 벨비에 지역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참가선수 전원이 본선에 오르고 최종적으로 세계 8위의 국가 성적을 거두었다. 항공산업이나 기술이 뒤떨어졌다기 보다는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하는 편이 보다 적절할 만큼 낙후된 우리 항공 기술 수준이나, 충분한 비행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열악한 현실 여건에서 볼 때, 항공대회에서 세계 8위라는 것은 대단한 수확이 아닐 수 없다.

그 이면에는 모든 항공산업이 뒤져 기술을 수입하기에 급급한 반면 PARAGLIDING 장비 제작에 있어서만은 최고의 기술과 설계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국내 회사들이 있어 좋은 날개들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었던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ARAGLIDING은 다른 스포츠나 레저 종목들과 달리 자연과 너무나 가까운 레저 스포츠이



TANDM FLIGHT

다. PARAGLIDING은 지상에서의 생활로 2차원 감각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1차원을 PLUS 함으로써 하늘이라는 무한한 공간을 활동 무대로 하는 3차원적 레저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육체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운동성이 강한 스포츠이며 무한한 자연속에 나 혼자만이 창공

의 세계에서 자연과 내가 1:1로 대화를 나누는 홀로서기 운동이기도 하다.

이처럼 특별하고 훌륭한 운동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PARAGLIDING을 통해 순수한 경외심과 진정한 희열, 동시에 철저한 고독을 통해 자아발견을 이루고 있다. **등산**

한 여름밤을 브람스와 함께



장재용

일병/제8990부대 근무지원대

무더운 여름, 자칫하면 짜증만 내기 쉽상인 그런 계절이지요. 하지만 좋은 음악을 감상하며 이 계절을 보낸다면 반대로 즐겁게 여름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름밤에 듣기 좋은 음악,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브람스와 그의 현악 6중주 op.18을 모든 공군장병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브람스가 내게 찾아왔다. 그는 천재다.”

—슈만—

“다이아몬드처럼 순수하고 눈처럼 부드럽다.”

—요하임—

바하, 베토벤과 함께 독일의 3B로 불리는 브람스는 1833년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가난한 더블베이스 연주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돈벌이를 위해 식당(매춘굴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어려서 겪었던 어른들에 대한 충격 때문에 후일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에

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그 실력을 키웠으며 17세 되던 해에 헝가리 출신의 바이얼리니스트 레메니를 만나게 되어 헝가리 무곡들을 작곡하게 된다. 그의 소개로 후일 둘도 없는 친구인 바이얼리니스트 요하임을 만나게 되어 당시 유행이었던 연주 여행을 떠나며 우정을 키우던 중, 요하임의 권유로 당대의 영향력있는 음악평론가이자 작곡가였던 슈만을 찾아가게 된다. 예전 슈만에게 보냈던 브람스 자신의 악보가 개봉도 되지 않은 채 되돌려받은 경험이 있는 그는 슈만 앞에서 자신의 ‘피아노 소나타 C장조’를 연주하게 되고, 그 연주에 감격한 슈만은 연주 중에 그보다 십년 연하인 아내 클라라를 불러내니 이때부터 세인의 입을 오르내리는 클라라와 브람스의 ‘숨막히는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슈만의 집에서 머무르던 중 브람스는 슈만의 비호를 받아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클라라에 대한 사랑의 감정 또한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즈음 슈만은 그의 고질병이었던 정신 분열증

(매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으로 라인강에 투신자살을 기도하다 어부에게 구출된 후,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때부터 브람스는 클라라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어 아내와의 면회가 중지되었던 슈만을 찾아가 그의 소식을 클라라에게 전해주고 슈만과 클라라 사이에 있는 8남매의 생계를 위해 요하임과 연주회를 갖게 된다.

결국 슈만이 세상을 뜨자 브람스는 14세 연상의 클라라를 '내 영혼의 지주'라 부르며 수십통의 편지를 주고 받게 되고 "오늘 내가 당신에 편지를 쓰지 않고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라고 몇번이고 직접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막아버리곤 하는군요"라는 글로 사랑을 고백한다. 그러나 클라라는 브람스에 대한 그녀 자신의 사랑을 감추며 8남매의 어머니임을 강조하는 글로 답하게 된다.

클라라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은 브람스는 클라라 곁을 멀리 떠나게 되고, 그 광경을 지켜본 클라라는 후일 "또 하나의 장례식이었다"라고 표현한다. 이후 브람스는 "당신은 나에게 사랑, 애착, 극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앞으로 역시 가르쳐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클라라의 생애 마지막 즈음에는 손가락에 관절염과 류마티즘이 걸려 고생하는 그녀가 연주할 수 있을 정도의 피아노곡들을 선사하였다고 한다.

슈만, 클라라, 그리고 브람스, 이 세사람의 관계는 언제 읽고 언제 들어도 '불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지는 않는다. 슈만은 브람스와 클라라를 너무 아꼈고, 브람스는 슈만을 존경하였으며 슈만의 사후 클라라에게 느꼈던 연민의 정을 사랑으로 발전시켰을 뿐이다. 클라라 역시 사

랑하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가 세상에 서 가장 힘들 때라고 고백하면서까지 슈만을 사랑했기에, 또 8남매에 대한 사랑이 컸기에(세인의 이목을 무시하지 않았겠지만) 브람스를 떠나 보내고 돌아서서 '제2의 장례식'이라고 털어놓지 않았던가

사랑의 표현을 말로 다하지 못하여 음악이 더 열정적이었다고 불리어지는 브람스. 그의 작품 중 내가 가장 아끼는 곡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브람스의 현악 6중주 op.18 and op.36으로 1989년 소니사에서 발행한 Double Album이다. 두 대의 클래식 기타를 위한 곡으로 편곡된 연주를 듣고 내 정신을 빼앗겼기에, '아이작 스티븐', '요암', '췌-랑-린', '제이미', '리레도', '마이클 트리' 등 그리 흔하지 않은 6명의 매니아들이 연주한 원곡이 들어있는 두 장의 CD를 고가(내겐 정말 벽찬 가격이었다.)에 구입하는데는 큰 주저함이 없었다.

현악 4중주의 변형인, 제1, 제2바이올린, 제1, 제2비올라, 제1, 제2첼로로 구성되어 있는 현악 6중주는 그 형식의 낯설음 때문에 작곡가들에 의해 호응을 얻지 못했다. 보케리니, 드보르작, 차이코프스키 등의 작곡가들이 곡을 쓰긴 했지만 완성에 이른 것은 브람스에 와서이다.

특히 op.18번은 멜로디가 귀에 거슬리지 않아 다른 악기를 위해 많이 편곡되어 연주되고 있는 곡이다.

1악장. Allegro ma non troppo

2악장. Andante ma moderato

2악장은 "내 심장의 고동소리를 가장 크게 들

을 수 있게 하는 곡.”, “힘겨움에 글썽이는 눈물로 시작되는 곡.”이라고 명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힘들때,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감을 잃었을 때 듣는 현재까지 그 이상은 없는 곡이다. 2악장은 주제와 변주로 그 곡이 아름다워 널리 알려진 곡이며, 브람스가 클라라의 40회 생일에 직접 피아노로 그녀를 위해 바친 곡으로 유명하다.

1악장은 중후한 느낌의 첼로로 시작하지만, 2악장은 지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를 낸다 하는 바이얼린의 호느낌으로 시작된다. 세상 모든 힘겨움을 겪어 달인의 경지에 오른 듯한 흰머리의 아이작 스톤이 두눈을 지긋이 감고 활을 켜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2악장은 한편의 이야기를 풀고 있는 듯하다.(작곡자는 어떨지 모르지만) 목이 메어 입을 여는 때와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때의 시차가 느껴지는 듯 울먹이면서 멍하니 앉아 있다. 첼로가 주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앉아 있는 이에게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준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중에는 힘있게, 다시 부드럽게, 힘있게. 그리고 힘차게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바이얼린의 고음이 펼쳐지고 뛰어 날아오르려 할 때 저 밑에 깔리는 첼로의 스케일, 마치 배의 출발을 알리는 고동소리 같기도 하다.

극도로 고무되고 흥분한 가슴이 바이얼린의 부드러운 걸음걸이로 안정이 되고 침체되었던 분위기는 고조되었다가 다시 가라 앉는다. 2악장 전반부의 멜로디가 이번에는 바이얼린이 아닌 묵직한 첼로로 연주된다. 호느적이던 목소리가 이제는 위로를 받아 마음의 평안을 찾는 듯이 말이다.(2악장을 들을때면 언제나 숨이차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또한 그렇다.)

원곡을 들으면 첼현악기(擦絃樂器)의 허스키



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지만 피아노를 위한 편곡을 들으면 툭툭 튀는 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력이 있다. 6명이 연주하던 곡을 솔로로 연주하는 피아노곡은 섬세한 부분까지 표현되진 않지만 우유를 목에 넘길 때의 부드러움까지 맛볼 수 있어 좋다.

클래식 기타로 2악장을 듣게 되면 그 맛 또한 다르다. 손가락의 힘이 악기에 바로 전달되는 장점이 있는 기타로 연주되면 곡은 아기자기한 균형의 색을 나타낸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토라진 아기가 화를 풀고 나서 엄마에게 안겨 투정부리며 칭얼거리는 듯한 소리(초킹에 의한 기법이다.)는 바이얼린, 피아노에서는 낼 수 없는 기타만의 소리이고, 그 칭얼거림을 아무일 없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듯한 기타의 무뚝뚝한 피치카토(일종의 묵음으로 둔탁한 소리) 역시 기타의 색깔을 내는 기교이다.(기타곡은 서울음반과의 계약 종료로 구입하기 힘들었던 LD를 RCA사에서 CD로 제작한 John Williams and Julian Bream의 Line Album을 권하고 싶다.)

모 회사의 '카레'광고 뒷 배경음악으로 등장한 적 있는 3악장은 scherzo란 말 그대로 해학적인 면이 보이는 재미있는 곳이다. 2악장에서 바이얼린이 슬픈 목소리를 냈다면 3악장에서는 들도 없는 경쾌한 소리를 토해낸다. 그리고 2악장에서 아이작 스톤의 지긋이 감은 눈이 그려진다면, 3악장은 다른 바이얼린 연주자인 초-랑-린의 휘젓는 머리에 흩날리는 머리칼이 생각나게 한다. 왼 손가락의 뮤트와 오른 손가락에 잡혀있는 활의 힘있는 움직임이 들리는 강한 스타카토와, 듣고 있노라면 언제 숨을 쉬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 슬러, 게다가 홀로 달리는 듯한 첼로의 걸음걸이는 바이얼린, 비올라의 행보와 조금도 어색함이 없다.

4악장은 난해하기로 소문난 브람스의 교향곡을 듣는 듯한 분위기이다.(실로 브람스 교향곡을 한곡 다 듣는데에는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2,3악장이 귀에 들리는 멜로디의 굵은 기능(?)이 잘 파악된다면 1,4악장은 그 흐름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4악장에서의 첼로는 세상 사람들의 소음에 묵묵히 움직이고 있는 녀

한 호른과도 같은 느낌을 주게 한다. 그리고 한 발 먹어져서 연주하는 듯한 작은 바이얼린과 비올라의 소리 역시 싱거운 음식의 소금이라고나 할까? 조금의 넘침도 부족함도 없이 조화를 이룬 악장이 4악장이 아닌가 싶다.

1997년은 슈베르트가 태어난지 20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세계의 전기 작가들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브람스가 죽은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고 에로스를 뛰어넘어 아가페적 사랑을 했기에 그의 얼굴에서는 수많은 심술쟁이 노인의 모습이 아닌 포근한 친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의 표현을 음악으로서 밖에 할 수 없었기에 끝까지 홀로 지내게 된 것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낳게 할만큼 수줍음을 많이 탔던 브람스. 음악과 결혼했기에 어느 누구도 그 음악을 대신할 수 없었던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며 제가 사랑하는 브람스와 함께한 한 여름밤의 여행을 여기에서 마칩니다. **등근**

공·군·문·단

시

- 십만원
- 아버지의 모습

독 후 감

- 스티븐킹의 『영원한 희망』을 읽고
- 어린왕자를 좋아하세요?
- 영화속의 전쟁

공 · 군 · 문 · 단

수 필

- 나의 어머니
- 사랑하는 사람들
- 메뚜기와 엘빈토플러의 세상읽기

문화유적탐방

- 칠점산과 두꺼비 바위

십 만 원

조 정 현

상병/제3훈련비행단 무장대대



첫 휴가 나가던 날
어머나는
꼬깃꼬깃 접혀진 십만 원을 주셨습니다.

아들 주리라고
주머니 깊숙히 꺾꺾 넣어두었던 돈
당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십만 원을 받았습시다.

배 굶지 말고
남 앞에서 기죽지 말라 주신 돈
세상 물정 모르는 이 땅의 용감한 아들
당신이 주신 돈을
덜컥 받고 말았습시다.

세월은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처럼
내 머릿 흐려 놓지만
훗날
당신이 쥐어주신 십만원의 사랑을
가슴 저미도록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뒷모습

송 창 욱

상병/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언제나 절대자의 모습으로
제 순수한 영혼을 지켜주시는 당신

약하신 모습 보이시지 않으시던 아버지
막내아들 군대오던 날
담담히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두 눈
당신의 눈물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가슴으로만 볼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뒤돌아 서신 당신의 모습 보며
제 가슴은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그 넓으시던 어깨, 이제는
막내아들에게 물려주시고
말없이 뒤돌아서신 당신의 뒷모습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오늘밤 전 당신께 편지를 쓰려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말도 하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스티븐 킹의 「영원한 희망」을 읽고



김형년
병장/제18전투비행단 아전정비대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나에겐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 주인공이 천신만고 끝에 감옥을 탈출해 한밤중 비오는 속에서 두팔을 들고 감격의 절규를 하는 장면이다.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던 ‘자유’를 찾았을 때의 그 감격, 아마 자유를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그 기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은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영화다.

어느날 악명 높은 쇼생크 교도소에 신참 죄수들이 후송되어 온다. 그 중에는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젊은 은행가도 있었다. 그의 죄목은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그는 말이 없고 차분했다. 또한 인간성이 말살되고 인간이 소, 돼지만도 못하게 대우받는 교도소라는 곳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으며 ‘죄수’로 전락하지 않고 ‘인간’으로 남아있었다. 그의 눈은 항상 어떤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듯 했으며 언제나 ‘자유’라는 뉘세를 풍기고 다녔다.

어느날 그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지붕에 타르를 칠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한 여름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숨이 턱턱 막히는 일이었다. 그때 간수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온다. 유산 상속으로 거액의 공돈을 얻게 된 간수가 상속으로 인해 붙게되는 세금이 아까워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간수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주위에서는 당장 멈추라는 위협의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그는 간수에게 다가 두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한다.

“부인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그렇지만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이 세상 다 산줄 알라구!”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간수에게 그는 조건으로 그와 그의 동료들이 작업 중 시원한 맥주 한 잔씩을 마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그의 소망이 이렇게 소박할 수 있다니! 또 그의 동료들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정



영화 <쇼생크 탈출> 포스터

말 적절한 조건이라 생각됐다. 그후 일주일이지나 그와 그의 동료들은 뜨겁게 작열하는 태양 밑에서 작업 도중 마치 '자유인'처럼 맥주를 마실 수 있었으며 그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짓고 있었다.

그후 능력을 인정받게 된 앤디는 간수들의 세무일을 처리해 주었으며 교도소 내의 도서관을 관리하게 되어 형편없던 도서관에 책을 기증받고 시설을 보수하여 훌륭한 도서관을 만드는 수완을 보여준다.

그후 새로 들어온 신참 죄수에게 앤디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왔으며 진짜 범인은 다른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즉시 그는 교도소장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만 그의 도움으로 검은 돈을 불리고 있던 소장은 그의 말을 묵살하고 음모를 꾸며 신참 죄수를 살해한다.

실의에 빠진 앤디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

'지후아타네조, 기억이 없는 따뜻한 곳. 나는 그곳에서 일생을 마칠거야.'

그리고 그의 말은 현실로 나타난다.

앤디는 탈옥을 했던 것이다. 그의 감방에는 길

고 긴 터널이 뚫려있었고 그 터널을 빠져나간 앤디는 오수관을 통해 그것도 오백미터가 넘는 오수관을 통해 탈옥에 성공했던 것이다.

앤디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친구 래드만은 알 수 있었다. '지후아타네조, 멕시코의 태평양이 바라다보이는 기억이 없는 따뜻한 곳으로 그는 갔을거야.'

그리고 마침내 출감하게 된 래드는 앤디와 약속했던 들판 끝 돌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쓴 앤디의 편지를 발견한다.

래드는 멕시코를 향해 달려간다.

'나는 앤디가 그곳에 있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국경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내 친구를 만나서 악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태평양이 내가 꿈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푸른 빛이기를 바란다.'

'나는 바란다.....'

래드의 이 말들 속에는 자유를 향해 달려가는 기쁨에 벅찬 떨리는 흥분감과 멈출줄 모르는 영원한 희망, 그리고 그것의 값진 열매가 숨어있는 듯하다.

“어린 왕자를 좋아하세요?”

이 상 현

일병/제11전투비행단 통신대대



뭇 모르던 중학생 시절, 심심하다고 호기심으로 잡은 이 책은 내게서 그 나이 또래의 사춘기 남자 애들이 보이는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비뚤어짐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나아가 세상의 이치에 대한 지적 열정을 갖게해준 것입니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진실인가 봅니다.

이 책 표지에는 작가 자신이 직접 그린 서툰지만 순박한 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소년으로 보이는 아이이건만 풍기는 쿼터와 옷차림이 단연 왕자 풍입니다. 그래요, 이 책의 제목은 ‘어린 왕자’. 어린애나 보는 동화 아니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이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주길 바랍니다. 날마다 수만 가지 새로운 정보가 어떠한 여과 과정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야말로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사고 난 뒤 후회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저만치 던져두고 집을 수 있는 책이 ‘어린 왕자’입니다.

작가는 20세기 초반 비행기 조종사로 이름은 생텍-쥐베리. 신비주의적 인물로 어느 작가와는 달리 세계대전에 참가한 적도 있는 실천가입니다. 전세계를 날며 이상을 갈구했고 최대의 유작이며 자신의 이상 사회를 묘사한 ‘성채’를 미완성으로 남긴 채 어느 날 비행을 나가 행방불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다운 최후라고나 할까요.

탁상공론식의 이론가보다도 해놓고 본다는 우둔한 실천가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양쪽을 모두 갖춘 인물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는 만사를 회의케하고 후자는 자칫 삶을 파멸로 이끌 염려도 있는데 반해, 이론 실천가는 양요소의 피드백에 의해 건강하게 사람의 사고를 키워주고 삶을 살찌게 하니깐요.

이 책은 읽을 때마다 그 진의를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국화빵처럼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음악과 미술이라면 그 선율, 형상과 색채에서 공

감각적 경험을 허상이라 느끼지 않고 연상할 수 있듯이 진정한 문학은 소설이나 시 등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도가의 선어처럼 암시적이고 아울러 아름다운 시와 같이 느껴집니다.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불시착으로 사막의 한 가운데 떨어져 생사를 건 비행기 수리작업에 지친 작가, '나'에게 마치 도심 어느 모퉁이에서 길을 묻듯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온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과 장미꽃을 지키기 위해 바오밥나무의 어린 생명을 잡아먹을 양 한 마리를 그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황한 '나'는 얼떨결에 그려주게 되고 어린 왕자의 순수함에 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 폭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어린 시절 화가가 꿈이던 '나'는 어른들의 탁한 생각에 억눌려 스스로 어른이 되어 버린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곤 어린 왕자의 혼잣말 속에서 그의 고향과 경험에 대해 하나 둘 알아가게 됩니다. 어린 왕자의 별은 B612라는 소혹성. 화산 두개와 휴화산 한개, 그리고 어느날 날아와 씹어 뜯 장미꽃이 전부입니다. 화산을 청소하고 자신의 별을 부숴버릴 지도 모를 거대한 바오밥나무를 어린 왕자로부터 없애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남은 시간엔 주로 석양을 보며 지내는 어린 왕자에게 자신의 별에 뿌리내린 장미는 대단한 광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장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매일 물을 주고 병풍으로 바람을 막아주며 밤이면 유리 글라스를 덮어 벌레들로부터 장미를 보호합니다. 순수한 그이지만 커가는 마음의 상처를 어찌지 못해 마침내 끝없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별을 깨끗이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마주한 어

린 왕자와 장미. 이 둘의 대화는 실로 아름답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미. 어리둥절해 하는 어린 왕자. 어린 왕자가 병풍과 유리글라스를 돌려주려 하지만 바람은 자신을 강하게 해줄 것이고 벌레들을 이기지 않고 어찌 벌레들을 맞을 수 있겠느냐고 대답하는 장미의 지혜로움은 잠깐이나마 독자로 하여금 어린 왕자를 원망케하기도 합니다.

별을 떠난 어린 왕자는 여러 혹성을 돌아다니지만 매번 어른들의 어른다움에 실망을 거듭합니다. 상인의 맹목적인 소유 욕구, 왕의 이름 뿐인 자족적 지배력, 주정꾼의 허무한 도피주의, 자신의 순수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외로운 어린 왕자는 마침내 지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깨우침을 주는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길들인다'는 말의 의미를 가르쳐주며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대목은 특히 중요합니다. 어린 왕자가 네시에 찾아온다는 사실 하나로 세시부터 설레기 시작하는 여우. 떠나는 어린 왕자 앞에서 왕자의 금발을 떠올릴 수 있으니 물결치는 밀밭이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웃는 여우. 논리정연한 현대과학사회와 자기이익추구에 물들어 버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 어린 왕자는 자신이 장미를 사랑하며 장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란 자기가 그와 관계를 맺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어 있다는 사실로 다른 타자들과 구별된다는 생각은 참으로 깊은 깨달음입니다. 여우와 헤어져 '나'와 며칠을 보낸 어린 왕자는 실뱀의 독을 빌어 죽음으로써 자신의 별로 돌아가 장미를 책임지겠다는 결심을 실천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나'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어린 왕자 생각에 웃기도 하고 때론 눈물도 글썽입니다. 누군든지 어린 왕자를 보면 꼭 알려 달라는 당부로 이 아름다운 책은 끝을 맺습니다.

책을 덮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잔잔한 감동이 내면 깊숙이 사그러들 때까지. 우리는 살아간다는 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너무 가볍고 무의미하게 여기며 지내는 건 아닐까요?

삶이 아름다운 건 추구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 이이다. 이 책은 말합니다. '사막이 아름답게 보이는 건 어딘가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글썽 흑자는 사람이란 있지도 않은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이는 가련한 존재라 했다지만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의미를 내릴 수밖에 없는 오늘에서 왜 어두운 면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른 아침 귀를 따갑게 하는 청명한 새소리, 어린 소년 소녀의 해맑은 웃음소리, 갓 태어난 아가의 힘찬 울음, 연인들의 새콤한 사랑 다름,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바에 따라 충분히 아름다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이 관계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이 시대가 상실의 시대라면 바로 책임감 상실의 시대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내일의 헤어짐을 무덤덤히 받아들이고, 때론 아파한다 해도 타자의 상처에 대해 어찌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사물을 밝게 보고 자기와 연관된 환경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보다 강한 자기 긍정은 없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꼭 하나 기억해 둘 글귀가 있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쯤 읽거



나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현대가 정이 결핍된 삭막한 세상이라면 그건 지식만이 중요시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모든 것에 대해 판단이 내려진 시대, 사물에 관한 선입견, 사람에 대한 선입견으로 모든 것이 정해져 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조용히 물어봐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진실인가?' 겉모습에 집착하여 쉬 판단을 내리지 않고, 침묵 속에 안으로 파고들 줄 아는 인내와 포용이 중요한 현대이기에 이 책의 진가는 더욱 빛납니다. 바야흐로 한 세기를 마감할 때입니다. 난세에 영웅과 충신이 생겨나듯이 이 책이 소중히 여겨지는 현대, 우리는 분명 혼란되고 무가치한 사회적 상황, 역사적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삶과 성공한 인생을 바라고, 시대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 이전에 먼저 자기존중과 삶에 대한 희망, 타인에 대한 아랑부터 쌓아야 할 것입니다.

세기말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이 책 '어린 왕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나의 장미는 누구인가, 나의 여우는 누구인가, 내 어릴 적 소중한 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화 속의 전쟁

김 광 식

상병/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정비대



우리는 산업 생산의 방식으로, 그리고 사회적 힘으로서의 정치적인 효과와 문화적인 권력의 형태로 늘 실재하는 문화 속에서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여러 다수의 매체들이 현재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인간 삶의 단편소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실의 일부분을 평면상에 동적으로 재생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 삶의 진실이 짙게 투영되어 있다. 여기서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엿볼 수 있는 전쟁, 그 전쟁을 모티브로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확고한 자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영화 작업에 몰두한 올리버 스톤 감독의 작품들에 대한 감상을 말해 보겠다.

베트남 전쟁, 지긋지긋하게 달려드는 비쩍 마른 동양인들에게 프랑스가 두손들고 물러나면서 미국에 경고하던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군산 복합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 없이는 살

아남기 어려웠던 미국 존슨 행정부는 기어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다. 그러한 베트남 전쟁과 어우러진 미국의 60년대는 혼돈 그 자체였다. 미국 내의 맹렬한 반전 데모, 히피들의 출현, 가치관의 혼란, 그같은 인식의 표현인 대중문화의 확산, 이 시대는 바로 미국 역사의 격동기였다. 이제까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오로지 지배와 복종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의 권리와 정당한 자기의 몫을 찾겠다고 역사의 전면에서 떨쳐 나왔다. 이러한 시대적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 섰던 올리버 스톤은 그 자신만의 의지가 담긴 영화를 만들었다.

영화는 전쟁을 소재로 즐겨 다루는 까닭은 전쟁 자체가 영화 같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전쟁엔 풍부한 볼거리가 있다. 다시말해 전쟁은 스펙터클의 보고인 것이다.

또한 전쟁에는 이야기거리가 풍부하다. 증오, 갈등, 희생, 살육, 음모, 긴장, 슬픔, 여기에 헐리우드 영화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랑까지 곁들이

면 완벽한 한 편의 드라마가 탄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전쟁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면 '국가관 확립, 애국심 고취'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국가나 체제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전쟁 영화는 이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할리우드의 전쟁 영화 역시 이 틀에 충실해 왔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패배로 끝나자 전쟁의 의미를 다시 묻고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는 여론을 반영한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70년대 중반부터, 이제까지의 진부한 전쟁 영웅담보다는 얼마나 그 전쟁이 미국인의 의식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는가를 심도 있게 제시한 프란시스-코폴라의 <지옥의 묵시록>, 올리버 스톤의 <플래툰> 등이 나왔다. 플래툰은 감독 자신이 15개월간 겪었던 전쟁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이다. 플래툰은 한 보병 소대의 행로를 추적하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위기를 다루는 방법을 다룬다. 여기서는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고전적인 이분법의 등식이 보이지 않는다. 병사들은 투철한 국가관에 의지해서 싸우기보다는 매일매일을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며 전투가 없는 날은 술과 마약으로 보낸다. 적에 대한 이념적, 가치적 대립보다는 병사들간의 갈등이 보다 큰 비중으로 묘사된다.

<플래툰>에는 또한 정의로운 미군 상을 찾을 수 없다. 어느날 수색중 실종됐던 동료 하나가 베트남 촌락 근처의 강가에서 죽창에 꽂힌 시체로 발견되자, 병사들은 얼굴을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적개심과 언젠가 자기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무고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화풀이한다. 베트남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

구나 알고 있을, 그러나 누구도 입밖에 내길 꺼려했던 추악한 현장을 이 영화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플래툰은 피끓는 전우에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양민 학살 때의 대립으로 한번 엘리어스에게 양심을 품은 번즈는 전투 도중의 혼란함을 이용해 기어이 그를 죽이고, 이를 알게 된 크리스는 번즈에 대한 적개심과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한다. 결국 거의 모든 소대원이 전사한 또 한번의 큰 전투를 겪으며 크리스는 엘리어스가 당했던 그대로 번즈를 해치운 다음 자신도 부상을 입어 후송당한다. 시체를 묻은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헬기에 탄 채 전장을 떠나며 크리스는 다음과 같이 독백한다.

“우린 적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운 것이다. 서로의 증오, 의심과 싸운 것이다.”

이 모든 특징을 요약한다면 <플래툰>은 전쟁을 겪은 한 인간이 어떻게 의식적으로 변화하였는가를 알리는 성장체험의 영화이자, 단 한줌의 숭고한 조국애도 간직하지 못한채 비이성과 광기가 판치는 전장에서 무의미하게 죽어간 녀들을 달래는 진혼곡으로서의 영화인 것이다. 이 영화는 가장 사실적으로 베트남전을 그렸다는 찬사와 미국인들의 희생을 왜곡한 영화, 빨갱이가 만든 영화라는 비난을 한꺼번에 들었다. 이 영화가 받아들이고자 했던 이성적인 관객들은 임금님이 발가벗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올리버 스톤의 용기를 높이 샀고, 그 결과 흥행에 성공했다.

수많은 종류의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군인으로서 의식적인 전쟁 영화 한 편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가를 생각해 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공단**

나의 어머니

김 준 호

일병/방공포병사령부 통신지원대대



“땡땡땡땡”

“누구세요?”

“저예요 엄마! 준호요!”

이렇게 나의 여섯번째 외박은 시작됐다. 언제 나처럼 어머니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

“어디 아픈데는 없니?”

아들의 건강먼저 생각하시는 어머니는 왠지 얼굴이 험색해지셨다.

“엄마는 어디 편찮으세요?”

나의 질문에 어머니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다.

“사실 엄마가 많이 아팠단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 이게 다 니 기도 덕분이다.”(우리집은 기독교 집안이다. 누나네 식구들을 제외하곤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다.)

어쩐지 몇주 전부터 전화할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좋으셨다. 어머니는 내가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으면 자다 일어나서 그렇다며 어머니께

서 편찮으신 걸 애써 숨겨오신 것이다.

“엄마 전에 전화했을때 아프지 않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야 너도 힘이드는데 엄마가 아프다는 소리를 해봐라! 가뜩이나 마음 약한 니가 마음 아파하면 어찌나 하고 아프다는 소리를 안했지! 사실 이번에 니가 나오면 아무데도 못나가게 하고 엄마 안마만 시킬려고 그랬어! 그런데 엄마가 많이 나왔잖니!”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싫었다. ‘간만에 외박인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하고 놀아야하는데,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머리 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어머니와 이렇게 몇마디 말을 주고 받은 후 난 어김없이 나갈 준비를 했다. 어머니는 내가 가는 게 속상하시면서도,

“그래 식구들하고 노는게 재미있겠니! 나가서 친구들과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늦지 않게 들어오

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돈을 쥐어 주셨다.

어머니께서 주신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하다보니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되어 갔다. 친구들과 헤어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2차를 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놀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2차를 허락했다. 2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간은 어느덧 2시가 다 되어갔다. 아나나 다를까 어머니는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

“술 많이 먹었니? 조금만 먹지 그랬어!”

어머니는 들어가 쉬라며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셨다. 내방에 들어와 생각해보니 어머니께 죄송했다. 사실 어머니도 나도 서로 같이 있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보다는 친구들과 술을 선택했고 그런 나를 어머니는 이해해 주셨다.

다음날 형네 식구들과 누나네 식구들이 집으로 왔다. 귀여운 조카들의 재롱을 보고 있는 형이 나를 조용히 불렀다.

“엄마 이번에 돌아가시는줄 알았다.”

형의 난데 없는 소리에 나는 당황했다.

“체대로 견지도 못하시고 거의 기어 다니셨다. 교회 집사님들도 오셔서 울고 가실 정도였어! 엄마 불쌍하다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말이었다. 저렇게 잘 걸 어다시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았다. 형은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편찮으셨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었다. 형의 얘기를 듣다보니 겁도 나고 화도 났다.

“엄마 편찮으실 때 왜 내게 말 안했어! 만약 엄마가 돌아가시기라도 했음……!”

나도 모르게 겁이 났다. 왜인지 모르지만 어머

니가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언제나 내곁에 있어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돌아가실 뻔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난 어머니에게 화가 났다. 그렇게 편찮으셨으면서 내게 말하지 않으신 어머니가 왠지 미웠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그러신건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식구들과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냐는 듯 다시 나갈 준비를 했다. 형의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서 놀고 싶었다. 어머니가 내편이 되어 주셨다.

“나가서 놀게 해줘! 얼마나 놀고 싶겠니?”

나는 식구들을 뒤로한 채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집으로 들어가니 형과 누나네 식구들은 다 집으로 가고 집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분만 계셨다. 어머니께 죄송했다. 과일을 먹으며 어머니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배고프지 않냐며 늦은 시간이었지만 식사를 차려 오셨다. 별 생각은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음식이라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는 내모습을 보시며 어머니는 흐뭇해 하셨다.

짧은 외박도 끝나고 복귀하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늦게 일어난 나는 아버지 출근하시는 것도 못보고 잠을 잤다. 아버지께서는 서운하셨는지 전화로 화를 내셨다. 어머니와 점심식사를 하는데 어머니는 고기를 내쪽으로 밀고 뼈와 비계만 드시는 것이다. 고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엄마 왜 비계만 드세요! 고기도 많은데”

“엄마는 비계가 더 맛있다.”

빙그레 웃으시는 어머니! 나는 왠지 눈물이 나려고 했다. 애써 눈물을 삼키고 내쪽에 물린



고기를 어머니편으로 몰며 드시기를 권했다. 어머니와 나는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는 시종일관 내 걱정뿐이었고, 나는 어머니께 어리광부리듯 응석을 부렸다.

귀대시간이 되어 약복을 입고 집을 나서려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와 같이 보내지 못한 시간들이 후회가 됐다. 바보같이 왜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어머니를 외면했을까?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고 어머니에게 죄송한 생각이 나를 휘감았다. 다음에 나오면 어머

니와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하고 마음속으로 다짐은 했지만 자신은 없었다.

입대 전날 어머니는 안 우실거라며 말씀하셨지만 입대날 아침식사 기도하시던 어머니는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셨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나는 눈물을 감추었다.

늘 아들걱정에 밤 잠을 설치시는 어머니! 너무 걱정마세요! 이 아들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약한 남자가 아니에요! 저도 어엿한 대한민국 공군이랍니다! 아무걱정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 어머니 보시기엔 아직 철부지 어린아일 것이다. 그건 내가 군을 제대하고 직장인 되고 한가정의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라지만 가장 강한 것이 어머니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어머니,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를 정말 너무나 사랑한다고……! **공군**

사랑하는 사람들



허 우 석
일병/제6822부대 38방공포대

'사랑'이라는 단어는 흔히 연인 관계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지만 부모님, 친구들, 선후배간의 관계 등 매우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과는 달리 매우 각별함을 의미한다. 나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만남으로 이루어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나지 않고는 사랑을 생각할 수 없기에 만남과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번도 보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기란 온달에 대한 평강공주의 그것 외에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태어나서 처음 만나 잠재의식 속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며 점차 자라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으로 사랑을 알게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을 가장 절실히 느낄 때는 역설적이게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있을 때가 아닌가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외로움 또한 증폭시킨다.

외로움은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특히 군대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까지 하나, 둘 기억의 중심으로 끄집어내어 그리워하게 만든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러하다. 같이 지낼 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몇달 전 고모님께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던 일이 기억난다.

당신께서는 4살 때 어머니를 여의시고 그 충격에 술을 벗삼아 생활하셨다고 한다. 아버지의 방황에 집안은 기울고, 그로 인해 배움의 길까지도 잃어버리시는 등 무척이나 고생하셨다고 한다. 물론 그 고생은 자식들로 인해 지금까지 이어져서 머리카락 희어지고 주름은 같은 연배의 다른 사람에 비해 곱절이나 많으시다. 오직 진실되게 살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찡하고 아려온다.

좀더 일찍 깨달아 조금이라도 아버님의 걱정을 덜어드렸어야 했는데... . 후회 막심이다. 집안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학교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리고 싶었다.

내게 있어 군입대는 하나의 도피처였던 것이다. 하지만 군대는 나에게 도피처가 결코 될 수 없었다. 마음은 항상 그리운 가족과 친구들로 가득 채워졌으며, 그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소리죽여 온 적도 많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추억 속에 곱게 남아있으며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어김없이 밝은 영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물론 그 추억은 곱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면서 기쁘기도, 슬프기도 하다. 하지만 추억이란 슬픔보다는 기쁨의 색채를 띠고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다. 또한 그 추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게 있어 아름다운 추억의 앨범은 당연히 어머니를 펼쳐 보인다. 나의 어머니는 무척이나 빵을 좋아하신다. 지금은 빵집에서 사다가 드시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비가 오거나 하면 손수 만들어서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난다. 가끔 혼자 먹으려고 남은 빵을 꼭 싸서 옷장에 숨겨두면, 어떻게 알았는지 누군가가 먹어치워버려 집안에 틀어박혀 한참 울었던 적도 있다.

나이가 들어 학교생활 때문에 어머니와 떨어져서 친구들과 함께 자취하는 동안, 비가 오면 빵이 먹고싶다는 충동이 어린시절의 모습과 자연스레 어우러진다. 입안에서는 군침이 돌고 어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빵집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는 나에게 친구들은 빵귀신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었으며 나중에 빵을 잘 만드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놀려댄다.

언젠가 친구들이 빵을 잘 먹는다고 한 아름의 빵을 사가지고 면회를 왔다. 3시간의 면회시간 동안 내내 빵으로 부풀어진 내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던 그들을 통해 가슴속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구수한 된장국에 두부와 과를 썰어 넣고 계셨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놓고 계셨다. 물론 빵을 사 놓으신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를 보고, 하시던 일을 제쳐놓고 함박웃음을 지으시며 뛰어 나오시던 모습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어머니와 관계된 추억과 달리, 아버지께 대한 나의 추억은 사실 그리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목욕은 아버지와 나를 진정으로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예전엔 생각없이 아버지의 등을 밀어 드렸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께서 너무 야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내 마음의 샘터는 눈물로 가

득 찼다. 날로 쇠약해지시는 모습이 나로 하여금 진정 아버지를 아버지로 이해하도록 한 것인가? 빨리 아버지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직을 해서 생계를 도우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많다.

부모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한 편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는 한 여자이다. 그녀는 눈이 크고 얼굴이 길고 살결이 하얗으며 손은 무척이나 작았다. 피아노를 잘 쳤고 어학 실력도 뛰어났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잔잔한 클래식을 듣고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얘기를 나누던 시간들. 특히, 바래다 주기 위해 유난히도 멀리 떨어져있던 그녀의 집을 향해 함께 걸으며 나누던 많은 얘기들은 금방이라도 주르르 바닥으로 쏟아질 것 같다. 바래다주고 돌아올 때는 다리가 아파서 잠을 자지 못했다. 가끔씩은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기도 했다.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따랐던 그녀, 그러나 결국 나는 그녀와 헤어졌다. 급한 성격으로 인해 그녀와의 말다툼을 끝으로 헤어져야 했던 어리석은 행동이 아직도 내 맘을 덜컹 잡아채는 경우가 많다. 너무나 보고 싶은 그녀, 내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비록 그녀는 나를 떠났지만 그녀와의 소중한 만남은 언제나 내 마음에 남아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픈 또 한명은 갈

이 자취하며 서로를 신뢰하던 친구들이다. 생일을 맞이하는 친구에게 축하해주기 위해 다과 준비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던 친구들. 비록 가난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마음만은 부유했다. 클래식을 함께 듣고 연주를 하고 밤을 지새우며 술을 마시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시간들.

내가 자취했던 집은 친구의 외할머니택이었다. 암에 걸리셔서 같이 생활하던 기간은 아주 짧았지만 잘해주셨다. 그 친구도 군대에 있는데 올해 제대를 한다. 가장 마음이 잘 통했던 친구,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공부를 했었다.

외박을 나가면 집보다 먼저 달려가던 친구들, 이제 하나, 둘 취업을 해 제 갈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우정은 변치 말아야 할텐데…….

이들과 생활하면서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내게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시간이 할애된다면 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옛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쌓고 싶다.

이제 어느정도 군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나의 그리움의 골은 깊어만 갔다. 그 골의 깊이 만큼이나 나도 성숙해지고 있을까? 모두 잠들 시간, 민가의 따스한 불빛을 바라보며 나도 이제 누구에겐가 기억되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해본다.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 **등문**

메뚜기와 엘빈토플러의 세상읽기

남 진 우

일병/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정비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구가 태양계를 돌고 있는 속도보다도 어쩌면 더 빠르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아주 작게는 미립자적인 단위에서 크게는 우주전체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인간들의 세계 또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모든 측면에서 어제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 인간들은 그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마치 금방이라도 전복될 것 같은 표류전처럼 헤매고 있다. 그 혹독한 환경속에서 그 상황을 넘지 못하고 낙오해가는 사람들이 숱하고 그 세상을 한탄하는 사람들과 그 세상에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는 세상을 올바로 이해 못하며 살아오거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변화는 규칙을 이해하고, 그 변화를 관계지으며 더 나아가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는 사람이 된다면 그토록 세상사에 고통스러워하지도 힘들어하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의 변화속에서 “나”를 올바르게 세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어떻게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를 올바르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메뚜기와 엘빈토플러의 세상읽기를 통해 알아 보려는 것이다.

『세상읽기』

우리는 생활하면서 어렵지 않게 세상을 접하게 된다. 길거리를 걸어나다 네온사인, 광고지, 홍보용 PC, 거리를 걷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가지가지 물건들을 통해 세상을 느끼게 되고 보게되며 TV, 라디오, 신문, 책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해 세상을 읽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세상을 알게된다.

길을 걷다 Showwindow 안에 마네킹이 입고 있는 가지각색의 옷들을 보고 그 당시의 옷의 유행을 읽게 되며, 가게 밖 스피커에서 들려져 나오는 음악들을 통해 그 시기의 유행하는 노래풍들을 읽게 된다. 또한 거리에 술하게 걷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그 당시의 화제거리 내지는 흥미거리를 알게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도 전

에 세상읽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도 세상읽기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중에 숲 속의 메뚜기는 자신의 환경에 따라 자신의 채색을 바꾼다. 이것 또한 우리는 변화라고 한다. 이 메뚜기 또한 자신이 흙에서 살고 있으면 갈색으로, 잎이 많은 숲에서는 녹색으로 세상의 변화를 읽고 있는 것이다.

제3의 물결을 쓴 엘빈토플러는 그 책속에서 21C는 수많은 정보의 물결이 이루는 세상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세상이 변하고 있는 현상을 읽는 것이다. 컴퓨터의 발달이라든지, 위성의 발전, 통신의 발전을 통해 수많은 DATA를 축적, 정리 사용할 수 있는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엘빈토플러는 인식했던 것이다.

이렇듯 세상읽기는 자신이 속해 있는 주위환경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조금만 유심히 세상을 본다면 세상읽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메뚜기가 채색을 변화시키는 것도 엘빈토플러가 세상을 읽는 것도 세상을 유심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예컨대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을 보고 여름이 왔든가 부츠를 신은 사람들을 보고 겨울이 왔든가 하는 단순한 세상읽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한 여름에 부츠를 신고 다니며 한 겨울에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기존의 세상읽기 기준을 깨는 것이며 좀 더 복잡하고 사려깊은 사고를 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메뚜기와 엘빈토플러가 세상을 읽었다는 것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엘빈토플러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는 이야기하지만 메뚜기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는 말하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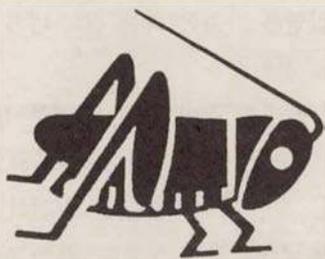
우린 이 차이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메뚜기의 세상읽기와 엘빈토플러의 세상읽기, 이 차이점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이다.

우선 앞서 예를 들었던 부츠, 미니스커트, 배꼽티에 대해 생각해 보자. 부츠를 신은 사람을 보고 '겨울이 왔구나'하는 사고와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를 입은 사람을 보고 '여름이 왔구나'하는 사고는 즉 '사람의 옷차림은 계절과 관계있다'라는 결론으로 세상읽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계절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입게 된다. 이것은 계절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입게 되었고, 그것은 옷이 '자신의 개성'이라는 인식변화의 흐름을 이룬 것이다.

이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단순히 옷차림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옷차림을 보고 여름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한 이해로 메뚜기와 엘빈토플러가 세상을 인식하게되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뚜기는 주위환경의 색, 온도, 습도 등의 인자를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여지게 된다. 학메뚜기를 갈색으로 만든 통에다 넣었다고 생각해 보자.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여진 색의 정보를 메뚜기의 뇌에서 처리되어 각 세포로 전해지며, 각 세포는 받은 신호를 통해 그에 맞는 유전인자를 발현케 된다. 그 유전인자의 발현으로 각 세포의 형질이 바뀌게 된다.

다시 이 메뚜기를 녹색으로 만든 통에 넣게 되



면 그 메뚜기는 똑같은 과정을 통해 얼마의 시간이 지난후 녹색으로 변해버린다. 메뚜기의 세상 읽기는 이렇게 진행되며, 우리는 그것을 순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메뚜기는 세상의 변화 흐름 자체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색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 변할 뿐이다. 마치 개나리에게 적당한 온도가 주어지면 꽃이 피어 '시간은 봄·여름·가을·겨울로 변하게 개나리는 봄에 핀다.'라는 시간적 세상흐름을 개나리가 모르는 것과 일치한다.

이에 비해 엘빈토플러의 세상읽기는 '세상은 변한다.'라는 원칙하에 서비스업의 발달과 그에 대한 사무기기 즉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통신기기, 위성의 발달, 최신기술 발달의 현상들을 보고, 그 정보를 정리 분석하며 '제3의 물결'이라는 세상이해의 결정체를 만들어 내었다. 이는 단순히 사실에 대한 세상 읽기라기 보다는 자신의 사고를 통한 세상의 흐름을 잡아내어 세상을 이해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메뚜기와 엘빈토플러의 세상읽기의 차이는 "그 세상의 정보를 메모하기", "변화의 흐

름잡기"인 것이다.

『세상따라잡기』 메모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연필로 적는다'라는 개념을 넘어 정보의 저장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현재의 현상을 미리 예견해 보고 준비한다. 역사를 통해 반성하고 그 반성을 통해 또 한번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 만약에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적어둔 역사가 없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경험이라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고 시행착오만이 남발할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잡기를 한 번 생각해 보자.

감기 Virus를 연구하는 한 과학자가 있다. 이 과학자는 '감기 Virus는 7년을 주기로 그 외형을 바꾸므로 백신 또한 7년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감기 Virus에 대한 백신 한가지만 만들면 감기가 정복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감기의 정복은 단순히 백신 한가지의 발명으로 되지 않고, 정복될 수 없는 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현재 백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7년 주기의 Virus 확산에 대비하여 백신연구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감기가 백신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은 세상읽기에 그치지만, 감기 Virus는 그 외형을 주기로 바꾸어 가므로 백신연구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로 세상을 이해한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잡기"는 이렇듯 나무를 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숲을 보는 지혜를 의미한다. 교실의 자율학습 시간에는 책을 보는 학생, 무언가를 쓰거나 즐기고 있는 학생, 편지를 쓰는 학생, 잡담을 하는 학생 등 여러 종류의 학생

들이 있다. 그 교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무어라 말하겠는가?

“교실의 학생들은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잡기”라고 할 수 있다.

위 이야기들을 우선 정리해 보면 세상의 이해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보의 메모정리’와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잡기’라고 말했다. 이것은 단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분명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메모를 남긴다는 것, 또 거기에 그 정보로 흐름을 잡는다는 것은 꾸준한 시도와 노력으로 형성되므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누가 어떻게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위에서 엘빈토플러와 메뚜기의 세상 읽기에서 말했던 세상이해의 방법을 우리는 취해야 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그 해답이 자신에게 떠오를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세상살이의 지표가 될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을 보고 그러려니 하는 모습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숲이 변하는 원리, 나무가 변하는 원리, 하늘의 모습이 변하는 원리 모두, 그 변화 관계에는 흐름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세상의 흐름을 잡았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에 집념을 가져야 하는 것이 나를 확신에 다르게 할 것인가?

“나”를 세우는 것이, 나의 분명한 길을 확신하는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속에 종적을 짓을 주 없는 나를 발견하였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내가 어떤일에 집념을 가져야 하는지를 올바른 세상 읽기를 통해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2차대전에서 히틀러는 자신만의 철학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공황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은 ‘전쟁’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메뚜기의 세상읽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세계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으며,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는 올바른 세상 이해를 못했던 것이다. 그가 엘빈토플러처럼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면, 것처럼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시기에 우리는 올바른 세상이해를 통해 평안하고 안락한 미래를 담보받는 것이다.

격동의 시기에 “나”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다. **공군**

칠점산과 두꺼비 바위

양 하 운

중사/제5전술공수비행단 지원대대



당 부대내에 칠점산 중 1개가 남아 있으며 파견 부서인 구포 펌프실 내에 두꺼비 바위가 자리 잡고 있다. 둘다 유래가 깊은 지역 문화 유산이며 앞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것이다. 먼저 일곱개의 산 중에서 1개 밖에 안남아 있는 칠점산에 대하여 그 전설에 섞인 유래와 선조들이 읊은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조선시대의 낙동강 하구를 지도로 소개하고 칠점산과 삼차강의 위치와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부대장이 거주하는 관사 앞길이 칠점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대밖에는 칠점산에 대한 비가 건립되어 있다. 당 부대에서는 92년 4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칠점산 공원화 조성작업을 지역 강수구청 녹지과 협조 아래 실시하였다. 칠점산 주변 콘센트 건물 3동을 철거하였으며 연못 조성과 함께 벃나무, 동백나무 등 수목 이식 작업을 함으로써 장병들의 정서함양과 주민들의 향토적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두꺼비 바위 또한 복구 구포동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지만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다행히 파견 부서인 구포 펌프실내에 있어 훼손되지 않은 채로 보존되고 있으며 부대장님의 깊은 관심으로 복구청 협조 아래 파묻힌 흙을 들어내고 현판 설치 등을 함으로써 보다 더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같이 부대내 위치한 두 문화유산은 영원토록 보존될 것임을 확신한다.

칠점산과 삼차수(三叉水)

김해(金海)의 지명은 글 뜻대로 '쇠바다'에서 유래한다. 가야시대 '철(鐵)의 생산지로서, 그리고 해로(海路)를 통한 철의 교역지로서의 쇠바다'인 것이다.

상전벽해(桑田碧海), 백해상전(白海桑田)이란 말이 있다.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되고 바다가 변변히 뽕밭이 되는 것처럼 세상일이 덧없이 심하게 변천함을 비유한 것이다. 부산

의 낙동강 문화권에 속하는 강하류, 하구역은 그야말로 바다가 평야로 변해 버린 백해상전(白海桑田)의 실체인 것이다.

이곳의 지명(地名)도 환경의 변천에 따라 많이 바뀌고 사라져 갔다. 지금의 김해평야지대가 모두 바다였을 때인 신석기시대에는 강서구 강동동의 덕도(德島)와 가락동의 죽도(竹島)는 사람이 살았던 섬이었다. 쇠바다의 해중고도(海中孤島)였던 칠점산(七點山)에는 전설이 있다.

동국여지승람과 김해읍지에 보면 “가락국 거동광이 초선대(招仙臺) 바위산에서 10여리 떨어진 곳에 있는 칠점산의 참시선인을 부르면 곧 배를 타고 가야금을 안고 와서 연주하면서 함께 즐겼다.”는 기록이 나온다. 칠점산은 7개의 짝은 산이 흡사 점을 찍어놓은 것 같아 칠점산이라 하였고, 바닷가에 있는 산이라서 해서산(海筮山)이라 하였다. 가야시대 7개의 작은 섬들이 오랜 세월동안 토사(土砂)의 퇴적작용으로 바닷물을 밀어내고 삼각주가 생기면서 산으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섬들이 있었던 김해바다는 그뒤 어떻게 변천되어 왔을까?

고려시대의 기록에는 낙동강 하구의 물길이 세 갈래로 흘러 삼차수(三叉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모래섬 사이로 강물이 크게 세줄기로 나뉘어 바다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니 삼차수(三叉水), 삼분수(三分水)라고 하였다. 이때는 벌써 낙동강의 물길이 운반해온 토사(土砂)가 지속적으로 퇴적되어 삼각주(三角洲) 하중도(河中島)가 생기면서 세갈래의 강물줄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삼차수에도 전설이 있다.

옛날 말하기를 “한충(韓沖)이 꿈에 천상(天上)에서 삼차(三叉, 세가닥진 비녀)를 얻었는데,

깨어나서 이 강에 던졌더니 강물이 세 갈래로 나누어 졌다. 한가닥은 감동포(구포) 앞에서 소요도의 동쪽으로 와서 바다로 들어가고, 한가닥은 출두 쪽에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래서 삼차수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김해평야라는 지명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한·일합병이후 일제(日帝)가 토지수탈을 위해 수리(水利) 사업을 벌이면서 부터 였고 1930년대 삼차수(三叉水)인 낙동강을 일천식(一川式)으로 하기 위해 동낙동강쪽의 하폭(河幅)을 넓혀 강의 동서 양쪽에 제방을 쌓고 강의 본류였던 서낙동강쪽은 대동수문과 녹산수문을막아 농업용수(農業用水)를 확보한 이후인 것이다.

김해팔경(金海八景)에는 삼차귀범(三叉歸帆), 삼차수에 돌아가는 돛배), 칠점낙안(七點落雁, 칠점산에 내려앉은 기러기)이 나온다.

강 하구지역의 경관을 삼차경대(三叉經帶) 칠점우영(七點于榮)이라고 했으니 ‘삼차수 거처가는 물길에 칠점산이 얹혀서 돈다.’는 뜻인데 고려, 조선시대에 김해를 찾는 선비들이 이곳의 선경(仙境)에 취하여 좋은 글들을 읊고 갔다.

그리고 강 동쪽 구포의 나루터 언덕 위에 누각을 지었는데 삼차수와 칠점산의 경관이 한 눈에 펼쳐지는 곳이라 삼칠루(三七樓)라는 현판을 걸었다고 한다. 옛날의 세갈래 강물은 이제 김해평야를 끼고 낙동간 제방에 갇힌 물이 되었고 구포 앞으로 흘러 내리는 큰 강물도 하구둑에 갇혀 버렸다. 칠점산도 일제시대 3개의 산이 허물어졌고, 해방 이후 비행장 건설로 3개산이 없어져서 겨우 1개의 산 모서리만 남아 공군 5672부대 유지보급소 옆에 1개만이 남아 있다.

옛날 바다였던 강 하구지역이 지금은 삼각주

로 형성된 평야지대가 되기까지 역사적 흐름속에 주변의 지명(지명)과 거기에 얽힌 사연들이 쌓여왔다.

곽여 이후 고려조에 낙동간 하구를 찾아 시구를 남긴 인물로 김기거 등이 있다. 이들이 주목한 하구의 승경은 삼차강과 칠점산이 대표적이다. 그 중 정몽주의 시를 보자.

칠점산 앞으로
저녁노을 비껴있고,
삼차강 나루 어귀엔
푸른 파도 출렁이네.
봄바람부는 이월에 금주땅 나그네 되었으니,
영락없구나!
강남길 오른 행색이로다

七点山前幕靄棟
三叉渡口錄披生

春風二月金州客
正似江南路上行

이 시는 칠점산과 삼차강이라는 서경을 통해 정몽주 자신의 나그네 형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칠점산과 삼차강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지명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칠점산은 삼차강이 싸고돌아 흐르는 섬에 있는 산인데, 야트막한 봉우리 일곱개가 올망졸망 모여있는 것이 무척 아름다운 산이었다. 정몽주는 유랑하는 나그네 행색으로 김해에 들러 낙동강의 광경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에 그려진 삼차강과 칠점산의 모습은 독립적이지 못하고 시인의 주관정감을 묘사하는 배경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들 고려시인들의 제영한 낙동강 하구의 경관은 김해를 지나는 노정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서, 하구의 더 아래쪽까지는



조선시대의 낙동강 하구

아직 유람의 발길이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조선조에 들어 사대부정권이 차츰 안정되면서 사대부 문인들은 재도론(載道論)에 입각한 경제적 문학의 수립을 이루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인으로서의 기상을 함양하기 위해 명산대천을 두루 유람하기를 즐겼다. 이 유람의 과정에서 많은 산수시와 제영시(題詠詩)를 남겼으니, 이는 국토산하에 대한 애착과 향토에 대한 깊은 애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 결심이 동국여지승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때 김해지역과 낙동강 하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었다. 특히 김해는 조선초엽에 한동안 합포절도사를 겸직하며 승관을 파견하여 다스렸는데, 태종때에 이르러로 도호부로 승격시키면서 비로소 부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이 이후로 사대부 문인들의 발길도 한결 잦아졌다고 본다.

三分水 강가엔

갈대꽃 눈처럼 날리고,

七點山 앞에는

가을이라 단풍이 들었네

화려한 배를 강으로 놓아

피리 북소리 잠겨드니,

신선이 내릴 이 곳

바로 金州로구나.

교은(郊隱) 정이오(鄭以吾)의 여유있는 사대부로서 풍류로운 작품이다. 배를 띄워 풍악잡히고 마치 선계에 이른 양 자신의 흥취를 돌게한 것은 바로 삼차강가에 눈발처럼 무성히 날리는 갈대꽃과 남쪽으로 보이는 짙게 물든 칠점산의 단풍의 장관이다. 이 장관을 보고 도저히 시흥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이 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칠점산과 같이 독립적이 아니라 서로 하나의 어우러진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어우러진 풍경은 삼분수 강가의 갈대꽃과 칠점산 앞의 단풍이라는 시적 대구를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칠점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는 전록생(田祿生)의 시가 유명하다.

바닷가의 仙山

일곱 점이 푸르고,

가야금 울림속에 흰 달

밝게 떠오르네.

이 세상에 곱다고운 손

있지 않았다면

그누가 울렸으리.

海上仙山七點靑

琴中素月一輪明

世間不有織纖手

誰肯能彈太古情

가락 2대왕인 거등왕이 초선대(招仙臺)에 불러 함께 놀았다는 참시선인이 머물던 산이 칠점산이라는 전설이 전한다. 높지않은 일곱개의 자그마한 산이 떠오르는 밝은 달과 어울려 시인의 고아(古雅)한 정회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시는 칠점산이 단지 하나의 지명으로서만 등장하지 않고 그 자체가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또한 칠점산에 관한 전설을 시 속에 교묘히 배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꺼비 바위

구포의 지킴돌.

구포의 범방산 본 줄기에서 강변쪽으로 뻗어 내린 언덕아래 두꺼비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집채만큼 큰 모양을 갖추었는데 예로부터 구포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는 곳이었다.

특히 배에 짐을 싣고 낙동강 상류를 올라가면서 언덕 위에 있는 바위 앞에 올라가 아무쪼록 아무 탈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두꺼비 바위는 그 형상이 목 부분과 턱 부분, 그리고 몸통 부분이 뚜렷이 드러나 보이는데 특히 눈자위가 양쪽으로 분명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두꺼비 바위가 좌정해 있던 강변 언덕 위

에 경부선 철로를 가설하면서 바위 옆으로 기차가 오르내리게 되었다.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바위를 쳐다보면서 그 모양이 두꺼비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구포의 상징으로서 향토의 지킴돌이 되어 왔던 두꺼비 바위가 철도변에 구포 펌프실(공군 5672부대 파견부서)이 설치되면서 민간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부대에는 유래가 깊은 문화유산이 존재하며, 다행히 그 유산의 가치를 알아 전 장병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공단**

공군 1997년 여름호(통권 제239호)

...
글을 기다립니다.

구 분	내 용	분 량
보라매칼럼	의식적 차원에서 권장할 사항	20매 내외
시사, 안보	— 군 전략 및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것 — 군과 관련된 군내외 시사문제	40매 이내
군사지식	공군 및 군대 전반에 관련된 지식 및 정보	40매 이내
공군논단	시사안보를 제외한 연구분석 발표	40매 이내
미음의 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수상록	20매 내외
취미생활	타인에게 권할 만한 취미 소개	30~40 내외
장병문예	단편소설, 시 등 문학작품	자 유
병영이야기	병영생활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	15~30매
기 타	— 공군정책 제안 — 부대동정 사진 — 공군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알림

본 도서는
공군장병들의
교양함양과 건전한
읽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
게재된 내용은 공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 간 : 연중

▶보낼곳 : — 각 부대 정훈참모(“공군”지 제출 원고임을 반드시 명기바람)
—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공군지 편집실

※ 반명함판 사진 1매, 연락처 명기, 통장 계좌번호 사본

▶전 화 : (호)6232 (02) 506-6232
(042) 552-6232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원고 송부시 계좌번호 기입 바람)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발행일 : 1997년 6월 24일
■인쇄처 : 인쇄/출판 금성산업
T. (042) 254-7434, F. 256-7434



공군 군악 장 교 모집 하사관 · 병

○ 자 격

- ▶ 장교(만20~27세) : 학사학위 이상
- ▶ 하사관(만18세~27세), 병(만18~25세) : 고교졸업 이상

○ 지원서 교부 : 각 지방 병무청, 민원실

○ 문의처 : 공군 본부 군악대

(02 - 506 - 5661, 042 - 552 - 5661)

